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연구 2023-1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_ 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Cultural Policy in Action Engaging with Social Issues_
Cases and Implications from Local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연구 2023-1]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_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발 행 처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 이창기)

발 행 일 : 2024.2.1.

기획 및 주관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책임 : **김해보**

공동연구진

강원문화재단	**고성은 전아름 심현주**
경기문화재단	**김진희 김종헌 문채원**
광주문화재단	**정혜영 박경동 김연경**
대전문화재단	**한희준 박혜성**
부산문화재단	**조정윤**
서울문화재단	**우사랑 동다예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최윤정**
울산문화관광재단	**김성태 심다혜**
인천문화재단	**김락기 노수연**
전남문화재단	**정선재 박하나 이명희**
전북문화관광재단	**홍승광**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세진 국혜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손지영**
충북문화재단	**김병만**

연구보조 : **하안지**

연구지원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 우사랑(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본 보고서의 내용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그 회원기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 파일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http://nafa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김해보 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23)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 979-11-987158-0-7

Cultural Policy in Action Engaging with Social Issues_
Cases and Implications from Local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Published on February 1, 2024, by the Korea Regional Culture Policy Research Center in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NAFAC). This report was authored and edited by Dr. Hae-Bo Kim, summarizing collaborative research conducted by staff members from the foundations within NAFAC's membership.

요 약

연구개요

- 지역문화재단들이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가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한광연 회원기관 직원들이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2023.8~2024.1월, 약 5개월 간 공동연구진 워크숍, 전문가 자문, 회원기관 사례분석, 해외사례 조사, 문헌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의 개념과 동향 정리
  -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문제 대응형 문화사업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파악
  - 사회문제 대응형 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 제시 및 한광연의 역할 제언

- 한광연 회원기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에서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총 13개 회원기관의 23개 사업 사례들을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연번	기관	기관별 소개 사례들	구분
1	강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문화예술접근성-사례3
2	경기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역문화자원으로	문화다양성-종합
		▷의정부 기지촌 '빼뻘마을' 재생 프로젝트	문화다양성-사례1
		▷평택 기지촌 여성 평화 박물관 '일곱집매' 조성 및 운영	문화다양성-사례2
3	광주	▷장애인 예술가를 배리어프리 예술강사로 양성	문화예술접근성-사례2
		▷광주형 문화메세나 운동	기업제휴-사례4
		▷ESG 내재화	기관경영기조전환-사례2
4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문제-사례2
5	부산	▷지구 위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기술 - 예술	환경문제-종합
		▷비치코밍	환경문제-사례1
		▷사회참여형 문화기획으로서 문화정책연구	정책연구-종합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	정책연구-사례1
6	서울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창의적 파트너십	기업제휴-종합
		▷장애예술인 지원 <로레알코리아-친환경 창작활동지원>	기업제휴-사례1
		▷장애예술인 지원 <(주)효성화학-굿모닝스튜디오>	기업제휴-사례2
		▷시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주)한성자동차-소원반디>	기업제휴-사례3
7	세종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	지역활력-사례1
8	인천	▷사회적 가치실현을 향한 기관 차원의 전략적 대응	기관경영기조전환-종합
		▷문화적 (Cultural)-ESG 경영계획 수립	기관경영기조전환-사례1
		▷인천문화재단 기부금 및 메세나 기획사업	기업제휴-사례5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인천 문화정책 연계 방안 연구	정책연구-사례2
9	전남	▷로컬한 창의력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하기	예술가활동지원-종합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 프로젝트	예술가활동지원-사례1
10	전북	▷고창 돌우물의 바람	환경문제-사례2
		▷청년예술 퀵 서비스	문화예술접근성-사례1
		▷지역문제를 해결할 지역예술가 ... 메세나로 지원하기	예술가활동지원-사례3
11	제주	▷지역의 사회적 문화해결 위한 전문인력 <문화:소셜플래너> 양성	예술가활동지원-사례2
12	충남	▷긴 호흡으로 관찰하고 계측하기	영향및변화연구-종합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술교육	영향및변화연구-사례1
13	충북	▷청소년과 문화-이어주기	청소년문제-종합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체험교육,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청소년문제-사례1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개념과 동향, 그리고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 사회적,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실제 언어 사용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였음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라는 말은 주로 "문화정책 영역 바깥의",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음. 하지만, 애당초 공공정책이 다루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우가 없으며,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혁신이 필요할 만큼 오래 묵은 구조적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임.

- 따라서, 문화정책이 다루는 사회적 문제들은 <사회 전반에 관한>,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대 문화정책의 중점기조를 표방하는> 문제들로 파악됨.

- 결국 문화예술의 본질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활용해서 사회에 필요한 공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문화로 사람들이 잘살게 하는 것"을 통틀어 "사회적 문제해결 문화정책의 실천"으로 파악할 수 있음.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제(經濟 = Economy)"의 개념을 공공정책의 사회적 역할까지 포함하는 본래 뜻인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되돌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결국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란 문화에서 "문화경제(文化經濟 = Cultural Economy)"를 넘어 "문화적 경세제민(Cultural 經世濟民)"으로 나아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의 흐름을 종합하면 <①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자임해온 문화예술, ②실용적인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오래된 압박, ③코로나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④사회적 위기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⑤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조응할 문화서비스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⑥문화정책의 미래 영역확보 전략으로서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추세로 요약할 수 있음.

- 아울러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과 전략적 선택을 공동연구진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리하였음. 지역문화재단들은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싶지만 <정책기획 자율성과 역량 한계>, <한정된 예산>, <기존 고유사업과 신규 사회적 역할 강화 중 선택 딜레마> 등의 문제에 봉착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❶문화예술 본질적 가치의 Spill-Over 추구, ❷사회적 문제해결을 고유사업의 혁신 계기로 활용, ❸창의적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 강화, ❹다양한 영역과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한 Scale-up 추구, ❺주체성을 존중하는 협력으로 상호 공진화 추구> 전략 등이 제안되었음.

사회적 문제 해결 문화정책	
개 념	동 향
사회적 문제 -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 - 새로 부상하는 이슈 + 혁신이 필요한 해묵은 과제 -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할 문제 - 공공정책이 해결하려는 모든 문제 - 동시대 문화정책의 중점기조를 표방하는 요소 문화의 사회적 가치 구현 - 문화의 공공적 가치 구현 - 문화로 사람들이 잘살게 하는 것 - 사회적 문제해결 문화정책의 실천	①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자임해온 문화예술 ② 실용적인 증거기반 (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오래된 압박 ③ 코로나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④ 사회적 위기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⑤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조응할 문화서비스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⑥ 문화정책의 미래 영역확보 전략으로서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지역문화재단들	
고 민	선 택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 개념의 광의성 ▷기존 고유사업과 신규 사회적 역할 강화 중 선택 딜레마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기획 자율성과 역량 한계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해결 문화서비스의 다양성과 규모 요구 ▷사회문제해결 성과지향성에 상처받을 자율성	❶ 문화예술 본질적 가치의 Spill-Over 추구 ❷ 사회적 문제해결을 고유사업의 혁신 계기로 활용 ❸ 창의적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 강화 ❹ 다양한 영역과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한 Scale-up 추구 ❺ 주체성을 존중하는 협력으로 상호 공진화 추구

지역문화재단들이 다루고 있는,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 세 가지 유형

-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현장 사례로서 한광연 회원 기관 중 13개 광역문화재단들이 시행하고 있는 23개 사업들을 <❶다양한 문제들 : (1)청소년 문제, (2)문화다양성, (3)환경문제, (4)지역활력, (5)문화접근성>과 <❷다양한 접근법 : (1)예술가 활동지원, (2)제휴를 통한 확산, (3)정책연구, (4)영향 및 변화평가, (5)기관 경영기조 전환> 등 총 10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사회문제해결의 개념과 정책적 동향,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실태들을 종합하면, 지금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정책 주체들이 관심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는 <❶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 ❷문화예술로 해결 실마리를 찾거나 완화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 ❸기술과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혁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이라는 말로써 주로 <❷문화예술로 해결 실마리를 찾거나 완화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몇몇 사례에 관심과 환호를 보내지만, <❶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와 <❸기술과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혁신>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어야 함.

-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화서비스의 디지털전환(DX)>,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은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파악됨. 문화소외와 예술가의 생존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심화되는 문화예술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대응하고, 첨단기술이 바꾸어 놓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패턴과 눈높이에 맞게 공공문화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도 사회문제해결형 접근법이기 때문임.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세 가지 유형	세부 과제
❶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	-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복지 향상 - 문화서비스의 역진성 해소 -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 - 문화다양성 사회 대응, 등
❷ 문화예술로 해결 실마리를 찾거나 완화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	-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 치유 - 육체건강 및 치료효과 증진 - 청소년 및 가족 문제 치유 - 사회적-문화적 갈등 해소 - 소수자 인식개선 및 혐오 해소 - 지역재생 및 활력 제고 - 지방소멸 대응 - 창의력 증진 - 국제평화 및 교류증진 - 범죄예방 - 공동체 회복, 등
❸ 기술과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혁신	- 문화서비스의 디지털전환(DX)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문화서비스 개선 (1인가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①문화예술의 가치 확산과 활동영역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음. 다른 정책영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으로 기업 및 타 정책주체들과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 뿐만 아니라,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②오래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확대의 필요조건으로서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Turn)>

-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조건으로서 <❶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과 <❷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을 포괄한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Turn)>을 제시함.

- 1970~80년대 사회학 연구에서 불었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에 대비하여, 문화정책의 기조 변화로서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라는 개념을 제안함.

-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기존의 문화정책 이슈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동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조응하는 문화기획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임. 예전에는 불가결한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다소 시혜적이며 부가적인 공공서비스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던 태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접근법으로 특화된 문화사업을 펼치는 정책 접근법을 지칭하고자 함. 이런 문화사업에 따른 사회적 변화 파악에 의미와 가치 해석 중심의 접근법 보다는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문화정책 연구도 아울러 "사회적 전환"이라고 칭할 수 있음.

- <❶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에는, 칸막이 없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①칸막이를 넘어서는 문화행정>, <②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공감자의 태도 견지>, <③다양한 주체들을 포용하는 파트너십 지향>이 필요함.

- <❷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을 위해서는 문화와 사회의 변화를 <④긴 호흡으로 측정하고 관찰하기>, <⑤문화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⑥사회변화 맞춤형 문화서비스로 혁신하기>가 필요하다고 파악하였음.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 (Social-Turn)	
❶ 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	① 칸막이 없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칸막이를 넘어서는" 문화행정
	② 성과를 자랑하는 "만능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개입의 적절성을 고려하며 "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공감자"의 태도 견지
	③ 문화예술의 가치를 주창하는 리더십 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용하는 파트너십" 지향
❷ 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	④ 정책성과가 아닌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긴 호흡으로 측정하고 관찰하기"
	⑤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실현되는 "문화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⑥ 다양성이 커지는 사회구조와 첨단기술 변화에 편승하여 "사회변화 맞춤형 문화서비스로 혁신하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 제언

- 한광연이 전국 문화재단들의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❶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 <❷협력과 지원의 매개자>로서 수행해야 할 총 6가지 세부과제를 제안함.

- <❶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으로는 <①전국 문화재단들의 사례 아카이빙, ②사회적 가치 읽어주기, ③공진화 및 사례 확산>의 플랫폼 역할을 기대함.

- <❷협력과 지원의 매개자>로서는 <④적극적으로 정책개발 및 제안, ⑤자원 유치의 가교 역할, ⑥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역할이 필요함.

❶ 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	① 전국 문화재단들의 사례 아카이빙	- 한광연 문화정책 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② 사회적 가치 읽어주기	- 회원기관 사업들의 정책적 의미를 읽어주는 <지역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발간
	③ 공진화 및 사례 확산	- 포럼, 박람회, 아카데미 등 사례 공유 행사 개최 - 탄소저감 ESG 실천 등 공통지표 만들어 함께 실천
❷ 협력과 지원의 매개자	④ 적극적으로 정책개발 및 제안	- 문화부 및 지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 회원기관 협력형 전국단위 신규사업 개발하여 제안
	⑤ 자원 유치의 가교 역할	- 기업 제휴 및 메세나 프로젝트 공동 제안 - 지역활력 등 타 정책영역 사업의 유치
	⑥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 사회적 실천 인식전환 및 노하우 툴킷 공동 개발 - 회원기관 직원 및 지역예술가 대상 교육 공동운영

Cultural Policy in Action Engaging with Social Issues

"Cases and Implications from Local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Research Overview

Recently, the so-called "cultural policy for social problem solving" has been emphasized. This phenomenon is a combination of the expectation that culture and arts can provide creative solutions to increasingly diverse and deepening social problems such as climate crisis, social conflict, and aging, and efforts to provide the evidence to justify public investment in cul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NAFAC)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focusing on the following agendas.

- Summarizing the concepts and trends of social problem-solving cultural policies
- Analyzing cases of social problem-responsive cultural projects conducted by local cultural foundation and identifying policy implications
- To propose policy actions for promoting social problem-responsive cultural policy and suggest the role of NAFAC

It was conducted over a five-month period from August 2023 to January 2024 through researcher workshops, expert consultations, business case analysi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overseas case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 The joint research team led by Dr. Hae-Bo Kim was composed of staff from NAFAC's member foundations.

The Concepts and Trends of Social Problem-Solving Cultural Policy and Response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The phrase "social problem-solving cultural policy" has the nuance of addressing issues that are "outside the realm of cultural policy," "society-wide," and "recently emerging." However, it is by no means the case that the problems addressed by public policy are not social problems in the first place. In addition,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long-standing enough to require innovation with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are also social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as the "social problems for cultural policy". Therefore, the social problems addressed by cultural policy are identified as problems that are "about society as a whole," "to be solved from a social structural perspective," "to embody the social value of culture and arts by solving them," and "to express the focus of contemporary cultural policy by choosing them". In the end, we can understand "implementing public interests with the values of culture and arts" and "making people live well with culture" as "practicing social problem-solving cultural policies". In order to expand awareness of the social value of cultu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經濟(jīng jì) = Economy" by returning it to its original word, "經世濟民(jīng shì jì mín)". 經世濟民(jīng shì jì mín) means to run the world and keep people in order to live well. So, it includes the social role of public policy. In other words, "social problem-solving cultural policy" can be described as an effort to move beyond "文化經濟 = Cultural Economy" and toward "Cultural 經世濟民(jīng shì jì mín)". This study summarizes the historical flow and current trends of cultural policies that address social problems as follows.

① Culture and arts have always taken responsibility for global issues.
② There is a long-standing pressure to shift to pragmatic ≈ evidence-based cultural policies.
③ The value of culture and arts is more prominent in social crises such as COVID-19.
④ In the midst of social crises and rapid changes, there are inherent problems in cultural policies that are deepening structurally.
⑤ Innovation of cultural services to respond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is also highlighted as a social problem.
⑥ Expanding the social-problem responsive cultural policies is also emphasized as a strategy for securing the future of cultural policies.

In addition, the concerns and strategic choice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dealing with social issues were summarized through researcher workshops and expert consultation meetings. Local cultural foundations face problems such as limited autonomy and capacity for policy planning, limited budgets, and the dilemma of choosing between existing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new social roles. As a strategy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❶ Spill-over of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e through the social engagement
❷ Using social-problem engagement as an opportunity to innovate cultural businesses
❸ Strengthening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unctions to support creative cultural planning
❹ Scaling-up through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various areas with diverse actors
❺ Pursuing mutual co-evolution through cooperation that respects mutual subjectivity

Social Problems that Local Cultural Foundations are addressing and should be addressed

As examples of cultural projects in a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23 projects already being implemented by 13 cultural foundations among NAFAC member organizations were studied, in two major categories, <❶Diverse Problems> and <❷Diverse Approaches>, and further divided into 10 fields as follow.
❶ Diverse Problems : (1)Youth issues, (2)Cultural diversity, (3)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issues, (4)Regional vitality, (5)Access to culture
❷ Diverse Approaches : (1)Supporting artists' activities, (2)Spreading through partnerships, (3)Policy research, (4)Study on the Impact and social change, (5)Changing the management principle of organizations
This study synthesized the concept of social problem-solving, policy trends, and response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and categorized social problems that should be of interest to local cultural foundations and cultural policy actors into three types.
❶ Intrinsic problems of cultural policy that should be solved from a social structural perspective
❷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arts and culture should contribute to solving or alleviating
❸ Innovation of cultural services that should be adapted to technological and social structural changes
When we use the phrase "cultural policy solving social problems," we are mainly interested in and applaud some cases where culture has solved problems of type ❷. However,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intrinsic problems of cultural policy in type ❶ and innovation in cultural services in type ❸. In particular, 'Digital Transformation(DX) of Cultural Services' and 'Survival of Art and Artists', which were not analyzed in this report, are identified as soci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urgently within the realm of cultural policy. This is because it is a social problem-solving approach that responds to the essential problems of cultural policy, such as cultural marginalization and artists' survival, which are deepening in the midst of social crises, from a social structural perspective. Also the innovation of public cultural services should be carried out from a social perspective to meet the cultural life's change and expectations of citizens changed by recent high technology.

Three types of social problems to be addressed by cultural policy	Detailed problem examples
❶ ntrinsic problems of cultural policy that should be solved from a social structural perspective	- Increasing access to culture and improving cultural well-being - Reducing inequalities in access to cultural services - Survival of the arts and artists - Responding to a culturally diverse society
❷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arts and culture should contribute to solving or alleviating	-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 Promoting mental health and emotional healing - Promoting physical health and healing - Healing youth and family issues - Resolving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 Improving minority awareness and eliminating hatred -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neighborhoods - Fighting rural decline - Promoting creativity among citizens - Promoting international peace and cultural exchange - Crime prevention - Community restoration
❸ Innovation of cultural services that should be adapted to technological and social structural changes	- Digital Transformation (DX) of Cultural Services - Improving cultural services in response to changing demographics (single-person households, aging population)

The Need to Expand Cultural Policies Engaging with Social issue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expand cultural policies that engage with social issues because they can be utilized as an opportunity to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arts and expand the scope of activities. A social problem-engaging cultural project that solves social problems in other policy areasother policy areas can be expected to expand the scope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hrough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with companies and other policy actors. Through this,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e can be socially spread to secure legitimacy for cultural policies, as well as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cultural actors and artists. In addition, as part of the effort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cultural policies by solving long-standing structural problems and innovating services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the need to expand cultural policies that engage with social issues is also raised.

Social-Turn in Cultural Policy as a Requirement for the Expansion

This study proposes a "social turn in cultural policy," which includes <❶Social turn in policy perspective> and <❷Social turn in problem-solving methodology>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expansion of social problem-solving cultural policy. Compared to the "Cultural turn" in sociological research in the 1970s and 1980s, we propose the concept of "Social Turn in Cultural Policy" as a fundamental change in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ies that have made a social turn would address cultural policy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lass and structure. In addition, they apply a cultural planning methodology that identifies and responds to the changes in culture due to social changes in order to formulate policies. It also refers to a policy approach that actively addresses specific social problems and carries out specialized cultural projects in a more proactive manner. In the past, cultural services were not indispensable public services, but rather were provided universally as a somewhat supplementary public service. Cultural policy research that applies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ies rather than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and value identifing social changes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cultural projects can also be referred to as the "Social Turn" of cultural policy.

❶Social turn in policy perspective requires a cultural administration that goes beyond siloed divisions, an attitude of empathy that works together, and a partnership that embraces various actors. ❷Social turn in problem-solving methodology requires measurement and observation for a long time,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support for the cultural ecosystem value chain, and innovation of cultural services responding to the growing diversity of society and capitalizing on high-technology.

Social-Turn in Cultural Policy	
❶ Social turn in policy perspective	① Cultural administration that "crosses the divide" to solve problems in a society without siloed divisions
	② Adopting the attitude of an "empathizer in society" who consider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ventions, rather than an "all-round problem-solver champion" who boasts of achievements
	③ Aiming for "partnerships that embrace diverse actors" rather than leadership that emphasizes only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❷ Social turn in problem-solving methodology	④ Measure and observe changes in society and culture, not policy outcomes, "with a long breath"
	⑤ Understand and appropriately support the “cultural ecosystem value chain” where the social role of culture and art is realized
	⑥ Innovate to become “social change-responsive cultural services" by responding to the growing diversity of society and capitalizing on high-technology

Proposed Role of NAFAC

This report concludes by proposing six specific tasks that NAFAC should undertake as a "❶platform for sharing experiences and disseminating values" and a "❷mediator of cooperation and support" to support the transition of cultural foundations across the country to social problem-engaging cultural policies.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_

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목 차

요약

I. 연구 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론** 1
- **3. 연구참여자** 2
- **4. 추진경과** 3

II. 사회문제와 문화정책 _ 개념과 동향
- **1. 개념 _ 사회적 + 문제** 4
  - (1)사회, 사회적?
  - (2)사회적 문제
  - (3)사회적 가치
- **2. 동향 _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13
  - (1)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자임해온 문화예술
  - (2)실용적인 ~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오래된 압박
  - (3)코로나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 (4)사회적 위기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 (5)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조응할 문화서비스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 (6)문화정책의 미래 영역확보 전략으로서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 **3. 대응 _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과 선택** 28
  - (1)지역화재단의 역할 변화에 대한 압박
  - (2)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과 선택

III.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현장 _ 지역문화재단 사례
- **1. 다양한 문제들** 37
  - (1)청소년 문제
  - (2)문화다양성
  - (3)환경문제
  - (4)지역활력
  - (5)문화접근성
- **2. 다양한 접근법** 60
  - (1)예술가 활동지원
  - (2)제휴를 통한 확산
  - (3)정책연구
  - (4)영향 및 변화평가
  - (5)기관 경영기조 전환

IV. 결론 _ 시사점과 제언
- **1. 지역문화재단들이 지금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88
  - (1)세 가지 유형으로 종합되는 문화정책의 사회적 문제들
  - (2)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성
- **2. 확대에 필요한 조건들 _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 (Social-Turn)** 90
  - (1)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
  - (2)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
- **3.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 제언** 93
  - (1)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
  - (2)협력과 지원의 매개자

부록
- **가. 참고문헌 및 자료들** 94
- **나.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회원기관 개요** 96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의 정책역량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광연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매년 시행 중임
  -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2022년)
  -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 분석 및 정책제안에 관한 보고서" (2021년)
  -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 연구" (2020년)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확장, 문화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 강조됨
  - 최근 기후위기, 지방소멸, 정서치유, 청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 수요가 커졌음.
  - 해외에서도 특히 코로나 이후 심화된 사회문제 해결에 문화예술이 기여할 방안을 찾는데 노력 중임.
  - 한광연 회원 기관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이미 시행 중인 사회문제해결형 사업들의 시대적 의미를 읽어주고, 추후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함.

- 기관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3년 연구주제로 결정하여 공동연구 시행
  - 1차 연구위원회(2023.5.18.) 결과와 회장단 의견 반영하여 연구주제안 설정
  - 연구주제에 대한 회원기관 의견 수렴 : 2023.6.13.~6.21.
  - 2차 연구위원회 통해 연구주제 채택 : 2023.6.22.

(2) 연구목적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으로의 변화 방향 설정 및 지역문화재단과 한광연의 역할 제시
  - 최근 중시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정보 정리 및 공유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공적지지를 확보할 방안 도출
  - 이런 정책적 변화를 주도하고 지원할 한광연의 역할 정리

- 공동연구 활동을 회원기관 직원 역량강화 및 공진화 기회로 활용
  - 연구진 워크숍 등 연구과정을 회원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와 학습 기회로 최대한 활용
  - 연구결과로 확보되고 축적되는 자료들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사업적 존재감 대외 발신

2. 연구범위 및 방법론

(1) 연구내용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의 개념과 동향 정리
  -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개념 정리
  - 문화예술에 요구되는 사회문제 해결 역할과 정책변화 동향 파악

-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문제 대응형 문화사업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파악
  - 문제 영역별 사례들 : 청소년문제, 문화다양성, 환경문제, 지역활력, 문화접근성 등
  - 접근 방식별 사례들 : 예술가 등 생태계 주체 지원, 기업제휴를 통한 확산, 정책연구 등
  - 한광연 회원기관들의 실제 수행 사례 소개, 정책적 시사점 파악

- 정책 제언
  - 재단별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회문제 대응형 문화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 시사점 확인

- 사회문제 대응형 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건들 제시
- 회원기관 지원, 문체부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을 담당할 한광연의 역할 제언

(2) 연구방법

- 회원기관 제공 자료분석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 수행사례 분석 (영역별, 방식별)

- 공동연구진 워크숍
  - 총 3회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공동집필 및 학습기회로 활용
    . 1차 : 사회적 문제해결 문화정책의 개념 공유
    . 2차 : 기관별 관련 사업 추진 사례,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 3차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 사례에서 확인되는 정책 시사점 및 제언
  - 집필진을 위한 글쓰기 교육 (자료제공)

-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조사
  - 기업제휴, ESG 경영, 문화기획 분야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 관련 사례 공유, 정책 제언
  - 해외 사례 조사 : 국제포럼 참석 및 전문가 인터뷰
  - 국내외 문헌연구

3. 연구 참여자

(1) 연구진

- **연구기획 및 주관**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 **연구책임** : 김해보(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 **공동연구진** :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및 회원 기관별 관련사업 담당자 (2023년 직책 기준)

참여기관	집필진 및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참여기관	집필진 및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원문화재단	고성은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최윤정	경영지원팀 차장
	전아름	정책협력실 차장	울산문화관광재단	김성태	예술지원팀장
	심현주	경영기획팀 대리		심다혜	예술지원팀 차장
경기문화재단	김진희	지역문화실장	인천문화재단	김락기	경영본부장
	김종헌	정책실 선임		노수연	정책협력실 차장
	문채원	지역문화실 주임	전남문화재단	정선재	기획경영팀 차장
광주문화재단	정혜영	예술인보둠소통센터장		박하나	문예창작진흥팀 차장
	박경동	예술인보둠소통센터 창작지원팀장		이명희	기획경영팀 주임
	김연경	기획전략팀 대리	전북문화관광재단	홍승광	경영기획본부장
대전문화재단	한희준	정책홍보팀장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세진	경영기획팀 차장
	박혜성	정책홍보팀 차장		국혜원	예술교육팀장
부산문화재단	조정윤	정책연구센터장	충남문화관광재단	손지영	미래정책팀장
서울문화재단	우사랑	미래전략팀 과장	충북문화재단	김병만	기획전략팀장
	동다예솔	미래전략팀 주임			연구 보조 : 하안지 (위촉연구원)

(2) 연구지원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 우사랑(과장)
- **한광연 사무처** : 김희식(사무처장), 박종건(간사)

4. 추진경과

- 연구 기간

<table>
<tr><th>월별</th><th>연구기획</th><th>공동연구
자료조사분석</th><th>공동연구
자문,시사점 도출</th><th>공동연구
편집, 출판</th></tr>
<tr><td>5~7월</td><td>- 1차 연구위원회(줌) : 5.18
(연구계획 논의)
- 신임 연구소장 취임 : 6.8
- 연구주제 의견수렴(회원기관 공문제출)
: 6.13.~6.21
- 2차 연구위원회(줌) : 6.22
(연구주제 확정)
- 운영위원회(6.29) 통해 이사회 보고
- 3기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추천 (~7.20)</td><td>연구기획을 위한 국내외
동향자료 조사</td><td></td><td></td></tr>
<tr><td>8월</td><td>- 1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 8.8(줌)
(연구위원회 및 공동연구진 확정)</td><td>기관별 사례분석</td><td></td><td></td></tr>
<tr><td>9월</td><td></td><td>- 2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
9.26(줌) (기관별 사례 공유)</td><td></td><td></td></tr>
<tr><td>10월</td><td>- 한광연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활용 정보공유
- 연합회 임시이사회에 연구진행상황
보고 (10.24)
- 연합회 임시이사회에 연구진행상황
보고 (10.24)</td><td>해외사례 조사 : 10.16~27
(청두 문화도시 컨퍼런스,
상파울루 WCCF 서밋 참석)</td><td>- 해외전문가 자문 :
10.13
(부산문화
컨퍼런스 참석)</td><td rowspan="2">공동집필진 글쓰기
지원
- 공통 편집
탬플릿 공유
- 글쓰기 교육자료
3종 제공
- 연구 참고문헌 제공</td></tr>
<tr><td>11월</td><td></td><td rowspan="2">영역별 동향 및 회원기관
사례 정리
(공동연구진 집필)</td><td></td></tr>
<tr><td>12월</td><td></td><td>- 3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및 자문회의
: 12.18(서울)
(기관별 사례 공유,
정책적 시사점 도출)</td><td>- 초고 수합 :
12.12
- 최종원고 수합
: 12.27</td></tr>
<tr><td>2024
1~2월</td><td>- 2024년 1차 연구위원회 개최 : 1.9(줌)
(연구결과 공유, 후속조치 논의)</td><td></td><td></td><td>- 원고 작성완료
: ~1월
- 편집, 디자인 :
~2월
- 보고서 발간 :
2월</td></tr>
</table>

1. 개념 _ 사회적 +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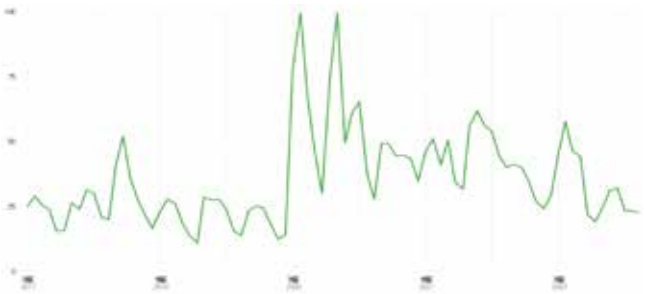
(1) 사회, 사회적?

- **사전적 정의가 아닌 현실 속에서 통용되는 개념 파악하기**
  - 이 연구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의 뜻을 정리하기 위해, 사회명목론, 사회실재론 등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인, "사회" 자체의 개념정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연구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말의 의미는 사전에 정의된 의미에 더해서, 시장, 정책, 기술에 의해 동시대에 새로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의미까지 파악되어야 함. 따라서 엄밀한 개념 정리 없이도 이미 사람들에 의해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제 사용 맥락 안에서 파악하고자 함.

<인터넷 빅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사회적"이라는 단어의 의미 연결망>

(이미지 출처 : Sometrend)

- **"소셜(social)"에 대한 갈망 또는 정책언어의 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소셜, social"이라는 말은 "사람들 간의 관계", 특히 "사교적인", "친밀한"이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검색량이 급증하였는데, 사람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사회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가 끊어진 경험 때문에 더 강화되었음.
  - 예전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과 달리, 최근 "사회적"이라는 말은 긍정적 가치를 내포하며, 정책언어로 선호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사회적 책임" 처럼, "사회적"이라는 말은 영리지향의 시장 활동과 대별되는 비영리적 가치 지향의 공동체와 공공주체의 활동을 지칭하는 정책용어로 많이 사용됨.



2017.3~2023.3월 6년간 "사회적"의 네이버 검색량 (인터넷 및 모바일 포함, 월단위 검색량을 100을 최대치로 상대적 크기 비교)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사회적 社會的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명사 : 1.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것. (예: 사회적인 여건) 관형사 : 1.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예: 사회적 분위기)
social (출처 :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1.[only before noun] connected with activities in which people meet each other for pleasure 예) She has a busy social life. 2. [only before noun] connected with society and the way it is organized 예)The film addresses serious social issues. 3. [only before noun] connected with your position in society 예) Income differences between social classes are widening. 4. [only before noun] (specialist) living naturally in groups, rather than alone 예) Apes are social animals. 5. (also more frequent sociable) (of people) enjoying spending time with other people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8.12.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에 관한 = 인간 세상 모든 것에 관한**
  - 가치 지향성을 빼고, "사회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인간 사회와 관계된" 것,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생활 전반과 관련된" 것을 지칭함.
  - 이때 "사회적 변화"는 소소한 사회 트렌드부터 문명적 변화까지 다양한 규모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 이는 "문화"가 매우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과 상통함.
  -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사회적 활동"은 개인영역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지칭함. 시민운동 또는 예술운동 등 "사회 참여적" 실천에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이 말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는 결국 "사회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임을 시사함.
  - 또한 "사회적" 이라는 말은 "사회적 계급", "사회 취약계층" 등 "사회구조와 관련된" 것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함.
  - 이 경우 사회적 문제는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주로 거시적 이슈 중심으로 인식됨. 반면, 이런 사회적 구조 등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와 관련된" 것은 "societal"로 구분하여 지칭되기도 함.

-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 가치, 자본, 통합, 소셜 아츠 ...**
  - 문화정책 안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주로 공동체, 공공 가치를 지칭하는 말들과 연결되어 사용됨.
  - 특히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문화예술의 "본질적(intrinsic)" 가치에 대비한 "도구적(instrumental)" 또는 "실용적" 가치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economic)" 가치에 대비하여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비경제적 가치를 지칭함.
  -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창작활동을 "소셜 아츠"로 지칭하거나, 예전의 사교댄스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는 "소셜 댄스" 등, "소셜" 또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문화예술계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친밀성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사용됨.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회적(Social)"의 다양한 의미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 (정신건강, 기후위기 등) 사회변화 대응 문화정책 (인구절벽,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구조와 관계된	사회취약계층 (문화소외계층, 문화접근성 등)
사회 참여적, 행동주의	사회참여예술 (Activism, Artivist, 사회적 예술 등)
친밀한, 사교적인	소셜 댄스, 소셜 아트
공동체 및 공동체 가치에 관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통합,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

(2) 사회적 문제

-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이라는 말은 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음.
  - 하지만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책주체, 지향점,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임.

- **혁신해야 할 만큼 오래된 문제 + 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개별적 삶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음.
  - 특히 이렇게 고착된 문제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

- **문화정책 영역 바깥의 문제로 오독되는**
  - 특히 "사회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예술의 역할과 포용적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의 역할이 강조됨.
  -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 문화정책"이라는 말로 "사회적 문제"를 문화정책 밖의 것으로 치부하면서, 문화정책 영역 안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으로 고착된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인식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8">"사회적 문제"의 다양한 층위와 사례들</th></tr>
<tr><td>문제 원인</td><td colspan="8">개인적 상태 / 사회구조적으로 고착 / 국제정세 변화 / 기술변화 / 전지구적 환경변화</td></tr>
<tr><td rowspan="2">문제 규모</td><td>개인
내면
문제</td><td>개인
삶의
문제</td><td>공동체
집단의
문제</td><td>지역적
문제</td><td>도시
문제</td><td>국가적
문제</td><td>국가간
문제</td><td>범지구적
문제</td></tr>
<tr><td colspan="8">개인적 경험 / 단위 시책사업 / 기관경영 / 도시정책 / 국가정책 / 국제협력으로 해결할 문제</td></tr>
<tr><td rowspan="2">문제 영역</td><td>마음치유
육체건강</td><td>복지
소외
차별</td><td>사회통합
다양성</td><td>인구소멸
경제활력
외로움</td><td>경쟁력
도시재생</td><td>사회환경변화
디지털전환</td><td>국제평화
인권보호</td><td>기후위기
자연보호 등</td></tr>
<tr><td colspan="8">문화정책 고유영역의 문제 / 문화 이외 정책영역의 문제 / 사회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문제</td></tr>
<tr><td>시간 범위</td><td colspan="8">오래 누적된 / 당면한 / 새로 부상하는 / 미래에 예측되는 문제</td></tr>
<tr><td rowspan="2">해결 방식
및 지향점</td><td colspan="8">사회구성원의 역할유도 / 공공정책이 해결 주도 / 민간기구에 위탁 / 제휴협력으로 해결</td></tr>
<tr><td colspan="8">당장 문제해결 / 사회의 점진적 변화 유도 / 인간 삶의 질 개선 /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td></tr>
<tr><td rowspan="2">문화 예술
차원의
접근법</td><td colspan="8">창의적 아이디어 제공 / 콘텐츠 제공 / 문화정책이 문제완화에 기여 / 문화정책이 해결을 담당할 문제</td></tr>
<tr><td colspan="8">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 / 활용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여 해결할 문제</td></tr>
</table>

- **사실 공공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모두 사회적 문제!**
  -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삶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특히 공공자원을 투입하는 공공정책의 대상이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우는 없음.
  - 그런데 최근 대중의 관심 유도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말로 주로 기후위기, 인구소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활동을 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
  - 공공정책행위의 개념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공공적 개입을 통해 해결한다는 뜻이므로, 오래되었고 해결되지 않은 정책과제가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음.
  - 따라서, 예술가 지원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접근성 향상부터, 문화를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까지, 공공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이 모두 지금 관심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들임.

- **문화정책이 강조하는 사회적 문제는 당시 정책기조를 표방하는 선언적 표현 뿐**
  - 사회 속에서 창작되는 "예술", 그 자체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 활동을 의미하는 "문화"는 원래 사회적인 것임. 그리고 공공정책이 공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이므로, 문화정책이란 원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공적 활동임.
  - 사회적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도 하며,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들 중에는 문화정책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인 경우도 많음.
  - 그래서 문화정책의 본질적 업무 영역 이외의 어떤 사회문제까지 문화정책이 개입할 것인지는 이를 통해 얻게될 포괄적인 공공적 가치의 총량과 문화정책의 효율성 차원에서 선택할 사항임.
  - 특히 문화예술이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도, 단순히 문제해결에 도움될 예술적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부터, 문화정책 본연의 역할로 인식하고 해결될 때 까지 관여하는 방식까지 다양함.
  - 이 또한 결국 해당 시기의 정책기조를 반영해서 선택할 사항이며, 그 선택이 다시 문화정책의 기조를 표방하게 됨.
  - 따라서, 최근 "사회적 문제 해결 문화정책"이라는, 다소 홍보성 용어로 지목하는 사회 이슈들과 그 문제에 접근하는 문화정책의 태도에서 이 시대의 문화정책의 기조와 지향점이 나타날 것임.

(3) 사회적 가치

-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투자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소환된 "가치" 연구**
  - 미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중심으로 전개되던 예술의 가치 연구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긴축 압박이 현실화된 1980년 이후, 주로 영국을 위시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영향(impact) 연구로 확대되었음 (양혜원 등, 2019).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술지원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입법 로비 기구인 Americans for the Arts에서 매년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를 매우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제시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임.
  -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화폐로 환산되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명이 요구됨. 하지만 축제의 경제적 가치 유발 효과 등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 연구방법론과 실증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많음.
  - 최근 문화정책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붐 또한 이처럼 줄곧 이어져 온 "문화정책의 정당성" 또는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를 입증하는 노력의 연장임.

<문화예술의 가치 논증 연구 사례들>

▷ 『문화예술의 심리·사회적가치 추정 - 행복가치추정 중심으로』(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유사원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양혜원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김세훈,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 2015)
▷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정홍익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Peter Taylor 외, DCMS, 2015)
▷ 『Cultural and creative spillovers in Europe: Report on a preliminary evidence review』(Tom Fleming 등, Arts Council England 등, 2015)
▷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 A Literature Review』(John D. Carnwath, Alan S. Brown, Arts Council England, 2014)
▷ 『Creating Public Value Through State Arts Agencies』(Mark H Moore, Gaylen Williams Moore, Arts Midwest, 2005)

- **경제보다 삶의 질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정책이 활용하고자 했던 문화의 "사회적 가치"**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에서는 사회발전의 목표가 "부에서 삶으로" 재정립된 시대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까지 펼쳐지는 문화정책의 복합적 성격과 내재적, 경제적 가치와 구분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음. 그리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과제로서 <문화와 사회통합>, <문화와 건강>, <문화와 교육>을 제시했음.

<문화정책의 복합적 성격>

<문화정책 목표와 문화의 가치>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효과	**문화적 효과** - 문화자본 증가 - 정체성 강화 - 문화적 가치관 확산	**경제적 효과** - 소득증대 - 고용창출 - 마케팅 효과 - 투자촉진 - 성장잠재력 제고 - 사회적 비용 감소	**사회적 효과** - 건강증진 - 인적자본 제고 (창의성과 소통능력 향상) - 사회자본과 사회응집력 제고 - 범죄예방 - 환경개선
자본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영역	**문화창조** - 종교 - 문화유산 - 순수예술 - 독립영화 등	**문화경제** - 예술시장 - 문화산업 - 스포츠산업 - 관광산업 등	**문화교육** - 문화복지 - 문화환경
목표	창의와 다양 (문화발전)	고용과 성장 (경제성장)	신뢰와 화합 (사회통합)

출처 :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그런데 이와 같이 정책기조 전환 주장 차원에서의 사회적 가치 연구와 실제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양적 측정 연구가 혼재되어 혼란을 가중시킴.
- 특히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식하는 프레임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가 몇 가지 모델로 수렴되기 보다는 지금도 새로운 모델 계속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문화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정립되지 못했음을 시사함.

-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양적 측정 방법론의 한계 이전에, 문화권마다 다른 "사회"의 개념과 불분명한 경계가 근본적인 한계**
  -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양혜원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에서는 "연구 샘플규모의 부족이나 분석의 엄밀성 결여로 양자 사이에 광범위한 상관관계(correlation) 설정,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확대하는 오류, 어떤 긍정적 결과들이 예술로 기인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원인인지도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이 문화예술의 도구적 가치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했음.

-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유사원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에서는 예술 가치 연구의 한계와 사회적 가치 강조의 맹점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지표 구분 매트릭스>에서 예술 활동 및 가치 수용의 주체를 <개인>과 <공동체>로만 제시하고 예술의 활용 측면을 <본질적>, <도구적> 활용으로만 구분하였음.

<예술의 가치 간 포함관계>

(출처: 유사원(2020))

<예술의 사회적 가치 지표 구분 메트릭스>

예술의 활용	본질적	몰입 / 매혹 / 가치 정신적 자극 / 공감 미적 취향 / 미적성장 호기심개발 자기인식 / 자기표현	공통적 경험 / 역사적 가치
	도구적	학습 / 자기표현 공감 / 집중 / 감성적 공명 창의적자극 / 사고 학습 / 도전 / 호기심 개발 지적성장	학업성취도 / 사회적판단 사회적연결 / 사회적 유대감 시민의식 / 사회적 포용 사회적 비용절감
		개인	공동체
		수용의 대상	

(출처 : 유사원 외(2020))

- 가치 및 영향 측정 프레임 개발 연구가 당면하는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할 때 당면하는 방법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과 문화예술의 "가치" 구분의 경계가 연구자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르고 모호하며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힘든 점에서 기인함.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화권마다 문화와 가치, 그리고 사회를 인식하는 개념의 차이, 심지어 "사회"라는 말의 존재 여부에서부터 출발함.
- 특히 문화정책 관련한 공공의 역할이 큰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수용의 주체로서 개인, 공동체 외에 <국가(지자체 포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공동체와 사회,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치 구분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구분되기 힘들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동체 외에 주요한 문화주체로서 국가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도구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여러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된 가치들을 추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배치할 수 있음.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분>[1]

		문화예술 활동 및 가치 수용의 사회적 주체		
		개인	공동체	국가(지자체 포함*)
문화(*) 및 예술의 활용 측면	본질적 가치	정신적 자극 몰입,매혹,쾌감 제공 감정적 공명 미적 취향 형성 자아 인식 의미 해석 세계관 형성	공통적 경험 역사적 가치 사회적 자본	국가적 자부심 국가적 정체성 및 상징
	[2]			
	도구적 가치 (경제적 가치 포함*)	학습 및 교육 활동 지적성장 자기 표현 감정적 교류 공감능력 향상 창의적 사고 도전, 호기심 개발 사회적 판단기준 정립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관계 확장	공통 규범 제공 후세대 교육활동 공동체의 정체성 부여 사회적 유대감 시민의식 제고 사회적 포용성 범죄율 감소 공동체 회복력 강화	국가 브랜드 파워 소프트 파워 국가 간 교류 증진 고용 창출 창의/문화산업 발전 관광산업 기여 지역재생 및 활성화 민주주의 강화 문화예술의 도구적 가치 발현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 (교육,복지,의료,치안 등)

- **"Economy"와 "經世濟民"의 차이를 이해해야 가능한 "사회적 가치" 개념 정립**
  - 사용자들의 온라인 트래픽과 충성도를 광고수익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구글아츠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문화 서비스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영리한(!) 주장에 비해, 공공정책이 문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구현에 집착하는 모습은 모순적이며 시대착오적이기도 함.
  - 이는 정책이 "Economy"를 "경제"로 좁혀서 번역했던 근대 초기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고, 빅테크 기술에 의해 탈폐화(De-Monetized)되는 수익(profit)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현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함.[3]
  - 그리고 흔히 문화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강조할 때는, 개인에게 사사로이 귀속되지 않는 비영리적, 비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개인의 사적인 문화예술 가치 향유 보다 공동체와 사회 단위로 확대되는 것이 더 "공적"이다는 관념을 가지고 접근함. 하지만, 이는 정작 동서양의 공(公)과 사(私) 구별이 다른 점(홍영한, 2005)[4]이 간과된 것임.
  - 동아시아 유학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좌우명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동양에서 사(私)와 영리(營利)는 공(公)과 엄격히 구분되기 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공공(公共)적인 것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음.
  - 근대 일본 학자들에 의해 "경제(經濟)"로 번역된 서양의 "Economy"가 "집안 살림 +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oiko nomos(οἰκονόμος)"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가계 단위 수준의 사(私)적인 접근이었음을 시사함. 영어 "economic"에 담긴 "절약하는, 현명한"의 뜻은 어원에 담겨있던 "자원을 잘 할당하고 배분~관리한다"는 뜻에서 파생된 것임.

1.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유사원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에서 제시한 프레임을 국가와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일부 수정하고(*표시), 관련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필자가 재작성함
2. 경계가 모호함을 표현함
3. " Understanding of "Emotional Economics" in the "DMZ"(De-Monetization Zone) of Culture to go forward the "Cultural 經世濟民"(jīng shì jì mín) beyond the Cultural Economy ("문화의 탈화폐화 지대(DMZ : De-Monetization Zone)" 안에서의 "감정경제학" ;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넘어 " 문화경세제민(Cultural 經世濟民)"으로 나아가기) (김해보, 2023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Cities, 중국 청두시, 2023.10.16.) 참조
4. "동양의 의리와 서양의 정의의 비교" (홍영환, 중등교육연구, 53(2), 2005)

"경제적"이라는 것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		
	Economy	경제(經濟)
어 원	oiko nomos (οἰκονόμος)	經世濟民 (경세제민)
고려한 주체	가계	국가 ~ 개인
관 점	재화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바르고 편안한 삶 보장

- 반면 "경제(經濟)"는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편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인데, 이는 "가계" 단위에 집중했던 "Economy"에 비해 "국가" 단위 까지 고려하여 좀 더 공(公)적인 측면을 가졌음. 그리고 단순한 재화나 돈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와 백성의 생활 전반에서 잘 사는 방안을 고려한 보다 넓은 관점이 엿보임.

- **문화의 사회적 가치 구현 = 문화로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실천**
  - 이처럼 개인과 사회, 사(私)와 공(公)이 서로를 창조하는 상호생성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Economy=경제"를 너머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인식을 전환하면 문화의 경제적 가치도 달리 볼 수 있음.
  - 문화의 가치보다는 문화상품의 가격 중심으로 생각하여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산업적 가치 (Industrial Value)" 보다,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발현될 영향과 효과가 가지는 "활용적 가치(instrumental value)" 까지 포함하여"경제적 가치"로 이해하는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음.
  - 문화의 산업적, 활용적, 심지어 그 본질적 가치까지 통틀어서 인간 사회 유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오히려 "문화의 사회적 가치"임.
  - "가치 중심의 혁신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의 가치와 거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 제안 - 지역문화재단의 공공혁신을 중심으로" (김해보, 문화정책논총 제19집, 2008)에서는, 존 홀든(John Holden)(2006)의 "3-I values for 3-P 모델"을 변형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 산업적 가치(Industrial Value), 활용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구분했음. "산업적 가치"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가치인데, 여기에 장기적이며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활용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로 인식할 수 있음.
  - 이를 좀 더 발전시켜서 "3-I Values of Culture for ABC"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데,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까지 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로 이해하는 모형임.

<사회적 가치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는 문화예술의 가치인식 프레임 제안>

존 홀든(2006)의 3-I Values for 3-P	
Intrinsic Value (본질적 가치)	Public (일반대중)
Instrumental Value (활용적 가치)	Politicians & Policy -makers (정치가, 정책가)
Institutional Value (제도적 가치)	Professionals (전문가)

3-I Values of Culture for ABC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	Intrinsic Value (본질적 가치)		Artists & Academic (예술가, 학자)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	Industrial Value (산업적 가치)	Business (산업계)
		Instrumental Value (활용적 가치)	Citizens (일반시민)

- 즉, 사회적인 것이 곧 경제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은 사회적이어야 하는 것임.[5]
-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활력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문화를 통해 경제적 수입 창출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할 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달성한다면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인지 애써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임.
- Americans for the Arts(미국예술진흥협회)에서 매년 예술의 가치를 입증하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발간하는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에서 제시하는 가치들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기 어려움.
- **결국, 문화로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정책행위 모두가 포괄적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며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의 실천임.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란 문화에서 "문화경제(文化經濟 = Cultural Economy)"를 넘어 "문화적 경세제민(Cultural 經世濟民)"으로 나아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5.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John Holden, DEMOS, 2006)

▷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Americans for the Arts, 2023)**

- 공동체 통합, 경제성장 기여, 의료적 효과 등 문화예술이 유발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두루 살피며, 그것을 구체적 사례와 숫자로 제시함.
- 2023년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사회적 효과 유발(Arts have social impact)"을 10개 이유 중 하나로 소개하며, 예술활동에 의한 "시민 참여도 제고", "사회적 결속력 강화", "아동 복지 향상", "빈곤율 감소"를 확인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결과 등을 언급하였음.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숫자와 사례를 동시에 소개하는 Americans' for the Arts 보고서 사례>

Top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

1. 공동체 통합 (Arts unify communities)
미국인의 72%는 "예술이 연령,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커뮤니티를 통합한다"고 생각하며, 73%는 "예술이 다른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함.

2. 개인적 복리 향상 (Arts improve individual well-being)
미국인의 81%는 "예술이 힘든 세상을 견디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답변. 69%는 "예술이 일상의 경험을 넘어 나를 고양시킨다"고 생각하며, 73%는 "예술이 순수한 경험과 참여의 즐거움을 준다"고 느낌.

3. 경제성장에 기여 (Arts strengthen the economy)
미국의 예술 및 문화 부문(비영리, 상업, 교육)은 49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조 2,2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영역임(2021년). 이는 미국 경제의 4.4%에 해당하고, 운송, 건설, 농업과 같은 주요 산업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예술은 178억 달러의 국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기여함.

4.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주체에 수익 창출 기여 (Arts drive tourism and revenue to local businesses)
비영리 예술 산업에서만 예술 단체와 관객이 연간 1,663억 달러를 사용함. 이는 46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275억 달러의 정부 수입을 창출함. 관람객은 입장료 외에 식사, 주차, 숙박 등의 항목에 1인당 31.47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됨. 예술관람 여행객은 진정한 문화 경험을 찾기 위해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

5. 학업 성취도 향상 (Arts improve academic performance)
예술 참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대학 진학률 등이 모든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높고 중퇴율은 낮음. 교육부에 따르면 유색인종 학생들의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 미국인의 91%는 예술이 균형잡힌 초중고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6. 창의성과 혁신에 기여 (Arts spark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은 기업체의 리더들이 원하는 상위 5가지 응용 기술 중 하나로, 이들의 72%는 채용 시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예술창작활동 비율이 다른 과학자들 보다 17배 더 높음.

7. 사회적 효과 유발 (Arts have social impact)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한 도시에 예술이 집중되어 있으면 시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되며, 아동 복지가 향상되고, 빈곤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했음.

8. 의료적 치료 효과 제고 (Arts improve healthcare)
미국 의료 기관의 거의 절반이 환자, 가족, 직원 대상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들의 78%가 입원기간 단축, 통증관리 개선, 약물복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임.

9. 군인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술 (Arts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ur military)
예술은 군 장병과 퇴역 군인의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 상처를 치유함. 이들은 예술활용 치료법을 그들이 받은 40개의 치료법 중 상위 4위로 인식했음 군 복무 과정에서 예술은 파병 전후 및 퇴역 후 지역사회로 통합과정에서 회복력을 증진함.

10. 정신 건강 강화 (Arts Strengthen Mental Health)
예술은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매일 30분만 적극적으로 예술과 창작 활동을 하면 COVID-19와 관련된 고립과 외로움의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음

2. 동향 _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1)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자임해온 문화정책

-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트랜드**
  - 2015년 9월 25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의 17개 목표별 총 169개 실천과제가 명시되었음. 문화분야는 문화다양성 협약 등 6개 협약을 통해 이를 실천해오고 있음. (유네스코 문화와 지속가능 발전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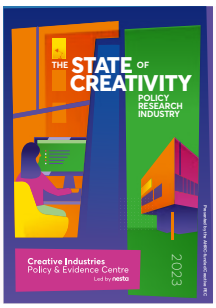
  - 2023년 10월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WCCF (세계도시문화포럼) 2023 서밋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문화분야 목표를 추가하기 위한 "상파울루 선언문" (A Goal for Cultuyre : São Paulo Manifesto)[6]이 채택되었고, 특히 문화예술계의 기후위기 대응 동참을 강조했음.

WCCF 2023 서밋 폐막식에서 8개 언어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문화분야의 목표 상파울루 선언문 (A Goal for Cultuyre : São Paulo Manifesto)" 발표(출처 : 상파울루시청)

- **인간개발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혁신 의제에서도 문화정책의 역할 강조**
  - WCCF에서는 2014년에 『Transformational Cultural Projects Report』(세계도시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발간하여 <회복력 강한 지역사회 구현>, <사회 통합 증진>, <도시 재생 촉진>,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 확립>, <문화 참여 확대>, <혁신 강화> 등 6가지 사회변화 및 문제해결 영역별로 두드러진 세계도시들의 정책 사례들을 소개하였음.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변화 프로젝트(transformational cultural project)'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에 연결되도록 크게 기여해온 프로젝트를 지칭하고, 이때 사회변화(transformational)는 사회 복지, 공정성, 역량개발과 같은 측면이 중요시되는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이라는 포괄적인 틀에서 이해한 것임.
  - 이처럼 문화정책의 사회적 참여(social engagement)는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주체들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혁신 및 인간개발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정책 트렌드임.

(2) 실용적인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오래된 압박

- **갈수록 강화되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 압력**
  - 앞서 살펴본 문화의 가치 입증 연구와 궤를 같이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의 효과와 정당성 입증 필요에 따라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증거기반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창조산업정책 및 증거 연구센터>**
Creative Industries Policy and Evidence Centre : Creative PEC

- NESTA가 운영하며 뉴캐슬 대학교와 왕립예술협회가 영국 예술 및 인문학 연구위원회(AHRC) 지원금으로 공동 운영함
- 4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아래의 4개 분야의 '국가 수준 현황 보고서' 발간 예정임
  R&D, 혁신 및 클러스터(서섹스 대학교) / 창의적 교육, 기술, 인재(워크 어드밴스) / 국제화(뉴캐슬 대학교) / 예술, 문화 및 유산 분야(셰필드 대학교)
- 최근 영국 창조산업계의 실태를 정리한 『The State of Creativity』(2023) 발간하였음.

6. http://www.worldcitiesculturefo rum.com/assets/others/WCCF_SAO_PAULO_MANIFESTO_TRANSLATIONS_DIGITAL.pdf

-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지원 정책에서 소동이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의 공공성 주장 또는 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정홍익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도 그 일환이었음. 이 연구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으로의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 사례를 소개했음.

『문화예술 정책의 실증적 기반 (The evidence base for arts and culture policy)』
Scotland 정부의 5대 전략 정책에 문화가 기여하고 있는지를 2004-2007년 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2008년도 보고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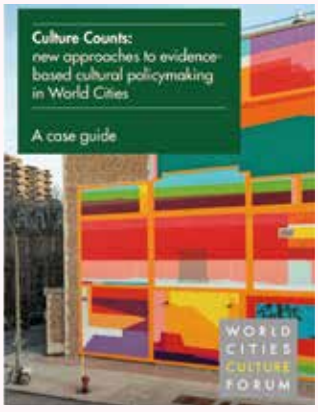
『문화를 위한 증언 (Making the Case for Culture)』
캐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에서 발간된 Arts Advocacy / Impacts of the Arts / Arts and Healths 등 6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2006년도의 보고서로서, 예술의 효과/혜택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

『뮤즈의 선물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미국 Rand 연구소에서 2004년 발간한 보고서로, 예술의 기능/혜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예술적 효과에 초점을 두었던 다른 연구와 달리 예술의 본질적 혜택 (intrinsic benefits)과 수단적 혜택 (instrumental benefits)을 분석해 그 중 본질적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반면, WCCF가 2021년에 내놓은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making in World Cities(문화는 Count한다)』 보고서는 "중요한(count)" 문화 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계량화(count)"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숫자를 "숫자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를 강조함.

▷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making in World Cities』 (문화는 count한다) (Bop Consulting, WCCF, 2021)**

- Bloomberg재단에서 후원한 WCCF의 "Leadership Exchange Programme" 일환으로 암스테르담, 런던, 밀라노 등 WCCF 회원도시 전문가들의 2021년 총 9개월 간의 협력 결과물로서, 도시들이 문화통계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결정과 문화사업을 수행한 사례를 공유함.
- "Data to unearth inequalities(문화적 불평등 상태를 내보이는 데이터)", "Data to enable engagement(문화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를 강조하며 데이터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기존의 문화정책의 이슈 해결에 집중함.
- 이런 정책적 이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축적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것보다 더 세분화되고 상세한 것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인식함.
- 따라서 정책의 변화는 느린 과정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추후 혁신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정책연구의 6가지 원칙(Six principles of policy research)"을 제시함
  - √ 1. 측정을 종착점이 아닌 과정으로 보기
  - √ 2. 변화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필요사항'을 명확히 하기
  - √ 3. 핵심 타겟 식별
  - √ 4. 기존에 인정받는 데이터 소스와 연구 방법 사용하기
  - √ 5. 정책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적 전문가를 함께 모으기
  - √ **6. 숫자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
    : 증거는 단순히 데이터만이 아님.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님. 숫자는 그 자체로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설명과 맥락화가 필요함.
    개인 증언, 사례 연구, 언론 보도, 반(半)구조화된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방형 설문조사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례를 입증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자에게 기대되고 요청되는 실용주의 ~ 성과주의 ~ 증거주의**
  -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득세와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등 여러 요인으로 공공행정에서 특히 정량적 실적을 강조하는 성과주의가 강조되었음.
  - 문화예술의 손에 잡히지 않는 본질적 가치 보다는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가 이런 성과주의 행정 안에서는 선호됨.
  -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기조는 공공정책 연구의 객관성이나 정책 자체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를 강조함. 자원의 집행과 관련된 사실들을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임.
  - 이런 기조들 속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그것의 본연적 의미 보다는 문화정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강조되기도 함.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고,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적 가치보다 문화사업의 비영리성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더 선호되는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최근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트렌드에 편승해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며, 기존의 공공행정에서 강조한 계량적 성과주의와 결합하여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도 다분함.

-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인 것을 강조할 때 경계해야 할 것들 : 숫자 맹신 + 정책 만능 + 성과 경쟁**
  - 숫자로 표현된 실증주의 연구결과가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정책주체의 의도와 가치가 반영되는,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간과됨.
  - 송원근(2008)[7]은 정책 분석 및 평가에서 정량적, 과학적 검증을 통해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실증주의적 접근을 "절반의 실패?"로서 비판적으로 논평함. 이 논문은 실증주의적 접근에서 "정책의 목표"나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 또는 "없는 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결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가치중립성을 내세우는 점도 비판적으로 지적함.
  - 객관성을 위해 문화의 가치를 소거한 계량적 지표는 애당초 과학적, 객관적으로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거나 문화정책적으로 무의미하기도 함 (김해보.장원호, 2020)[8]. 예를 들어 미술관 카페나 뮤지엄 숍 방문자까지 포함한 총 방문객 수, 전시장 출입자 수, 실제 전시 관람자 숫자는 해당 기관이 어떤 숫자에 더 기관 경영의 의미를 두는지에 따라 측정의 필요성, 계측 대상과 정확한 계측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짐.
  - 공공정책이 실제 현실세계를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제한성과 작동 매커니즘도 간과됨. 실험실과 같은 폐쇄체계(close system)에서는 특정한 인과적 자극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재현되는 현상들의 상관성들이 인과성으로 해석됨. 하지만, 개방체계(open system)인 현실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예술 때문에 기인했다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함(양혜원 등, 2019).
  - 하지만 공적투자의 정당성 찾기가 숙제인 행정가들은 종종 "가치(value)"와 "영향(impact)"과 "효과 또는 성과(effect 또는 outcome)"을 혼용하며, "가치" 조차 단기적 성과관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함.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과 "증거기반 정책" 담론이 문화정책에서의 단기 성과주의 경쟁을 가속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함.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모두 파악하는 인식 체계가 필요한 시점**
  - 실증주의에 입각한 "증거주의"는 보인는 것, 숫자로 표현되는 것만 보편적 증거로 인정하려는 세태를 강화시킴. 이에 따라 제한적인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엄연히 세상에 존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의 "존재적 가치(existence value)"까지 행정의 언어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
  - 반면, 그런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단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계측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계측자의 수용 능력이 문화예술의 가치 유무로 해석되는 인식적 오류임 (김해보, 2023)[9].
  - 김세훈(2015) 교수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에서 경제적 가치 측정이 "역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다고 나타날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양면의 칼과 같은 성격"임을 지적했음.

---

7. "정책분석 및 평가와 실증주의 : 절반의 실패?"(송원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2008)
8.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해보, 장원호, 문화정책논총, 제34집 제2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9.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김해보,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호, 2023)

- 독일의 문화경제학자 Arjo Klamer가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측정방법의 채택에 유의를 기해야한다"며, <경제학의 하이젠버그 원리(Heisenberg Principle of economics)>를 제안(양혜원 외, 2019 재인용) 한 것처럼, 문화예술의 가치는 그에 적합한 계측방법론의 선택과 그에 앞선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함.

- **감동과 의미도 증거로 활용하는, "가치인식에 근거한"(Appreciation-based) 정책 태도 필요**
  -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정책 로비 기관인 Americans for the Arts에서 매년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여 예술지원 정책을 옹호하는 자료로 활용됨.
  - 이 연구를 총괄하는 Americans for the Arts의 부 연구소장 랜디 코헨(Randy Cohen)은 2023년 보고서를 발간하며, 예술의 가치를 주장할 때 숫자와 이야기를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음.

> ***"I have a Golden Rule at Americans for the Arts: "No numbers without a story, and no stories without a number." The arts are all about stories—often small, always meaningful"***
>
> ("이야기 없는 숫자는 안 되고, 숫자 없는 이야기도 안 된다". 예술은 이야기이다. 종종 사소하더라도, 항상 의미가 담긴 것이다.)
>
> 랜디 코헨(Randy Cohen, Americans for the Arts의 부 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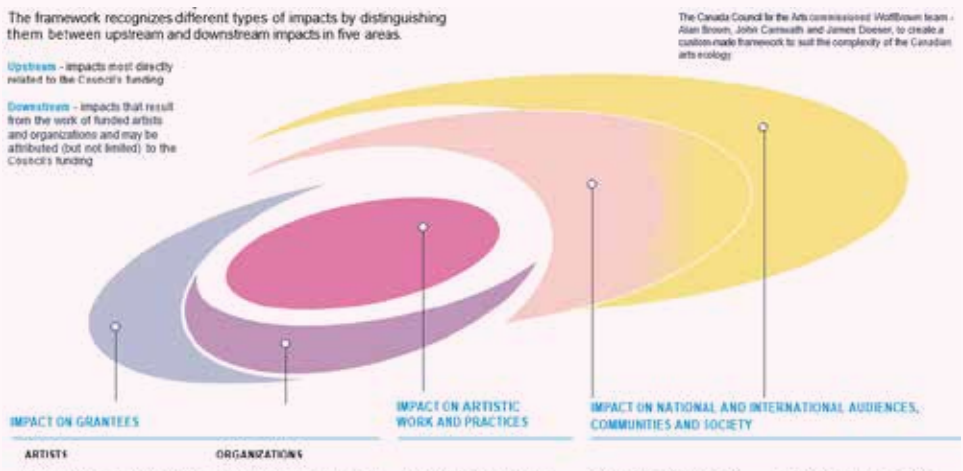
  -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기조는 자칫 숫자로 번역될 수 없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누락시키거나, 또는 너무 과장하는, 정량화의 오류에 빠져서 설득력이 더 떨어질 수 있음.
  - 랜디 코헨의 말처럼 숫자(정량화)와 스토리(정성적 분석)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예술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 확보에 더 도움이 됨.
  - 공공행정이 실적이 될 숫자 자체만 합계 내는 접근(How-Many 접근법)을 지양하고 그 숫자의 이면과 발생 맥락을 이해하는 접근(How-the-Many 접근법)을 지향하고,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론장 회복에 노력해야 함.
  -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주의로 귀결되기 쉬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담론과 문화공론장 안에서의 "가치인식에 근거한 정책"(Appreciation-based Policy) 사이에서 균형 찾기 노력이 필요함.

▷ **『Qualitative Impact Framework』 (Alan Brown 등, 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19)**

- 영향(Impact) 평가는 계측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정책의 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제한적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강조함.
- 영향(Impact)과 성과(outcome)의 구분 : <영향(Impact) 중심의 예술활동(Impact-driven artistic work)>과 <성과 (outcome) 중심 예술활동 (Outcome-driven artistic work)>이 있고 실제 예술단체들의 활동은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향평가 모델"(Impact Framework)은 기본적으로 "영향(Impact) 중심의 예술활동"을 염두에 두는 것임. 이는 한국에서의 정책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구현 프로젝트와 그 성과측정 모델과 배치되는 부분임.
- 예술 프로그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유형 : 동시적 영향(Concurrent impact), 경험된 영향(Experienced impact), 확장된 영향(Extended impact)으로 구분. 기존의 많은 연구가 "경험된 영향" 측정에 집중하지만, 본 연구는 개인 예술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큰 서사(narrative)를 구성하며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장된 영향" 측정을 위한 평가틀 개발에 집중했음.
- 예술적 경험의 사회적 맥락과 경험 주체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함.
- 예술의 영향(impact)이 가지는 본질 때문에 겪는 측정의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 √ 영향은 흩어짐.(Impacts are diffuse)
  - √ 영향은 무작위적으로 축적됨.(Impact accumulates through a more or less random series of experiences)
  - √ 영향은 원인을 지목하기 힘듦.(Impacts are hard to attribute)
  - √ 영향은 영속적이지 않음.(Impacts are impermanent)

√ 누적되는 영향 측정의 비용과 방법론적 장벽이 존재함.
(enormous cost and methodological barriers to measuring cumulative impacts)
√ 영향은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Impacts are not always pleasant)
√ 영향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임.(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 방법론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분석자의 역량에 따라 조사결과의 가치가 달라짐.
(value of the analysis often hinges on the ability to create coding schemes that reveal important information)

Overview of the Impact Areas



(3) 코로나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 **포스트 코로나 회복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 유네스코가 발간한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코로나-19 시기의 문화 _ 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 (유네스코, 아부다비 문화부, 2022)에서는 코로나-19의 문화 분야에 대한 타격으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집계하면서, 그 회복을 위한 문화정책 부문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5가지 주요 동향을 소개했음. 그 중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트렌드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음.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코로나-19 시기의 문화 _ 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 (유네스코, 2022)
<코로나-19 후 문화정책의 5가지 주요 동향>
①문화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강조
②문화예술 인력의 생계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③협업과 부문별 연대 증대
④빠른 디지털 전환
⑤가치사슬(value chain)을 가로지르는 전략 및 실천

- 특히 코로나로 악화된 건강 및 정서 치유 관련 문화예술의 역할 기대가 큼
  - 건강에 대한 문화예술의 긍정적 효과 증명연구는 예전부터 의료계와 협력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
  - 개인 차원에서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건강 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동체 소통 단절이 불러온 사회적 상처회복에서도 문화예술의 긍정적 가치가 조명됨.

<문화예술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정서치유 및 건강 증진 연구 사례들>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정보람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5.20.)

『연결된 삶들 :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창조적인 솔루션들
(Connected Lives: Creative solutions to the mental health crisis)』(호주예술위원회, 2023.2.22.)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문화"를 주제로 펼쳐진 컬쳐포헬스
(CultureForHealth) 프로젝트 (2023.5.22, Culture Action Europe)

영국예술위원회, 국립 창의건강센터(National Centre for Creative Health : NCCH)와 협력하여 공공보건청(NHS)과 획기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발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023.4.5)
- NCCH가 영국예술위원회 예산으로 새로운 창의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함
- 영국 전역의 공공보건청 관할 지역에 "창의적 건강 전문가 (Creative Health Associate) 배치
- 이들은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보건의료시스템에 창의적 접근법과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함.
  총 60만 파운드, 예술위원회 최대 보조금이 투입된 지원사업

- **사회적 위기는 감동과 실용성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어필할 기회가 되기도 함**
  - 과장된 승수효과(乘數效果, fiscal multiplier)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경제적 가치 연구결과 보다, 질병 치유 사례는 임상적, 경험적 데이터로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음.
  - 이런 흐름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어필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변화에 편승해 결실을 맺는 것이기도 함.

"노래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더욱 좋다
(Singing is good for you. Singing with others may be even better)" (Alexandra Moe, WP(워싱턴 포스트), 2023.6.25.)

- '함께 노래해요(sing with us)'는 비영리단체인 테노버스 암 케어(Tenovus Cancer Care) 주도의 암환자 대상 연구프로젝트로서,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이 정신 건강, 웰빙, 삶의 질,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함.
- 192명의 합창 단원들의 연습 후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연구한 결과,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심한 질병에 대한 신체의 대항 능력 향상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것이 밝혀짐.
-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래와 불안감 감소, 치매 환자의 기억력 자극, 폐활량 증가, 산후 우울증 완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NEA 후원 연구에 따르면 노래는 노인들의 낙상, 병원 방문 및 처방약 복용 감소, 사회적 관계 개선,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기여함.

Americans for the Arts의 부 연구소장 랜디 코헨(Randy Cohen)의 "예술로 영감을 얻은 나의 병원 생활 이야기"(Randy Cohen), My Own Recovery, Inspired By Art, Americans for the Arts 홈페이지, 2023)

2023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in 2023"(예술을 지원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발표하면서 본인의 심장수술 회복과정에서 예술이 기여한 경험을 소개하는 "예술로 영감을 얻은 나의 병원 생활 이야기"(My Own Recovery, Inspired By Art)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였음.

해외 사례 조사

WCCF 2023 서밋 Challenge Sessions "Art, Health and Wellbing 중
- 2023.10.26., 상파울루 문화센터 (Centro Cultural São Paulo), 김해보 인터뷰

Kristin Sakoda (LA 카운티 문화예술국장(Director,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
- *2022년, 2023년에 개최된 "Arts & Health Week" 행사에서 예술과 건강 관련 서밋 개최 후 두 영역 간 교류가 증진되었다.*
- *예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관련된 증거는 많다. 병원 안에서의 사례(자연이나 예술을 많이 접할수록 회복이 빠름. 시각예술 주로 활용), 청소년의 트라우마 치료 사례(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됨), 커뮤니티 기반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시민들 통합 사례 등이 있다.*
- *타 정책영역(이민 관련, 노숙인 관련 등)에서의 문제 해결에 예술인 파견하기 사례도 있다.*
- *프로젝트의 규모와 지속가능성이 문제이다.*

Dancing Through Parkinson's – Dance for Everybody, led by Rachel Whiting (사진 출처 : "Arts & Health Week" 홈페이지)

Gilles Coton (브뤼셀시 문화정책위원(Cultural Advisor))
- *브뤼셀의 문화정책은 특히 2019년 새 시장 취임 후 정신건강에 관심이 컸다.*
- *CHU Brugmann 병원 정신과에서는 환자에게 브뤼셀의 5개 공공 박물관 방문을 처방하는 "박물관 처방전(museum prescriptions initiative)"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의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프로그램 구성을 의사들도 참여해서 결정하며 브뤼셀 시청에서 박물관 방문 비용을 부담했다.*[10]

(사진 출처 : 가디언지 관련 기사)

10. Arts on prescriptions Brussels (Culture for Health 기사), Museums on prescription: Brussels tests cultural visits to treat anxiety (Jennifer Rankin, 가디언지, 2022.9.17.) 참고

(4) 사회적 위기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 **사회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 문화접근성, 문화다양성, 예술 생존…**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문화정책 영역 밖의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 영역 안의 오래된 사회구조적 문제,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부각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정책은 없지만, 문화정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시혜적 서비스 관점을 견지하며,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사례는 적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오래된 문화정책의 사회구조적 문제**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6대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⑤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를 강조하며, 약자 친화(프렌들리) 정책의 짜임새 있는 수립과 함께 속도감 있는 실행"과 "전 국민이 문화를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음.
  - 서울시는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특별시"를 정책 슬로건으로 강조하며 서울시 문화본부의 2023년 "모두가 누리는 문화매력도시 서울 비전"의 10대 핵심과제 중 "7.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을 통한 세대 통합"을 추진하였음. 그 세부 과제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신규사업, 28천명 대상 지급)>, <공연봄날 확대(41천명 ⇨ 65천명)>,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융성플랜>, <모든 시민의 공정한 문화누림>, <정보접근성 개선 및 맞춤형 콘텐츠 홍보>를 추진한 바 있음.
  - 2022년에 유네스코가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창조성을 위한 정책 - 새로 구성하기)"를 발간하며 "문화는 글로벌 공공재"(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라고 선언한 것처럼, 문화기본권 보장과 코로나 회복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차원에서의 문화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문화는 글로벌 공공재"(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라고 선언한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유네스코, 202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로서 <문화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화권 중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최소 문화서비스 기준선 도입을 제안하였음.

-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민들이 공공 문화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문화정책의 역진성"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극복하는 노력 필요**
  - 개념에 대한 면밀한 고민없이 정책 홍보용으로 "약자", "소외층"이라는 말이 남발됨.
  - 해당 사회계층이 겪는 구조적 차별과 중첩되는 문화소외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다다익선식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이 시혜적으로 시행됨.
  - 문화소외에 대한 연구결과,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성 때문에 결국 사회적 소외로 귀결되는 현상은 그 사회적 원인과 문화소외의 결과가 순환하면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줌.

▷ **"문화소외지역의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영국 청소년 센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배지윤 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3권5호, 2018)**

· 사회적 소외현상은, 정보와 지식의 부족 → 노동시장에서 배제 → 개인과 가구의 빈곤 → 삶의 질 저하 → 사회문화적 격리 → 기본권 침해 → 정보와 지식의 부족 과정이 악순환하며 발생함

<출처 : 배지윤 등(2018))>

- **특히 코로나로 인해 그 취약성이 더욱 부각된 문화소외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화정책의 본질적이고 오래 묵은 "사회적 문제해결" 필요**
  - 코로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한 상처를 남기며 남겨 문화소비의 양극화를 강화했음.
  - 코로나 전후 문화활동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고착되는 악순환 양상이 확인됨.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코로나의 영향 통계**

· 국민문화활동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하락) '19년 82%→'21년 34%, (국민 여행 횟수) '19년 7.6회→'21년 5.4회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증가) 소득별: '19년 1.78배→'21년 3.32배 / 지역별: '19년 1.18배→'21년 1.81배

▷ **『뉴노멀시대 서울시민 여가행태 변화와 정책방향』(백선혜 등, 서울연구원, 2022)**

· 코로나 19 이후 개인적, 소극적 여가활동이 늘었고, 특히 고령층 및 저소득가구는 온라인 및 적극적 여가로 전환하지 못해 여가격차가 더 심화됨.

▷ **『세계도시문화리포트(WCCR) 2022』(WCCF, 2022)**

· 특히 시민들의 <문화 참여> 수준은, 주요 축제 참가인원 94% 감소, 입장객 수 상위 5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방문자 숫자 48% 감소 등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음.

WCCR 통계로 확인되는 COVID-19의 영향 (2019년~2021년 사이의 지표 변화)		
<문화 참여>	<문화 생산>	<문화 공간>
94% 감소 : 주요 축제 참가인원 72% 감소 : 국제 관광객 규모 64% 감소 : 영화관 입장객 수 61% 감소 : 공연장 입장객 수 50% 감소 : 영화제 입장객 수 48% 감소 : 입장객 수 상위 5개 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자 수	51% 감소 : 연간 음악 공연 편수 50% 감소 : 모든 극장에서의 공연 편수 41% 감소 : 영화관 상영 영화편수 (국가 단위)	8% 감소 : 공연장 숫자 3.5% 감소 : 음악 공연장 숫자 3% 증가 : 영화관 숫자
2019년 데이터가 없는 경우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팬데믹 이전 연도를 사용했음. 2021년 데이터가 없는 경우 2020년 자료 사용. 각 지표마다 다르지만 샘플 크기는 7개 이상임. 온라인 관련 활동은 미포함 (출처 : WCCR 2022(WCCF, 2022))		

▷ **『Widening The Lens – Social inequality and arts participation』(호주예술위원회, 2023)**

· 호주예술위원회가 코로나 이후 확대되는 문화참여의 불평등을 소득, 교육 등과 관련지어 연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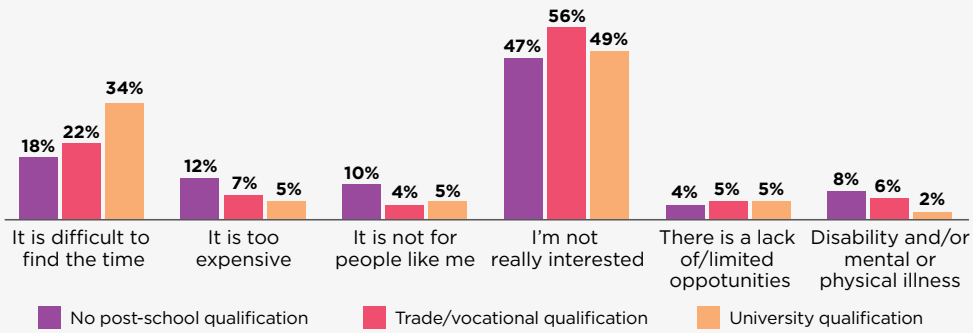
· "관심 부족"이 가장 일반적인 예술활동 불참의 이유인데, 비용과 시간이 핵심 장애요소이며, 교육수준과 예술참여할동 수준은 비례했음.

· 좀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고학력, 고숙련 기술 필요)일수록 문화예술 참여비율이 높았고, 모든 종류의 예술활동에서 참여비율과 소득은 비례 관계를 보였음.

· 스스로를 저소득층 또는 노동자계층(working class)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남.

· 도심 거주자들일수록 문화예술 참여 수준이 높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예술활동 참여율이 높음.

Figure 7: Main barriers to participation by education level and arts activity: Creating (%)



출처 : 『Widening The Lens – Social inequality and arts participation』(호주예술위원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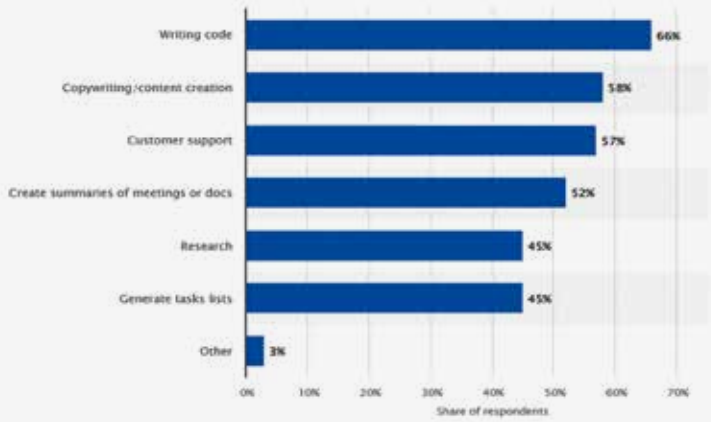
- **코로나, 디지털 전환, AI문명이 만든 사회구조적 변화로 더욱 위협받는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
  - 예술가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술활동이 제약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의해 그 생존 기반을 위협받고 있음.
  - 예술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구조적 전환의 타격을 크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중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문화향유 활동 패턴도 기술과 자본 투자 여력이 적은 예술가들에게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은 일견 시민들의 문화경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에 따른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 가치사슬 구조의 전면적 재편 등이 예술가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구조적 변화임.
  - 문화정책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인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저작권 개념 정립, 인공지능이 사용한 문화예술 데이터에 대한 보상,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거대권력 제어,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하는 예술가 보호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해결책이 요구됨.

▷ **AI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저해하는 6가지 방식 (6 ways AI could disrupt the entertainment industry)**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3.8.2.)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헐리우드의 창작자와 배우들이 파업 중인 가운데,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6.15. 제네바에서 출범시킨 "AI 거버넌스 연합(AI Governance Alliance)"에서 기술발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저해하는 위협요인 6가지를 분석, 전망함.

√ Digital avatars : 가상 아바타
√ Synthetic voice : 음성 합성
√ AI-generated scripts : 대본 작성
√ AI-generated visuals : 이미지 생성
√ Task automation and augmentation : 사무자동화 및 강화
√ Translation : 번역

· 인공지능 기술이 해당 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될 이익,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생산과 분배 방식, 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측함.



Most common tasks that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complete using ChatGPT as of February 2023

(출처 : Statista 2024, World Economic Forum(2023.8.2.)
(원저자 Bergur Thormundsson, 2023.4.20)

(5)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조응할 문화서비스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 **기존 문화서비스를 사회 전반에 걸친 기술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해결**
  - 코로나로 인한 문화생활의 변화, 사회전반에 걸친 디지털전환(DX), 고령화 및 1인가구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문화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방식의 변화 요구에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해 제약된 문화접근성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문화소비,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예술적 체험은 문화생활의 개념과 시민들의 욕구 자체를 바꾸어 놓았음.
  - 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문화서비스의 혁신을 위해서는 영화관이 아닌 OTT를 통한 영화관람 등 완전히 바뀐 문화생활을 제대로 파악할 문화향유 실태조사 통계체계의 재정립부터 필요함.

▷ **코로나 기간의 문화예술 관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COVID-19 Audience Outlook Monitor 2022)』 (호주예술위원회, 2023)**

· 호주예술위원회가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화소비 격차 현상을 파악하고 보다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임.

·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디지털 전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문화예술단체들에게는 힘든 일이어서, 특히 직접 접촉 방식을 선호하는 장르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디지털 전환으로 일부 개선된 접근성이 다시 퇴보할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됨.

- **문화서비스 혁신을 위한 "문화정책의 디지털 전환(DX)"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
  - 디지털플랫폼과 AI문명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문화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그 효과는 양면적이며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
  - 앞으로 온라인, 디지털 문화활동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화격차 발생요인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전환 추세에 맞춰 문화정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데, 단순히 문화정보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도시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문화생활 전반에 이르는 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시민들의 실시간 행동정보(IOB), 문화정보와 콘텐츠의 연계와 통합이 관건인데, 이는 문화담당 부서의 준비를 토대로 타 정책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임.

▷ **『디지털콘텐츠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반옥숙 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 디지털 콘텐츠 격차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특성 즉, 연령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기기를 통해 표현되는 콘텐츠를 접근·이용·생산·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 또는 불평등 현상이라고 정의하였음.

· 이 격차를 줄이는 정책수립에 앞서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기회 격차(Access Opportunity Divide), 이용 격차(Usage Divide), 생산 격차 (Production Divide), 소통 격차 (Communication Divide)> 등 4개 지표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 격차지표 체계를 도출하였음.

▷ **『뉴노멀시대 미래도시 전망과 서울의 도시공간 발전방향』(김인희 외, 서울연구원, 2022)**

· 이제는 도시 곳곳에 확산된 문화시설들이 디지털전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며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로 기존의 대면형 여가문화 활동이 비대면 개인형 문화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문화공간들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강구됨.

갈수록 증가하는 문화시설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출처 : 김인희 외 (2022))

- **노령화, 1인가구, 다문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문화서비스 체계 개편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
  - 시민들의 인구적 특성 변화에 대응한 문화서비스 구조 및 콘텐츠 개선이 필요함.
  -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대상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됨.
  - 다문화 사회에서 일방적인 사회통합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문화적 존엄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 고령층, 1인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을 단일 코호트로 보지 말고, 경제적 약자성, 문화적 약자성 등 다양한 하위 요소를 조합하여 문화활동 욕구와 장애요인을 세분화한 사회구조적 분석도 필요함.

▷ **『서울시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김성아 외, 서울연구원, 2022.7.26.)**

<서울시 1인가구의 사회적.정신적 건강문제의 유형과 맞춤형 처방>

유형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군	고립우울군
문제 유형	사회적 건강문제	사회적 건강문제	사회적 건강문제 & 정신적 건강문제	사회적 건강문제 & 정신적 건강문제
1인가구 특성 및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처방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마음검진 및 전문상담	마음검진 및 전문상담
	중장년, 노년 - 건강관리 지원 여성 -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실업자, 저소득층) - 일자리 연계 등 경제적 지원 주거 취약 & 공유주택 거주위험자 - 공유주택 지원 연계 여가활동 수요자 - 공공시설 여가문화프로그램 고독사 위험군 - 스마트기술 활용 고독사 방지			

영국의 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
(출처 : http://letstalkloneliness.co.kr, 김성아 외(2022) 재인용)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1인가구, 다문화)와 문화예술의 역할 관련 연구>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황선재, 국회 입법조사처, 2022.11.18.)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4월, 관계부처(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통계청, 고용부, 행안부, 문체부) 합동 보고자료)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3.1.9.)
▷ "영국 DCMS의 정신건강과 외로움에 관한 보고서 발간" (변영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CKIS 정책새소식 35호, 2022.9.28.)

(6) 문화정책의 미래 영역확보 전략으로서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 **글로벌 서밋의 주제들에서 확인되는 문화정책의 미래 이슈들**
  - WCCF 2023 상파울루 서밋,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문화 서밋(UCLG Global Cultural Summit Dublin 2023), IFACCA 2023년 스톡홀름 총회(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의 세션 주제들에서 파악되는 문화정책 주요 키워드들을 종합하면, 고전적인 문화예술 정책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음.
  - 이 모든 키워드들을 종합하면 결국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2023년 글로벌 문화정책 포럼들의 주요 공통 키워드들 (WCCF, UCLG, IFCCA)>

공통 키워드	관련 이슈들
인공지능 (AI)	생형형 기술, 진본성, 저작권, 새로운 문화자본주의, 접근성, 인간의 역할, 제도화, 미래
기후 (Climate)	기후위기, 지속가능목표, 불평등, 미래세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건강 (Health)	웰빙,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문화기본권, 효과와 영향
증거 (Evidence)	계량화, 통계, 빅데이터, 경제적가치, 효과와 영향, 증거기반정책, 합리적.공정한 자원배분
문화정치 (Politics)	다양성, 포용, 리더십, 헤게모니, 젠더, 인종, 소수자, 거버넌스, 협력, 불평등, 원주민문화
도시 (City)	로컬, 문화경제, 야간문화, 관광, 창조지구, 문화유산, 문화공간, 도시계획, 메가이벤트
예술 (Art)	예술가, 창조산업, 표현의 자유, 융합, 저작권

(출처 :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3-12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

- **문화정책의 미래 영역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할**
  - 문화정책 주체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미래 문화정책의 영역확보 전략 차원에서도 사회참여형 문화정책을 강조할 수 밖에 없음.
  - 주로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정책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와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갈수록 공적투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엄격해지고 정책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문화정책은 공적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영역에 포섭될 것임.
  - 한광연이 2022년에 시행한『지역문화재단의 현황 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김해보·조정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22)도 사회변화 안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속 및 확대를 위해 대응해야 할 미래 이슈를 직원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악한 바 있음. 이때 지역문화재단들은 디지털전환,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예술인 복지, 다문화, ESG 등 기존 업무영역과 관련한 이슈 외에도,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위의 연구결과로 <문화정책의 공공성 제고>, <시민의 삶과 좀 더 가까운 문화정책으로 전환>, <예술가의 활동영역 확대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 해결형 문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2022) 중 "지역문화재단 당면 미래 주요이슈" 응답 워드클라우드

- **타 정책영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서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화예술의 역할 확장하기**
  - 타 정책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문화예술이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며, 제휴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인구소멸에 대응한 지역의 활력 제고 방안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바, 이는 시민들의 삶 전반에 관여하는 문화정책의 역할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정보람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3.)**

· 국내외 추세에 맞춰 사회문제 완화 혹은 해결에 관계가 깊은 문화예술 정책 영역 파악과 정책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우리사회가 당면한 "13대 사회문제" 중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된 문제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세대갈등, 지역갈등, 문화적 갈등, 정신건강 문제 등이었음.

<13개 사회문제 간 연결성>

주황색은 문화예술로 사회문제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

3. 대응 _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과 선택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변화에 대한 압박

- **2024.2월 현재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은 총 147개로, 광역+기초 전체 지자체 중 60.5%가 운영 중**
  - 기초문화재단 : 총 226개 지자체 중 130개 문화재단 운영 중 (57.5%)[11]
  - 광역문화재단 : 총 17개 자자체 중 17개 문화재단 운영 중 (100%)
  - 2022.12월 141개 대비 6건 증가 (1개 재단 해산, 7개 재단 신설)

- **기관 명칭에 나타나는 지역문화재단들의 핵심 역할 범위도 다양**
  - 기관 명칭은 해당 기관의 핵심 역할범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함
  - 최근 지역문화재단 명칭에서 문화, 예술 이외 관광, 축제, 체육, 산업, 도시재생 등이 기관 명칭에 들어간 건이 증가하고 있음.

<총 147개 지역문화재단 명칭에 포함된 단어 빈도>

- **특히 관광재단으로 전환 또는 애초 설립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
  - 2024년 2월 기준 총 38개 기관(25.8%) 명칭에 "관광"이 포함됨.
  - 이는 2022년 연구 시 총 19건(141개 대비 13.4%) 대비 19건이 증가한 것임. 건수로는 100% 증가, 전체 대비 비중은 12.4% 증가하였음.
  - 특히 최근 광역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고(울산, 세종시, 충남 등), 기초문화재단들은 애초 설립 당시부터 "관광"이나 "축제"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문화재단의 역할 확대와 변화 필요한 시점**
  - 지방시대위원회의『지역문화 매력.활력 증진방안 연구』(2024.1~6월)와 연계하여, 한광연 공동연구로 회원기관들의 역할 변화 및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음.

11. 이 숫자는 한광연 2022년 발간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에 공시된 내용, 이에 누락된 신생 문화재단까지 포함한 숫자임. 문화부가 발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전지연 회원으로 등록된 문화재단 중심으로 파악하여 실제 숫자와 많은 차이를 보임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표시는 행안부 클린아이에서 추가 확인한 건)		비고
기관명(가나다순)	설립년도			(설립중, 명칭변경 등)
강원문화재단	1999	15	강릉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동해문화관광재단, 홍천문화재단, 속초문화관광재단, 태백시문화재단, 영월문화관광재단, 양양문화재단, 고성문화재단, 양구문화재단, 철원문화재단, 횡성문화관광재단	- 추진중 : 삼척시 - 해산 : 평창문화도시재단(2023) - 문화관광으로 변경 : 영월(2023)
경기문화재단	1997	22	부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용인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평택시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광주시문화재단, 이천문화재단, 양평문화재단, 포천문화관광재단	- 추진중 : 남양주시, 양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0	10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김해문화재단, 사천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남해군관광문화재단, 거창문화재단,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밀양문화관광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 산청축제관광재단(2023.1.31)*	- 추진중 : 양산시, 합천군 - 문화관광으로 변경 : 밀양(2022.6.30) - 통영국제음악재단 미포함 - 경남문화재단이 진흥원으로 통합 (2013)
경북문화재단	2020	11	경주문화재단,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봉화축제관광재단, 포항문화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영양축제관광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예천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관광재단, 칠곡문화관광재단(2023)	- 해산 : 문경문화관광재단 (2022년 문화관광개발공사로 합병) - 군위군 대구로 전출 : 2023.7월
광주문화재단	2010	1	동구문화관광재단(202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09	7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달성문화재단, 대구동구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 행복북구문화재단 군위문화관광재단	- 대구문화재단이 진흥원으로 통합(2022) - 군위군 대구로 편입 : 2023.7월
대전문화재단	2009	1	대덕문화관광재단	
부산문화재단	2009	2	금정문화재단, 부산진문화재단	- 추진중 : 연재구
서울문화재단	2004	22	중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동대문문화재단, 동작문화재단, 양천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강동문화재단, 중랑문화재단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16	0	-	- 문화관광으로 변경 : 세종시(2023)
울산문화관광재단	2017	2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	- 문화관광으로 변경 : 울산(2023)
인천문화재단	2004	5	부평구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인천중구문화재단, 남동문화재단(2022)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2016	6	고창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부안군문화재단 군산문화재단(2023)*	
전남문화재단	2009	11	목포문화재단, 영암문화관광재단, 담양군문화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순천문화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함평군축제관광재단* 재단법인 예술섬(신안)(2023.4 창립총회)*	- 문화관광으로 변경 : 영암(2022) - 전남문화관광재단→전남문화재단 : 2020.7
제주문화예술재단	2000	0		
충북문화재단	2011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영동축제관광재단, 제천문화재단 괴산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2013	10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공주문화관광재단, 서산문화재단, 논산문화관광재단, 홍주문화관광재단 계룡시문화관광재단*, 보령시축제관광재단*, 금산축제관광재단*	- 문화관광으로 변경 : 충남(2023), 계룡(2023) - 백제고도문화재단 → 백제역사문화연구원 (2022.6.17.)
총계	17	130	**총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7.5% 17개 광역지자체 중 100% 광역+기초 전체 지자체 중 60.5%**	
	147			

(2) 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과 선택

-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정책으로 전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극 편승하기 어려운 고민 지점들**
  - 3차례 공동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한광연 회원기관들이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사업을 수행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애로점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한광연 회원 기관들은 한정된 예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고유사업에 대한 요구, 제한된 정책결정권 등 경영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음.
  - 사회적 가치, 사회적 역할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그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사회적 문제해결이 창작지원에 비해 실용적이며 성과지향성이 강해서 이에 참여할 예술가들의 자율성 침해도 우려됨.

- **타 기관들의 대응 사례와 전문가 자문내용을 참조하여 각자 기관에 적합한 전략 선택 필요**
  - 무시할 수 없는 문화정책기조 변화에 편승하고, 기관의 미래사업 영역 확보를 위해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전략 선택이 필요함.
  - 공동연구진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		선택할 전략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 개념의 광의성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폭 넓은 역량을 모두 다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존 고유사업 영역에 집중하여 생산된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접근방식이 경영적으로 더 적절한 전략임	❶ 문화예술 본질적 가치의 Spill-Over 추구
기존 고유사업과 신규 사회적 역할 강화 중 선택 딜레마	- 새로운 사회적 이슈대응 보다는 기조의 고유사업영역에 집중하라는 요구가 큼 - 사회적 역할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신 기술 습득과 서비스 개선을 기존 사업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 계기로 활용 가능	❷ 사회적 문제해결을 고유사업의 혁신 계기로 활용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기획 자율성과 역량 한계	- 중앙-지역, 지자체-재단 사이의 정책적 종속성으로 인해 창의적 신규 사업의 주체적 추진이 어려움 - 정책성과 관리보다 사회변화와 문화예술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기획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정책기능" 강화 필요 - 사회문제 해결 문화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우선 순위를 논의할 공론장 운영 필요	❸ 창의적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해결 문화서비스의 다양성과 규모 요구	- 민간영역과 달리 공공 문화서비스에 기대되는 "다양성"과 "규모"를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딜레마가 존재함 -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사업은 기업의 ESG경영, 메세나 활동 연계 가능성 높은 분야이므로, 민-관 협력 및 제휴를 통해 창의적 기획의 결과를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함	❹ 다양한 영역으로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한 Scale-up 추구
사회문제해결 성과지향성에 상처받을 자율성	-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성과지향성이 예술가 등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성 큼 - 형식적이지 않은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들의 자발성이 중요한데, 참여유도를 위한 인식전환과 사업성과를 통한 공진화 효과 공감이 중요함	❺ 주체성을 존중하는 협력으로 상호 공진화 추구

공동연구진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현장
(2023.12.18.,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023년 공동연구 [1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중 <연구방향 설정> 부분

2023.8.8.(화) 15:00:~17:30, 줌, 공동연구진 16인 참석

쟁점 1.

지역문화재단 설립목적 자체가 지역의 문제 해결이 아닌가? 그렇다면 고유목적에 충실한 것이 문제해결형 문화정책 아닌가?

- 문화관광재단, 축제관광재단 등 후발 문화재단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문화의 활용적 가치 중심으로 재단 사업을 전환해야 하는가?
- 모든 사업에 지역 문제해결 관점이 녹아 있는 것이 단일 프로젝트 사례 보다 더 적절한 "사회문제 해결형"이 아닌가?
- 고려해야 할 문제해결 사례의 단위는?

쟁점 2.

국고보조금(국가가 인식한 문제), 수탁사업(지자체가 인식한 문제), 기업 메세나 사업(기업이 인식한 문제) 등 외부 재원활용 사업이 오히려 재단 자체예산(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고유목적 사업보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가?

- 그렇다면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이란 앞으로 그런 (외부 주체가 인식하고 던져준 문제해결) 사업을 더 하자는 뜻인가?
- 수탁사업, 제휴사업이라고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나?

쟁점 3.

원래 문화기획의 과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과정임. 그런데 지역문화재단의 신규 시책사업 수행 시, 해결할 문제에 대한 인식과 조사연구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가?

- 예산 요구를 위한 논리 만들기형 → 정책적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경영평가를 위한 사후 정리형 → 모든 문화사업에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 조사를 통한 사전 기획형 →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본격적인 접근법이지만,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쟁점 4.

지역의 문제는 지역별로 개별적인데, 타 기관의 문제해결형 문화정책 사업 사례에서, 이번 연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확산할 것은 무엇인가?

- 정책기조? 아이템? 콘텐츠? 노하우? 태도?
- 문화예산 요구를 위한 정당성과 가능성 사례? 슬로건?
- 문화 프로세스와 문화기획자의 마음?
- 기관 간 / 부서 간 솔루션 제공형 협업 방식? : 나의 콘텐츠가 타 부서에겐 솔루션
- 사례 분석을 통한 다음 프로젝트 기획에 필요한 빅데이터 관리와 공동학습 방식

쟁점 5.	**행동하는 예술가의 "사회문제 해결형 창작 프로젝트" 또는 문화단체의 "문화프로젝트"를 재단의 "시책사업", 또는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으로 확대(scale-up)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사회의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적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 사회적 문제해결 예술프로젝트가 공공정책화 되었을 때 이슈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공공이 문제의 주체일 수도 있는데) : 사회적 가치의 정치성과 공공성, 동원되는 예술의 자율성 문제... -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동원되고 오히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기업, 재단의 ESG 경영활동과 연계 방안은?
쟁점 6.	**연구 내용을 선택 집중한다면?** - 무엇을 어디까지 연구 대상으로 고려할 것인가? : 전환된 정책기조? 사업 성과? 앞으로 할 일? -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 중 / 문화예술의 가치가 그 문제 해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 문화 프로젝트의 / 적절한 기획 방법과 / 예술가의 참여 확대 방안" 연구?
주요 논의 결과 요약	- 개별적 사업 소개 보다는 한광연 차원에서 보편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 지향. - 기존의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사례들 보다는 최근 부각되는 사회적 이슈들 (치유, 환경) 관련 사업사례들 중심으로 서술 - 주제(영역)를 특화시켜서 서술하되, 사례 나열과 합산식 서술 보다는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채택한 다양한 사업수행 방식을 소개하는 연구를 지향함 - 문화정책 영역에서의 오래된 문제(예술계 지원, 문화소외 해소 등) 해결 노력도 언급하기는 하되 관련 영역 사업에서의 핵심 이슈와 접근 방식 변천을 소개하는 것으로 접근 (재단의 모든 사업 영역이 서술되는 것은 지양) - (청년)예술생태계 지원을 지역재생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활력유지 관점에서 서술할 방안 고려 - 장애인 관련 사업도 서술하되 장애인을 대상화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예술지원 다양화와 인권 관점에서 서술 - ESG 경영 사례는 소소한 것들이라도 모아서 이번 연구를 통해 광역문화재단을 위한 툴킷을 정리해보는 방안 고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평화"(인천의 경우) 등 거시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미래 이슈로 언급 - 종이 사용량 절감 등 간단한 것이라도 한광연 회원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 필요함.

2023년 공동연구 [3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중 <전문가 자문> 부분

2023.12.18.(월) 14:00:~17:0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공동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등 13인 참석

김민지

마인드 스페이스 이사

발표제목

기업과 협력을 통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 scale-up 방안 : ESG 전략 및 사회공헌 연계 관점

주요내용

- 기업 메세나 차원에서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례들 소개 : GS칼텍스 "마음톡톡", 두산 "시간여행자", 아라리오 제주의 지역재생 협력 등
- 순수예술 지원 메세나 활동은 축소되고 지역문화관련 메세나 활동은 증가하는 추세
- SDGs 활동의 키워드는 협력과 파트너십
-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협력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과 협력은 긴 시간이 필요한 활동
- (변화를 주도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 기업은 기업의 욕구에 맞춰서 선택집중하고 효과가 두드러져 보이지만, 지역문화재단은 양적규모와 다양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 문화의 사회적 역할 scale-up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이 맡을 일 :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 구축, 내재화와 인식개선, 매개자 양성 지원
- 이슈를 제시하고 협의 플랫폼을 만들어 공통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 필요
- ESG 전략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

발표제목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플랫폼으로서 축제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과 ESG를 구현한 "쉴랑게", 시민주도의 "세종축제" 사례 소개
- 시민들의 인식개선의 방법으로서 "문화경험 디자인" 필요
- 예술가와 협업에서 고려할 것들 :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조건, 총괄 디렉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예술가에게 당신의 축제를 만든다는 관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게 필요해. 자기성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함
- 시민참여, 예술가의 시도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장의 플랫폼으로서 축제의 의미 재인식 필요
- 축제생태계 개선이 가능하도록 광역단위의 축제지원센터 설치 필요

2022년 공동연구 [1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중 <미래 대응 및 신규사업 추진 방식> 부분[12]

2022.10.11.(화) 16:00:~18:00, 줌, 공동연구진 중 14인 참석

참가자 Q —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새로운 문제를 기존의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자원 할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임

참가자 M — 대부분 위탁사업이여서 변화를 주기 어려움.

참가자 P — 지자체와 완전히 독립 관계가 아닌 한 신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있음.

위촉연구진 — 사회변화 현상 중에서 일시적 유행(FAD)인지 지속될 트렌드인지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며, 지속될 변화라면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화를 통해 대응해야 함. 이때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의 확보가 중요해짐

위촉연구진 — 많은 신규 사업 요구에 대해서, 사회변화를 읽는 정책연구로 미리 파악하고 통섭적인 문화기획으로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대응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피곤해지고 조직이 보수적이 됨
미래 이슈 논의에서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하여 봐야함
1) 같은 이슈, 다른 의미들
   - 전국 공동연구라고 해서 하나의 이슈에 대해 각 지역의 맥락과 특성을 무시하지 말고 각 이슈가 지역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발현되는 양상을 기술해야 함
   - 예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가 <지원사업 쿼터제>와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예술인 복지"가 <일자리> 등 복지시책 뿐만 아니라 <공정한 아티스트피> 문제가 강조되는 지역의 맥락이 살펴져야 함
2) 하나의 이슈, 연결된 영역들
   - "디지털 전환" 이슈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정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위한 원스토 서비스>, <공유경제>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성격의 전환임을 고려하여 전사적 대응이 필요
3) 대응할 이슈, 활용할 콘텐츠
   - 예술치유가 고령화 사회 대응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특정 이슈는 다른 이슈 영역에 대한 콘텐츠로 활용되기도 함.
   -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무조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12. 한광연 2022년 공동연구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한광연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참여 워크숍 내용 중에서 재단의 미래 변화방향 준비 등 이번 연구의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하였음

2023년 공동연구 [3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중 <전문가 자문> 부분

2023.12.18.(월) 14:00:~17:0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공동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등 13인 참석

참가자 O — 재단 안에서는 앞으로 고유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함. 최근 몇 년간 재단이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고유한 역할이 더 흔들린 측면이 있음. 재단의 차별성을 강화하려면 미래의 새로운 어젠다에 맞춰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보다는 기존의 고유한 역할인 예술창작과 문화복지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봄.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보다 기존의 고유 역할에 집중하면서 미래 어젠다 대응해야)

참가자 H — 경영전략 역량이 부족함.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 필요
(미래 역할 대비 준비할 역량 중 경영전략 부족)

참가자 H — (대구 사례처럼) 언제든지 기관 통합 논의될 수 있음. 정책개발과 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써 지자체와 동등한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며 기관 고유역할에 집중하려고 함

종합 — 새로 대응해야 할 미래 어젠다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님.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보다는 기존 업무영역 안에서 기술변화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혁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는 뜻

[II장 요약] 사회문제와 문화정책 _ 개념과 동향

사회적 문제 해결 문화정책	
개 념	**동 향**
사회적 문제 -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 - 새로 부상하는 이슈 + 혁신이 필요한 해묵은 과제 -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할 문제 - 공공정책이 해결하려는 모든 문제 - 동시대 문화정책의 중점기조를 표방하는 요소 문화의 사회적 가치 구현 - 문화의 공공적 가치 구현 - 문화로 사람들이 잘살게 하는 것 - 사회적 문제해결 문화정책의 실천	①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자임해온 문화예술 ② 실용적인 증거기반 (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오래된 압박 ③ 코로나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④ 사회적 위기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⑤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조응할 문화서비스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⑥ 문화정책의 미래 영역확보 전략으로서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지역문화재단들	
고 민	**선 택**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 개념의 광의성 ▷기존 고유사업과 신규 사회적 역할 강화 중 선택 딜레마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기획 자율성과 역량 한계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해결 문화서비스의 다양성과 규모 요구 ▷사회문제해결 성과지향성에 상처받을 자율성	❶ 문화예술 본질적 가치의 Spill-Over 추구 ❷ 사회적 문제해결을 고유사업의 혁신 계기로 활용 ❸ 창의적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 강화 ❹ 다양한 영역과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한 Scale-up 추구 ❺ 주체성을 존중하는 협력으로 상호 공진화 추구

III.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현장 _ 지역문화재단 사례

구 분		사례들
1. 다양한 문제들	(1) 청소년 문제	**"청소년과 문화-이어주기"** 사례1.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충북문화재단) 사례2. 꿈의 오케스트라 (대전문화재단)
	(2) 문화 다양성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역문화자원으로"** 사례1. 의정부 기지촌 '빼뻘마을' 재생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사례2. 평택 기지촌 여성 평화박물관 '일곱집매' (경기문화재단)
	(3) 환경문제	**"지구 위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기술 – 예술"** 사례 1. 부울경 비치코밍(Beach Combing) (부산문화재단) 사례 2. 고창 돌우물의 바람 (전북문화관광재단)
	(4) 지역활력	**"지방시대, 문화로 지역활력 살리기"** 사례 1.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5) 문화예술 접근성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조할 수 있도록"** 사례 1. 청년예술 쿼 서비스 (전북문화관광재단) 사례 2. 장애인 예술가를 배리어프리 예술강사로 양성 (광주문화재단) 사례 3.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강원문화재단)
2. 다양한 접근법	(1) 예술가 활동지원	**"로컬한 창의력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하기"** 사례 1.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프로젝트 (전남문화재단) 사례 2. 지역의 사회적 문화해결 위한 전문인력 <문화:소셜플래너> 양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례 3. 지역문제를 해결할 지역예술가...메세나로 지원하기(전북문화관광재단)
	(2) 제휴를 통한 확산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창의적 파트너십"** 사례 1. 장애예술인 지원 <로레알코리아-친환경 창작활동지원> (서울문화재단) 사례 2. 장애예술인 지원 <효성화학-굿모닝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 사례 3. 시민대상 장애인식개선 <한성자동차-소원반디> (서울문화재단) 사례 4. 광주형 문화메세나 운동 (광주문화재단) 사례 5. 인천문화재단 기부금 및 메세나 기획사업 (인천문화재단)
	(3) 정책연구	**"사회참여형 문화기획으로서 문화정책연구"** 사례 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 (부산문화재단) 사례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인천 문화정책 연계방안연구 (인천문화재단)
	(4) 영향 및 변화평가	**"긴 호흡으로 관찰하고 계측하기"** 사례 1.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술교육 (충남문화관광재단)
	(5) 기관경영 기조전환	**"사회적 가치실현을 향한 기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사례 1. 문화적(Cultural)-ESG 경영계획 수립 (인천문화재단) 사례 2. ESG 내재화 (광주문화재단)

1. 다양한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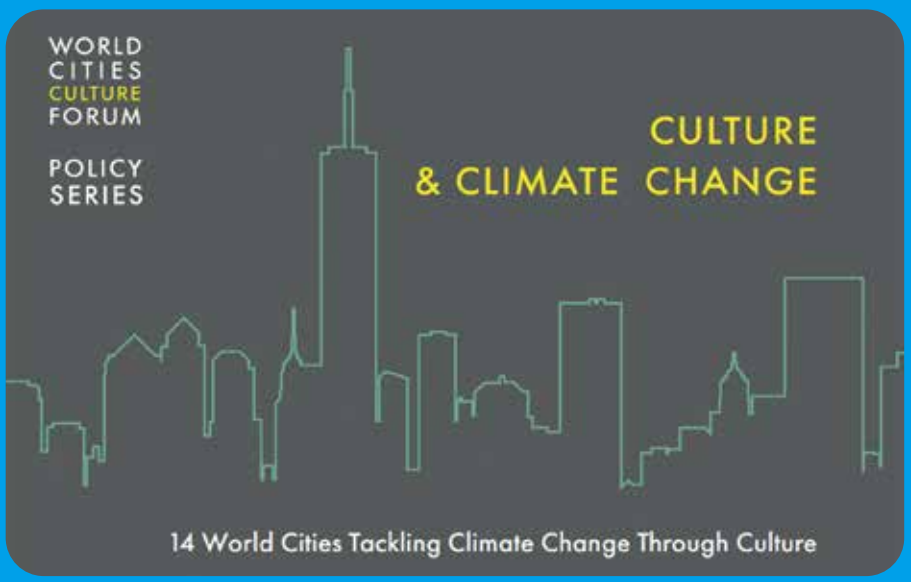
(1) 청소년 문제

(2) 문화다양성

(3) 환경문제

(4) 지역활력

(5) 문화예술 접근성



WCCF가 2018년에 발간한『Culture & Climate Change』

(1) 청소년 문제

“청소년과 문화 - 이어주기”

김병만 (충북문화재단)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

2023년 청소년통계(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3%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사회·정치·의견제시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은 85.7%,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0.1%, 가족관계 만족도는 78.5%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생애 진로교육, 청소년복지, 학교폭력, 청소년 마음건강, 청소년 안전망(고위기 청소년 지원)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참여, 어른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회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다.

출처 : 2023년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 _ 청소년 문제관련 문화예술의 역할 요구와 최근 동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의『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에서는, 예술이 개인에게 몰입·매혹·공감· 지적자극·미적영향·자기정체성·자존감· 재충전등의 영향을 주고, 사회에는 교육·건강과 웰빙·사회문제의 해결·공동체 결집·시민의식·사회자본·혁신 등의 영향을, 국가 및 지역경제에는 고용창출·문화산업· 부가가치창출·관광객효과·국가브랜드 파워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최근 문화예술이 타 영역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프로젝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와 기술전문가의 협업지원 프로젝트 “에이브캠프”, 키뮤스튜디오의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채용 프로젝트 “키뮤브릿지”, 제주 지역의 특성을 담은 공연+스토리+식사의 패키지 경험을 제공하는 “해녀의 부엌”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청소년들은 학업에 치여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우므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들의 창의성 개발에 기여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일탈 청소년의 사회적 교정, 가족붕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상처 치유,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등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문화예술이 개입할 여지는 매우 많다.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_ 청소년의 문화소외 해소부터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기획까지

지역문화재단들은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문화행사 단체관람 지원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들과 문화 사이의 벌어지는 간극을 메우고 이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충북문화재단의 사례는 청주지방법원과 협력을 통해 독립영화를 매개로 소년보호사건 가정의 반성과 공감의 효과를 높인 사례와, 예술놀이를 매개로 한 가사재판가정의 연대감을 향상시킨 협력사업 사례이다. 또한 대전문화재단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예산축소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온 사례이다.

정책적 시사점 _ 예산삭감과 담당자 교체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설립목적과 분위기, 특성이 다른 두 기관이 협업하여 낸 성과는 각 기관 담당자들이 깊은 공감대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노력의 결과이다. 기관 간 업무협약 등 행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첫 의도가 쉽게 퇴색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각 기관 내 공감대 확산, 지자체 및 의회 등 폭넓은 공감을 얻어 지속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문화재단의 사례에서는 법원이라는 매우 낯선 파트너, 법적 처벌이라는 무거운 분위기의 사업 환경이라도 적절히 기획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공감과 소통의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는 국비예산 삭감 시 지방비를 같이 삭감하는 지자체의 관행과 달리, 2014년부터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점이 특히 의미있는 사례이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2023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례 : 청소년문제-1]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 가사 재판 가정 치유캠프 (충북문화재단)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체험교육

청주지방법원과 충북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소년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독립영화'와 '유튜버'를 매개로 한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 참가하고나서 소년재판부에 소감문을 제출한 20가족 전원이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재물 절취나 손괴 등 경미한 비행 사실이 있는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들이 본인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범죄소년'를 감상하고, 영화 리뷰어의 멘토링, 가족과 함께하는 소감문 작성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반성 없는 처벌' 대신 '처벌없는 반성'을 이끌어 냈다.

영화 "범죄소년"의 줄거리
소년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했던 지구, 우연한 기회로 엄마를 찾게 되지만 그녀 역시 미혼모이자 범죄 이력이 있는 어려운 처지. 대물림되는 불행 속, 이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지구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아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주고 싶던 엄마 효승의 이야기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원연계 가족치유캠프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정의 연대감 상실, 관계의 피로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치유 문제를 다루었다. 충북문화재단과 청주지방법원의 협력으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가사재판가정을 대상으로 1박2일 문화예술체험 및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법정까지 와야만 했던 청소년들과 가정의 정서적 치유

- **반성없는 처벌의 역효과**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체험교육은 경미한 비행 사실이 있는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들이 처벌을 계기로 더욱 일탈이 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처벌보다는 적절히 기획된 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고 반성과 가정의 공감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해체된 가족, 해체된 정서**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는 가사재판과정에서 지친 부모와 아이들의 정서를 치유하고자 했다. 분리된 가족 구성원의 내적 안정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적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사업의 성과

-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체험교육 : 20가족 모두 불처분 결정, 사업 확대 발판 마련**
  법원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소감문을 토대로 문화예술체험교육이 보호자의 보호력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대상이었던 보호소년 및 보호자 20가족에 대해 전원 불처분을 결정하였다. 향후 소년캠프 등 소년사건 맞춤형 프로그램 이외에 이혼가정관련 사업을 추가로 구상하는 등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 23개 가정, 총 41명의 1박2일 캠프, 2년 연속 기관 협력사업으로 확대**
  총 41명이 참여한(가사재판가정 23명, 법원관계자 11명, 재단 관계자 7명) 1박2일 캠프를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시행했다. 프로그램 기획은 재단에서, 가정모집 및 관리는 법원에서 담당하여 양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했다. 1일차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극, 요리, 심리, 놀이, 미술치료 등을 10시간 일정으로 추진했고, 2일 차는 리조트 특성을 살려 루지 및 썰매 등 놀이체험으로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색함을 해소하고, 평소 소통이 부족했던 가족 간 감정 공유 및 추억을 형성했다. 예술체험과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어색함과 불안,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충북문화재단과 청주지방법원이 1차 연도 사업에 이어서, 대상자를 확대한 사업으로 2년 연속 기관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큰 성과이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어두운 주제를 다루는 상황에서도 공감을 이끄는 적절한 문화기획

어색한 관계, 딱딱한 분위기일수록 문화예술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적절한 기획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재단의 정해진 사업 틀 안에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 변경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기관 차원의 전략 과제로 채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보호소년·보호자 소감문 (출처:충북문화재단 사업결과보고)

충북문화재단 기획전략팀장 김병만

[사례 : 청소년문제-2] 꿈의 오케스트라 (대전문화재단)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0년 11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출범하였다.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론, 그룹 레슨, 합주)을 운영한다. 사업은 크게 음악교육, 여름 음악캠프, 연주회로 구성되며 일선 학교와 재단 등 협력 기관 간 운영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아 시작된 사업이지만 2014년부터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의 아동·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서,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청소년들의 문화소외

문화예술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반 시설을 요구하는 장르는 향유 기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전꿈의오케스트라는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작되었다. 악기와 연습 공간을 지원하여 개인 악기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도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문화복지를 활성화하며,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 및 공동체 의식 배양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현재는 문화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2018년 대전꿈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출처: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규모

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명	54	54	72	83	78	72
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명	72	78	68	59	36	37

총 32회 공연 (정기연주회 포함)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송출

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회	1	3	4	3	2	4
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회	3	3	3	3	1	2

현금 및 악기 등 현물 후원 유치

연	2013		2016	
구분	후원금	후원 물품	후원금	후원 물품
금액	5,000천원	-	10,000천원	악기(첼로 등), 간식(제빵류)

전문 음악인 3명 배출 (음악대학 진학 등)

"대전 꿈의오케스트"라는 2010년 1기 시작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국비 예산 확보 여부에 영향받지 않고 청소년들의 음악교육 및 연주 활동을 안정·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문화예술로서 이바지하고 있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국비 삭감 등 외부 변화에 적극대응하는 지역의 문화정책 리더십

청소년 문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국비 보조금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이 사업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중요시책으로 인식하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정책적 리더십 덕분이다. 협연을 위해 대면 집합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사업 특성상 코로나19의 여파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2022년부터 전회차 대면교육 진행을 재개하였으며 2023년부터 정원 증원(53명 모집), 강사별 배정단원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여 진행 중이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 수준에 맞는 악기 공급, 단원 증가에 따른 연습공간 확보, 꾸준한 공연기회 마련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악기 유지관리, 노후한 악기 교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인 학생들에게 공연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향후 정책과제로 남는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칼럼기고, '약자 프렌들리' K-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대전꿈의오케스트라, 충청투데이(2023.9.17)
10주년 기념 연주회 영상 https://youtu.be/CPdwgRBB4zs?feature=shared

대전문화재단 정책홍보팀장 한희준 | 정책홍보팀 차장 박혜성

(2) 문화다양성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역문화자원으로" 문채원 (경기문화재단)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

기억항해_송산반점_단채널 영상설치_00:12:00,
가변크기_2023_김현주x조광희 (출처 : 달로 김현주)

차별, 소외, 혐오, 양극화, 소수집단, 인권, 문화적 획일성,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 통합(Unity in Diversity),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미디어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접근가능하고 포용적인 문화참여, 문화예술 인재/상품/서비스의 이동 및 교류, 문화적 도시재생, 소수장르 지원, 창작의 자율성,성평등한 예술환경,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문화ODA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조례, (舊) 무지개다리 사업, 지역특화형 사업, 문화도시, 거버넌스 주체의 다양성, 공공성의 재인식, 커먼즈(공유자원)...문화다양성은 다수자가 관용의 마음으로 소수자를 포용하는 관점을 넘어서, 소수자의 문화적 주체성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관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질곡을 반영하는 문화다양성은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역할 요구와 최근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의 중국계 이민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단시간 내에 집약시켜, 시민사회의 편견과 미디어 선동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19년~2021년 중반까지 영국과 미국 내 2억 6300만 건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혐오 발언이 20% 증가했고, 이 중 5010만 건이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었다. 또한 2020년 미국에서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8263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범죄동기로는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혐오가 가장 큰 비중(62%, 5227건)을 차지했다. 한편 비대면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생산과 지원정책이 집중됨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립, 소외될 위험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세계보고서, 2020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문화다양성 이행 전문가회의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갈등에 대해 문화예술이 투명하고 포용적인 정보 접근 및 사회참여, 정보 교류의 위계 탈피와 활성화, 인권과 자유 증진의 부문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_ 공공예술프로젝트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상처 치유하기

이에 대응하여 살펴볼 국내 지역문화사업 사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전쟁이 낳은 폭력과 지역소외의 상흔이 남아있는 경기도의정부와 평택의 미군 기지촌 문화재생 프로젝트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침체되었던 이 지역에서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과 지역주민의 협력을 기반으로 존엄한 현재의 삶(사회참여와 인권회복)을 찾고자 하는 커뮤니티 아트 및 문화예술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_ 사회적 약자를 우선 수혜자로 고려하는 단계에서 동등한 문화주체로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국내외 다수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차별 금지 교육, 창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 수혜자로 전제하는 문화다양성 접근의 1단계로 볼 수 있다. 이때 사회참여 지원-호명 과정에서의 윤리성이 보다 세심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1단계에서 나아가 모두가 동등하고 다양한 주체로서 협력할 수 있는 작동체계 (인식개선, 조직, 기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20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논의 : 유튜브에서 AI까지, 21세기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 (202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addressing 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 [문화다양성협약 세계보고서](2022, UNESCO)
*위 보고서의 요약본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0475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2021, 경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https://cda.or.kr/
"망할 보균자!" 팬데믹에 폭발한 미 아시아인 증오 범죄 (2022.10.18. 한겨레)
악플: 팬데믹 기간 온라인 혐오 발언 20% 증가 (2021.11.16. BBC 뉴스 코리아)

[사례 : 문화다양성-1] 의정부 기지촌 '빼뻘마을' 재생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빼뻘 주민들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모호하고 충분하게 짜장면을 먹어보자' (출처: 달로 김현주)

이동형 퍼포먼스&오디오투어
'기억항해' 포스터(출처: 달로 김현주)

이 사례는 의정부 미군기지촌 '빼뻘'에서 진행된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다. 이는 미시사 조명, 모두의 포용적·평등한 참여에 집중하는 프로젝트였다. 2019년 김현주&조광희 작가그룹의 지역리서치로 시작하여 마을주민과의 점진적 유대 형성, 지역문화 재단과의 협력(경기문화재단-의정부문화재단 예산 매칭)과 함께 '지역리서치 → 문화공간 조성·운영 → 문화도시 사업 거점화'의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기지촌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

1952년 미군부대 '캠프 스탠리' 주둔 이후 60년대 본격적인 상권을 형성했던 '기지촌' 빼뻘마을(의정부시 고산동)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각종 소매업과 성노동의 현장으로 번성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미군감축조치로 마을이 쇠락하고, 침체한 지역 일대가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며 토지세 인상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 폭력에 희생되거나 경제적으로 추방되어 떠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지역에 남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김현주&조광희 작가그룹은 예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서사를 불러내고자 하였다. 과거의 피해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한마을에서 살아가는 기형적 공동체 안에서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사회구조적 착취와 차별 및 그 이면의 삶과 노동을 미시적 관점으로 출발하여 거시적으로 조명하는 리서치-전시-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기지촌' 주민들은 서서히 수혜자에서 문화적 퍼포머로 성장해 왔다. 처음엔 역사의 기록을 위한 질문대상자, 교육의 수혜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진 삶의 노하우를 나누어주는 주체로 사회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문화재단과 의정부문화재단은 지역공동체의 갈등 요소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며 우리 사회에 '포용'의 실천을 시사하는 빼뻘마을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매칭,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협력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성과

- 커뮤니티 문화공간 '빼뻘보관소'와 '송산반점' 운영
- 지역 리서치 2019~2023년 진행
- 워크숍/퍼포먼스 40회, 라운드테이블/포럼 4회,
- 전시 10회, 공연 및 축제 10회 개최
- 광역,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 3회 운영(2021~23년)
- 총 참여자 약 1,000명(2019~2023년)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충분한 준비와 자기성찰적 태도로 문화다양성의 현장을 대해야

특히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현장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교육과 자기성찰을 거친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행사)방문객의 세심하고 진지한 태도가 요구된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2019 빼뻘주름 프로젝트 관련 보도 (프레시안, 2020.4.28.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80959119610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3 지역기반 문화거점 재생 사업 - 기억항해 (유튜브 영상)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김진희 | 지역문화실 주임 문채원

[사례 : 문화다양성-2] 평택 기지촌 여성 평화 박물관 '일곱집매' (경기문화재단)

평택의 미군 기지촌 안정리에서 주민과 지자체 간의 예술-사회복지-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20여 년간 기지촌 여성의 치유와 역사 바로 알리기, 공동체 화해와 활성화에 힘써온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연극 공연, 영상 및 책자 아카이브, 공간 조성 등 다채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왔다.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 '일곱집매' (출처: 경기문화재단)

시민 인권워크숍 '자기만의 방 그리고 일곱집매' (출처: 경기문화재단)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국가폭력으로 억압되고 소외된 개인의 문화적 자존감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 공동체 통합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국가폭력의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사회참여, 인권 및 평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집중했다. 20여 년간 민간사회단체인 <햇살사회복지회>와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지촌 할머니들의 정서 지원 및 기록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외 교류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해왔다. 자기 삶이지만 세상에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가 연극의 극본이 되고, 직접 배우로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하는 경험은 자존감이 낮아졌던 자아가 다시 세상에 올라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잘것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개인 삶의 미시사가 사진전과 책자로 조명되었다. 시민워크숍을

통해 다문화도시인 평택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 여성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문화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외방지, 건강유지 등 커뮤니티 케어. 지역 청소년 및 방문객들과 동행하는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산책코스도 함께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서적 지원 및 창작-향유-대외홍보에 도움을 줄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였다. 2021년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 일곱집매'의 조성 및 개관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22~2023년에는 [경기에코뮤지엄]의 평택 거점 공간으로 인증되어, 주민이 중심이 되어 예술인과 협력하며 지역의 특색을 발굴, 보존, 확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형적인 문화재 또는 박물관의 개념을 넘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다양성도 중요하다. 박물관의 위계적인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이 자리한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열린 교류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사업의 성과

- 2021년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 '일곱집매' 개관
- 2021~2023년 전시 3회, 시민워크숍 10회 진행
- 2022년 기지촌 성매매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공공성 인식 전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의 가치를 실행하는 민간조직의 역할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양공주'라 천대받던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4년의 기록 (2017.08.24., KBS Herstory) https://www.youtube.com/watch?v=YguTGQfp4OU
기지촌 할머니의 기부로 만들어낸 박물관, 감동스토리 (2021.11.24., KBS Herstory) https://www.youtube.com/watch?v=VGBZ4NUFZ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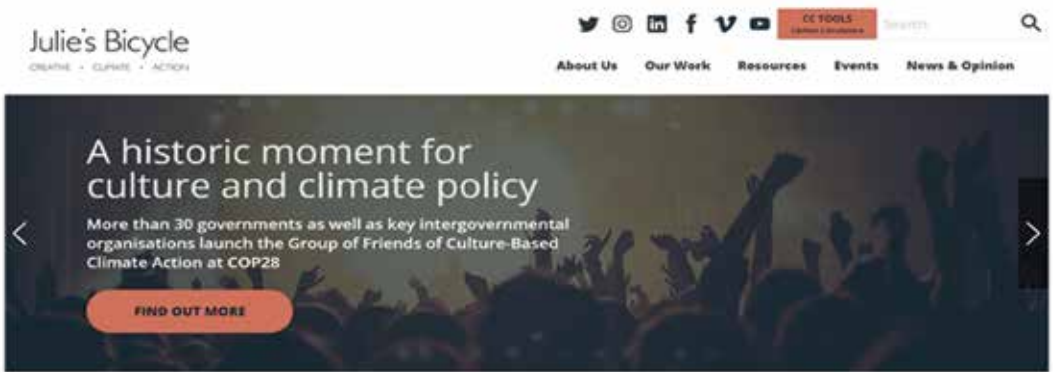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김진희 | 지역문화실 주임 문채원

(3) 환경문제 "지구 위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기술 – 예술"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활동 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환경, 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례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인 환경, 기후변화에 문화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것이다. 문화예술이 가진 복원성(resilience)이 인류가 스스로 파괴한 환경 복원에도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문화예술 활동가들 사이 활발한 협력과 애드보커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영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사례가 특히 주목을 받는 데, Julie's Bicycle이 단연 눈에 띈다.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처하는 예술과 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단체인 Julie's Bicycle은 문예술분야에서 기후정의 실천을 위해 활동하며, 영국을 넘어 전세계에 기후대응 캠페인 Season for Change를 이끄는 활동 단체다. 2018년 World Bank와 UNESCO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시를 문화적 시각에서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CURE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CURE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 지향점, 우선사항을 분석하여, 재난 상황에서 도시재건과 회복 과정을 문화에 기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의 보고서이다. CURE 프레임워크는 세계 각지 사례를 분석하며,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 통합을 통해 위기 후 재건과 부흥에 문화를 주류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기후대응 캠페인 Season for Change를 이끄는 문화예술 활동 단체인 영국의 Julie's bicycle 홈페이지

환경 오염으로 버려진 섬을 예술섬으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대표적인 아시아 성공 사례는 단연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꼽을 수 있다. 국내에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나오시마 섬으로 유명하다. 바다의 오염으로 버려져 가는 섬을 예술의 섬으로 탄생시킨 예술재생 프로젝트는 전 세계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0년부터 개최된 트리엔날레가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세토내해의 섬들이 예술 섬으로 탈바꿈 한다. 예술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를 세토우치의 예술섬들이 증명하였다. 최근에는 오히려 각 섬들의 전통과 민속, 농어업, 공장, 산업 유산, 분재 등 섬들의 다양한 생활 그 자체를 예술적으로 복원하는 힘을 전 세계에 발신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축제의 확산

최근 유럽의 오페라 축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오페라 축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친환경 축제 매뉴얼과 친환경 무대 제작 가이드북을 발간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세계 오페라축제들도 무대소품 재활용, 친환경 무대제작 등 친환경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2016)이전인 2014년부터 공연예술계에서 친환경 실천 방안으로서, 무대세트 제작 시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운영이 확대된다. 엑상 프로방스 음악 축제가 선도적으로 2010년부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감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제 개발'을 목표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2014년에는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국(ADEME, 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이 엑상 프로방스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후원하여 약 40여 개의 프랑스 및 유럽 내 문화기관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외에도 '친환경 무대 세트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는 책을 발간, 2019년에 이르러서는 무대 세트 친환경 제작 100%를 달성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_ 기후위기 대응행동을유도하는 예술적 기획과 기관차원의 실천

지역문화재단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직접 기획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해양 쓰레기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치코밍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한편,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및 실천영역에 해당하는 실천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탄소배출 줄이기', '에너지 소비 줄이기', '폐기물 관리', '플라스틱 및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이 대표적인 실천 예시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_ 지역문화재단들의 연대를 통해 확산할 기후위기 대응 행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2021)』에서는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및 실천영역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를 통해 제시된 4C 기후변화 대응(Carbon-Free), 자원순환(Re-Cycl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협력과 거버넌스(Collaboration)는 실천적 행동으로 재단 운영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에서 실현 가능한 친환경 실천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영역으로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첫째, <탄소배출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 배치, 대중교통 이용 장려, 스마트 워크 도입을 고려 할 수 있다. 둘째는 <에너지 소비 줄이기> 일환으로 지역문화재단 운영 시설 내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하며, 셋째는 <폐기물 관리>측면에서 폐기물 수거를 통한 업사이클링 아트 지원 및 친환경 무대 제작을 실현하며, 마지막으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이 자발적 연대를 통해 <플라스틱, 종이 사용 줄이기>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Culture in city reconstruction and recovery, UNESCO & The World Bank(2018)
부산 오페라 축제 구상 연구(2022.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20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엑상 프로방스 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s://festival-aix.com
Julie's Bicycle 홈페이지 https://juliesbicycle.com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국제포럼 자료집(2021.11.26)
부산문화재단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2012.09)

출처: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노영순, 장훈, 2021)

[사례 : 환경문제-1] 부울경 비치코밍(Beach Combing)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개 이상 단체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아트, 비치코밍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특히, 2021년 이래 부산문화재단 기획사업으로 시민들이 예술가와 함께 해양쓰레기를 플로깅하여 이를 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비치코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치코밍을 통해 그림 그리기, 영상제작, 모형 만들기 등의 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해양문화도시의 바다 쓰레기

2019년 부산문화재단은 비전 2030 수립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산문화재단"이라는 미션 아래, UN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문화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인 부산은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해양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다양한 활동이 화제가 되었다. 부산문화재단 역시 이러한 추세에 보조를 맞춰, 환경,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 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2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 포스터와 2023 기후변화 위기극복 WITH 비치코밍 스케쥴(출처:부산문화재단)

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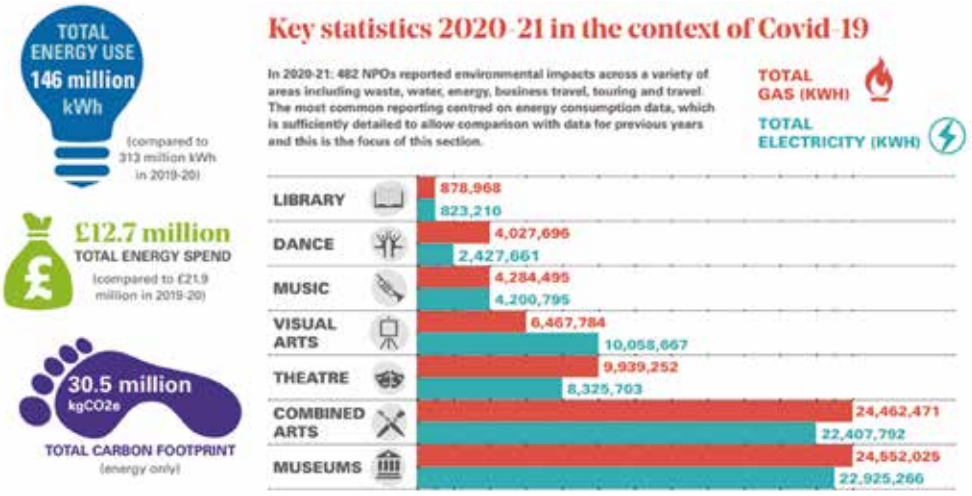
2022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 '비치코밍 투게더 아트展'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시민과 예술가(단체)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를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어젠다로 설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했다. 비치코밍에 총 493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전시에는 9,080명의 시민이 관람했다. 또한, 재단 주요 SNS 누적 조회수가 6,547회('22. 10. 20. 기준)로 재단의 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23 기후변화 위기극복 with 비치코밍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시민 공감대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과 지속가능한 삶의 엑스포 주제 의식 확산과 유치의 열망을 담아 부산 시민의 범시민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행사로 추진하였다. 특히,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일원에서 실시한 비치코밍·플로깅은 지역의 역사문화해설과 함께 진행되어 지역문화와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사회적 가치 구현 문화예술프로젝트로 지역 간 연대협력도 가능

부울경 광역·기초 문화재단들 간의 연대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문체부, 환경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2024년 국제포럼을 통해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의 실천적 사례와 의지를 전 세계 문화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발신하고자 한다.

TIP 부산의 지역문화 자원인 바다를 활용한 문화예술프로젝트는 바다의 환경 쓰레기 오염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부산 엑스포 유치', '부울경 협력'이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시책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 붐업 조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2023 기후변화 위기극복 with 비치코밍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dNTVMgT_v4
[문화톡톡] 해양쓰레기에서 예술작품으로…비치코밍 전시회 소개 뉴스 영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12040&ref=A



영국아츠카운슬이 조사발표 한, 문화예술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출처 : 『Culture, Climate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nual Report 2020-21』 (Arts Council England, 2022))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

[사례 : 환경문제-2] 고창 돌우물의 바람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2023년 지역특성화매칭펀드사업 '고창 돌우물의 바람'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한국메세나협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역은행인 '전북은행', 고창 지역의 치유관광 명소인 석정웰파크병원((주)시니어스타워), 재단, 그리고 전북의 예술 작가가 협력하여 진행한 친환경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2022년 남원의료원에서 진행된 '지리산의 바람'에 이어, 지역예술가가 참여한 환경을 주제로 한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자연과 인간, 예술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두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환경 주제 기업매칭 프로젝트로 지역예술계 활력 제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예술가들의 삶, 아울러 더욱 좁아진 예술활동 공간은 결국 지역 예술생태계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예술활동과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예술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대면 예술활동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 이는 지역 예술가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예술을 떠나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게 하는 상황까지 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한 <2022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전북에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예술관련 지원예산 부족(26.8%), 경제적인 어려움(16.4%), 예술활동역량 제고 기회 부족(10.5%), 창작활동공간 마련(10.0%) 순이었다. 이러한 지역예술현장의 어려움을 지역기업-재단-예술가를 연결하는 매칭펀드 메세나 사업을 통해 해소하고 지역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추진한 프로젝트가 바로 "고창 돌우물의 바람"이다.

사업의 성과

이번 '2023 고창 돌우물의 바람' 프로젝트는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48일간 고창 석정웰파크병원, 외정공원, 석정온천 일대에서 전시기획자, 참여 작가, 공연자 등 예술인 40명이 참여했다. 13명의 설치작가 작품이 전시되어 지역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예술을 통한 치유와 활력을 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기업에서 설치작품 구입 의사를 밝히는 등 예술작품의 유통에도 기여했고, 아울러 한국메세나협회의 지원금 26백만 원 외에도 전북은행, 하이트진로, ㈜시니어스타워 등 지역기업에서 37백만 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었다. 메세나사업의 취지대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등이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문화예술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젝트로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지역문화재단이 다양한 재원들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되어야

한국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 사업의 공모선정을 계기로 점점 그 규모를 키우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역시 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재원이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지역기업과 재단이 협력해서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계의 활동공간을 넓혀 예술작품 유통의 단초를 만들어가야 한다. 2023년 프로젝트는 기업 등 중소규모의 기부활성화를 통해 재단이 중심이 된 예술활동지원과 작품 유통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액의 기부금은 아니더라도 작지만 소중한 기부 활동이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재단이 매개자 역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작품명- 공상가 / 박경덕 작> 설치장소 고창웰파크병원 야외마당
괴로움을 없애는 것만이 답이 아닌 괴로움 속에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느꼈던 깨달음이며, 작품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나만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TIP 작지만 소중한 기부와 작품 구매가 전북의 예술활동 공간과 창작 시장을 활성화하고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그 작은 시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자!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jbct.or.kr/post/11337)
전시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dL9wcKbvKk)

전북문화관광재단경영기획본부장 홍승광

(4) 지역활력 "지방시대, 문화로 지역활력 살리기"

인구감소 ~ 지방소멸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 출산율을 두고 로스 다우섯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했다(전혜원, 시사인, 2024.1.1.)[13] 이제 저출생 문제는 가장 시급한 국가 의제로 떠올랐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하나같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부르짖었지만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지 못했고, 이제 재앙적 수준으로 낮아진 출생률 앞에서 지방 소도시들의 소멸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7.10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고, 2023.10.30에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12.18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소멸 ~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역문화 다양성 소멸의 위기

지방도시가 사라지는 것은 지역문화의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 2조의 정의 대로 "공통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하는 "지역문화"는 사실 개념적으로 "문화" 그 자체이다. 지역이 모인 국가 단위의 문화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소멸은 곧 국가 문화의 다양성 축소를 뜻한다. 지역문화의 다양성은 국가 문화의 생성.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이고, 문화가 경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금 시대에 그것은 곧 경제활력의 핵심요소가 된다. 영국의 지방자치정부협의회(LGA)가 2022년 12월에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문화의 주춧돌 : 지방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Cornerstones of culture: Commission on Culture and Local Government)을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문화로 지역 활력 만들기에 대한 2030년까지 10개년 국가 전략 "Let's Create"의 비전에 부합하려고 한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문화적 매력과 활력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2000년 초반부터 전 세계을 휩쓴 "창조도시" 정책 붐은 이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소통하며 취향저격 힙플레이스를 찾아 헤매는 문화부족들을 이끄는 "로컬리티의 매력" 찾기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BOP컨설팅에서 중국 난징시의 의뢰로 발간한『라이프 앤 소울: 세계 도시 활력 보고서(Life and Soul: World Cities Vitality Report)』(BOP 컨설팅, 2023.2.6.)에서는, "도시의 성공은 문화 활력으로 정의되며, 문화 투자는 경제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진보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시는 문화생활로 활력을 내보이는 유기체이며, 여가와 엔터테인먼트, 미식 및 예술, 그리고 아이디어의 힘으로 도시의 특성이 발현된다고 보고, 세 가지 지표영역을 설정하고 런던, 밀라노, 오스틴 등 세계도시들을 비교하였다.

관광매력, 문화적 삶, 관계인구... 지역문화를 지탱할 것들

지방소멸 대책 세우기에 다급한 정책주체들이 주로 관심 갖는 현상은 <인구소멸>이지만, 그것의 원인으로서 염두에 둬야할 것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사회복지 인프라를 비롯하여 <폭넓게 연결된, 다양한 삶의 조건들>이다.
2000년대 이후 줄곧 강조된 지역문화진흥 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 차원에서 누려야할 문화복지 서비스의 지역적 소외가 없도록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했다. 지역문화진흥 정책은 이제 지방소멸 대책으로서도 기여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3월에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이라는 비전과 <①문화로 지역균형 ②문화로 지역매력 ③문화로 지역활력> 목표 달성을 향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2023년 10월에 발표한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중 문화부문 계획은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전략으로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 발굴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에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 보고서에서는 주민 1명이 사라졌을 때 숙박 관광객 15.7명과 당일 관광객 50.6명이 1년간 추가로 충남을 찾아야 지역 소비가 유지된다는 계산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를 관광객 66명의 활력을 담보하는 주민 1인의 중요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개관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에 반년 만에 방문객 3만명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5만명의 이용객이 찾아와서 지역활력에 기여한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문화적 삶과 지역의 매력을 찾는 방문객이 힘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인프라로 지역활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인구가 아닌, 연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관계"(조양호, 웹진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7월)라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13. 합계출산율 0.7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났는가 (전혜원, 시사인, 2024.1.)

인구 감소 따른 소비 위축 상쇄하려면 충남도민 1명당 관광객 66명 필요
(충청투데이, 김중곤, 2023.10.5.)

인구 3만 도시에 5만 명이 찾아왔다…시골 도서관의 기적
(KBS, 임서영, 2024.1.27.)

지역문화재단과 문화로 지역활력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해서, 지역문화재단들은 지금까지 도시의 유휴시설을 예술가 창작공간으로 재활용하거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문화적 접근법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방소멸이라는 범 국가적 현상이면서 다양한 정책 영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회문제에 해결의 주체로 나서본 적은 거의 없다. 한광연 부설 한국지역문정책연구소에서는 2023년 12월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주한 "지역문화 매력.활력 증진 방안"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6월까지 문화정책 범위를 넘어서서 범 부처 차원의 정책으로서 제시될 지역활력 증진 방안은, 문화의 본질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폭 넓은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 범위를 한 마디로 표현한 "지역문화진흥"의 의미를 예술창작과 시민문화향유를 넘어, 문화산업, 관광진흥, 문화창업진흥, 문화특구 설계까지 포함하는 폭 넓은 의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2023)
『지역문화 창업 정책 방향 연구』(김규원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가치 창출전략』(서울문화재단, 2006)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전략 연구』(조경진 외, 서울문화재단, 2015)
『Life and Soul: World Cities Vitality Report』(라이프 앤 소울 : 세계 도시 활력 보고서)
(BOP 컨설팅, 2023.2.6.)
『The Culture Fix – creative people, place and industries』
(문화는 Fix한다 – 창조적인 사람.장소.산업을) (OECD LEED, 2022)

[사례 : 지역활력-1]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당면 과제이며, 세종시 시정4기 핵심과제인 '신도시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심 내 문화 공공공간 확대 및 문화 소비 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2020년 1개 동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매년 2개 동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장기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활력 소멸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중 하나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였다. 출범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도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희망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가공실 문제로, 2023년 1분기 세종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4.4%(전국 공실률 6.9%의 2배)로 신도시(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상가공급과잉 및 높은 임대료에 따른 공실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상권은 상가공실로 인해 상권 일대의 거리 전체가 황폐화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세종시 도시 조성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적 한계를 해소해보고자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의 성과

- 본 사업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 활력의 기반이 되고자 다음 4가지 방향성으로 추진되었다.
  ① 시민 중심의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를 확장한다.
  ② 예술인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도심 내 문화 공공공간을 확대한다.
  ③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민 문화향유를 통해 문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킨다.
  ④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소비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개 동
시범사업 추진

- 시민·기획자·예술가 참여 회의 개최(14회)
-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3회)
- 공실 활용 전시관·작업실 마련 및 전시 개최(1,956명 관람)
- 주민협력 공연·체험학교 등 개최(1,085명 관람)
- 청년 교육프로그램 운영(20명 수료)

(2021년)
2개 동
총 16개 프로그램
7,277명 참여

- 동·주민자치회·상인회·예술인 참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18회)
- 상인 간담회(2회), 역량강화 교육(2회) 등 운영
- 공실 미술관 조성 및 전시 개최(2,555명 관람)
- 지역예술인 공유 작업실 조성·운영(3명 입주)
- 지역주민 참여작품 제작·설치₩
- 상인회 주도 취미 공유 프로그램 운영(5회)
- 거리공연 9회(1,300명 관람), 투어·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한솔동) 전년 동기간(20.4.~6.) 대비 카드매출액 2.9% 상승 및 유동인구 18.93% 증가
* (종촌동) 사업 시행 직전 대비(7월) 상가 공실률 48% 감소 및 유동인구 1.5배 이상 증가

(2022년)
2개 동
총 19개 프로그램
10,073명 참여

- 추진위원회(4회), 주민협의체(11회) 개최
- 지역예술인·시민 참여 공유창작공간 운영
- 소상공인·시민 참여 예술교육 운영(26회)
-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 개최(시민·예술인 참여/2,868명 관람)
- 상가 창문 활용 미디어전시 진행(1,950명 관람)
- 소규모 실내공연 운영(8회, 192명 관람)
- 거리공연 운영(10회, 1,190명 관람)
- 아트플리마켓 개최(66팀 참여, 2,617명 관람)
- 주민역량교육 운영(114명 참여)
- 거리큐레이팅을 통한 경관 조성, 예술산책 안내지도 설치 및 배포

* (고운동) 전년 동기간(21.6.~9.) 대비 카드매출액 12.16% 상승, 일평균 유동인구 1.83% 증가
* (보람동) 전년 동기간(21.9.~10,) 대비 카드매출액 29.49% 상승, 공연에 따른 유동인구 2.65% 증가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주민참여는 사업추진의 수단이 아니라 지속의 조건

지역이 가진 한계점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과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등 구성원 참여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주민참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민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적인 활동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단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양성하고, 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공간이나 작품 등 남겨진 결과물들이 쓰임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차장 최윤정

(5) 문화예술 접근성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조할 수 있도록"

문화는 기본권...보편적 문화복지 접근성 제고 필요성은 갈수록 강조

2013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복지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그 확장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된다. 윤소영 등(2020)[14]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제도로서 <문화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문화권 중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최소 문화서비스 기준선 도입을 제안하였다. 유네스코는 2022년에 문화정책 보고서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창조성을 위한 정책 - 새로 구성하기)"를 발간하면서 "문화는 글로벌 공공재"(culture as a global public good)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네스코가 같은 해에 발간한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코로나-19 시기의 문화 _ 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확인된 문화의 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사회양극화는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고, 문화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위기에서의 회복을 도와주는 문화의 가치를 향유할 기회가 더 적다. 따라서 문화정책 영역에서 오래된 과제인 "문화서비스의 역진성"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심화된 문화접근성의 양극화를 치유할 해결책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 정책의 유형 분류>

구분기준	유형구분	내용
목 적	접근성 확대	문화민주화,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역량 개발	문화민주주의, 문화역량 개발
정책대상	일반 국민	문화적 접근기회 확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문화바우처, 장애인·노인·이주민 문화복지
지원방식	공급자 지원방식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복지활동, 순회공연, 소외지역 문화인프라 조성
	수요자 지원방식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등
정책대상	현금·현물 직접지급 방식	가격보조, 문화바우처, 도서 지급
	문화서비스 공급 방식	문화가 있는 날,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출처 :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정광렬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술 창작에 대한 접근성

정광렬 등(2015)에 따르면, 현재 문화부의 문화복지사업은 "문화민주화" 관점에서의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사업들과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전 국민의 문화역량 개발"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관점이 예전에는 공공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단순히 수혜자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창작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6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이후 최근 특히 장애예술가 창작권리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가나 예술 애호가가 가난한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후원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전통이다. 하지만 이제 지역문화재단들은 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창작 권리 보호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의 창작물 구매 총액 중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공예·공연·미술품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했다.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연구보고서 (The Disability Access Card Scheme Research Report)』(2023) 발간 사례처럼, 장애인들의 문화참여 보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14.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윤소영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예술 접근성 제약 요인 파악하여 제거하기

이호영·서우석(2010)[15]은 문화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문화적 박탈" 상태의 원인을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문화향유가 주관적 필요에 의해 규정되는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화적 영역에서의 주관적 박탈을 <문화적 박탈감>이라 칭했다. 그리고 가치기대와 가치능력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파악하였다.

문화적 박탈을 설명하는 요인		발생원인
객관적 요인	**경제적 요인**	**- 빈곤으로 인해 문화비 지출 여유가 없음** **- 생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지리적 요인	- 물리적 거리 -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문화시장 부재
	물리적 요인	- 신체적 장애
	사회적 요인	- 사회적 소수자 - 적절한 문화콘텐츠 부재
주관적 요인	문화적 요인	- 과거의 문화체험 부족 - 문화해득력 부족 - 관심 부족
	심리적 요인	- 심리적 부담 - 소외감 - 문화적 소비에 대한 거부감

<출처 : "디지털 시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 (이호영·서우석, 문화정책논총 제23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문화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실태 파악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 접근성 장애와 문화생활 격차의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으로 문화생활 양상과 개념이 급변하여 예술관람 빈도 등 시민문화향유실태의 수준 값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며 무의미하기도 하다. 오히려 장애요인들과 문화향유 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파악한 문화생활격차와 장애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문화향유실태조사 결과분석에 적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문화복지에서 맞춤형 문화복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문화이용권 제공 등 문화복지 시책사업은, 국민의 문화기본권 차원에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최소 기준선 설정 없이, 여전히 다다익선식 시혜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문화기본권 충족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 기준선 설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에 시민참여로 제정되었고, 2019년에 2.0 버전이 발표된 『서울시민 복지기준』에도 소득, 거주, 돌봄, 건강, 교육 기준만 있을 뿐, 문화 분야 복지기준은 없다.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에서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최소 기준과 적정 기준" 설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불명확한 개념에 기반한 성과주의 문화복지 정책이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성과주의 행정의 속성 상 그 효과가 모호한 보편적 문화복지 사업 보다는,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약자" 이슈에도 편승하고 계량적 성과 제출이 쉬운 선별적 문화복지로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는 국가의 시혜적 관점에서의 선언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요구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들 속에서 시행되는 문화복지 시책이 문화약자와 일반국민들 사이에서의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차별 없는 문화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복지 정책의 개념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보편적> 문화안전망 구축과 <선별적> 프로그램 선택 환경 제공을 적절히 조합한 <맞춤형 문화복지>가 될 것이다.

15. "디지털 시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 (이호영·서우석, 문화정책논총 제23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구분	사업 대상	현재 주요 사업사례	개선 방향	
선별적 문화복지	**문화적 취약 <계층>**	문화이용권	**<보편적> 문화안전망 구축** 교육, 경제(직장문화),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문화복지** 선별성과 보편성을 적절히 조합하는 접근
보편적 문화복지	**문화소외 <현상>**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	문화가 있는 날	**<선별적> 프로그램 선택 환경 제공** 취향과 소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은 접근성 지원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윤소영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장애예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조현성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2.)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정광렬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유네스코, 2022)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코로나-19 시기의 문화 _ 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
『The Disability Access Card Scheme Research Report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연구보고서)』(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2023)

[사례 : 문화예술접근성-1] 청년예술 퀵 서비스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예술 퀵 서비스'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실시한 <2022 예술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전북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2023년에 재단이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이다. 전북 지역 청년예술인(단체)의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을 공모로 선발하고, 지역 내 공장, 병원 등 일상업무로 문화예술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매칭된 예술가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직업특성 상 발생하는 문화소외, 청년예술가의 활동공간 부족

이 사업은 청년예술인의 활동공간 및 예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상시 반복되는 업무 때문에 예술향유 기회가 적은 소규모 회사, 병원, 공장 등의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단순히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서 확장하여 함께 예술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기고, 느낀다는 점에서 지친 일상의 휴식과 예술을 통한 치유에 방점을 둔 사업이다. <2022년 전라북도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전북 예술인 실태조사 표본 중 50%를 차지하는 청년예술인이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37.7%) 파악됐다. 결국 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지역을 떠나는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3년에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문화예술 분야에서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청년예술인의 활동공간 확대를 통한 소득창출과 문화적 소외 공간을 매칭하는 '청년예술 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사업의 성과

2023년 6월에 청년예술인(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23개 팀, 81명의 예술가를 선정하고, 문화적 소외공간인 병원 등 일상 속의 문화적 접근 장애 공간 34개 기관과 매칭해 45회 공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3,500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전주시 중심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이 집중된 지역 불균형도 해소하고 소멸 위기 지역의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공연 대상 지역을 안배하였다. 청년이 중심이 된 가볍고, 작지만 울림이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 예술가와 지역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이지만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문화재단의 사회적 역할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지속적 소통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기획 필요

2023년 '청년예술 퀵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예술인의 활동공간 확대에 대한 갈증은 해소됐으나, 여전히 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청년예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전북', 그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청년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것을 재단이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지역과 연계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TIP 청년예술인이 지역에 뿌리내려야 지역 문화예술 토양이 만들어지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풍성해진다. 청년이 없이는 지역문화는 지속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다. 청년예술인이 곧 우리의 지역 문화의 미래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 청년예술인 배달서비스 – 전주KBS 투데이전북 기사

2023 청년예술 퀵 서비스 중 국악공연 현장

전북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홍승광

[사례 : 문화예술접근성-2] 배리어프리 예술강사 양성 (광주문화재단)

그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주요 정책 의제는 기능손상에 대한 치료와 예술을 통한 사회적응력 강화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의 참관자 혹은 문화복지 수혜 대상자로 여겨지는 한계를 보였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장애인의 예술활동 참여, 장애예술가에 대한 인식 개서

2022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장애인예술향유 기회 확대'로, 39.8%를 차지하였다. 장애인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거점공간은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공간시설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공간을 생활권 곳곳에 조성하면 되지만, 예산과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생활권에 인접한 7개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문화향유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장애인 공간 이용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이다. 사용 시간의 자유로움과 더불어 이동 접근이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결국 배리어프리 시설과 장애인 당사자를 보유한 장애인복지관과 문화예술 전문성을 갖춘 재단의 연계로 장애인 문화향유 확대를 이뤄낼 수 있었다.

사업의 성과

1) 장애인 문화향유 확대

생활권 내 7개 복지관에서 진행한 문화향유 프로그램

단체명	인원	장애유형	프로그램명
장애인종합복지관	8	지체,지적,청각	우드버닝 목공예
서구장애인복지관	7	지체,지적,뇌병변	인형극
동구장애인복지관	20	지적,지체,뇌병변	뮤지컬울림
남구장애인복지관	6	지체,정신장애	단편영화
광산구장애인복지관	19	지적장애	자화상 그리기
시각장애인복지관	15	시각장애	시각장애 합창단
엠마우스복지관	20	지적장애	조각보 공예

지체, 시각, 발달 장애인 95명은 평소 체험하지 못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삶의 활력과 도전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고 답했다. 예컨대 지체장애인 수강생은 우드버닝 1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뮤지컬에 참가한 수강생은 몸을 움직이고 노래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했으며, 시각장애인 합창단은 전국 합창대회 출전하고 싶다고 했다. 95명의 참여자는 자신의 신체적 제약을 예술활동을 통해 당당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과 삶의 목표로 예술을 향유했다. 장애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해 긍정적 에너지와 열정으로 관객을 감동하게 하기도 했다.

2) 전복적 기획 : 장애예술가를 배리어프리 예술강사로 양성

대체로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창작역량도 낮고, 작품의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공모전과 대회 수상 실적을 갖춘 우수한 장애예술인이 많음에도 지원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낮고, 예술강사로서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다. 장애예술인도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고, 예술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12명의 배리어프리 예술강사 양성과정을 기획했다. 9주간의 수업, 교보재 제작, 현장실습 과정을 거쳐 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은 2주간 장애인복지관 강사로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했다. 장애인은 항상 문화향유자 혹은 예술교육의 수혜자로 위치하는 것을 전복했다. 수강생에게 전문지식을 가르치고, 작품창작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사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이기에 소통과 공감력이 훨씬 좋았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보였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장애인이 아니라 예술인으로서 지원하는 관점 전환

첫째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은 '예술인'보다 복지 대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익숙하다. 이에 따라 예술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장애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다는 '장애'에 포커스를 둔 시각이 팽배하다.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적 비평을 통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표의 장이 많아져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공통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장애인이 있고, 문화향유에 대한 갈증은 어느 곳에나 높다. 공모 경쟁 방식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이 확대되길 희망한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2022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실태조사 보고서(광주문화재단, 2022)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장 정혜영 | 창작지원팀장 박경동 | 기획전략팀 대리 김연경

[사례 : 문화예술접근성-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 기회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2년에 신규로 추진했고, 2023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발굴과 교육 제공을 위한 '장애예술인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장애예술가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강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0 강원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 91명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작지원(기금) 및 수혜자 확대(70.5%)"가 장애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창작지원과 수혜자 확대" 관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모든 지원사업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복잡한 지원절차>, <공정한 선정 과정>,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등이 언급된다. 강원문화재단은 시범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성과

(2022년) 총 15명, 45백만원 지원 (1인당 3백만 원) ※ 이중 김민건 작가가 2022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올해의 작가상 수상
(2023년) 총 31명, 100백만 원 지원 (1인당 3~4백만 원 차등 지급, 조력자 지원 포함)

※ (신규) 사업 관련 자문위원회(5명) 구성 운영
※ (신규) 장애예술인 아카데미 개최 (조력자 포함 총 42명 참여)

▶ **지원사업의 세 가지 문제점 해소 노력**

√ 첫 번째, 구체적인 창작계획서는 1차 선정 이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절차 개선 : 최초 신청 시에는 간단한 지원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과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만 제출하여 소득기준 판별 등 내부 재단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

√ 두 번째, 본 사업의 취지인 장애예술인 복지관점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의 저소득 (전문)장애예술인을 우선 선정

√ 세 번째, 별도 정산서를 받지 않고, 담당자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로 정산보고서 대체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장애라는 다양한 상황에 보다 세심하게 반응하는 행정 필요

장애예술인 관련 사업 구상 시, 지원대상에 대한 섬세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 및 등급, 예술 분야별 특징에 맞는 지원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 조력자가 꼭 필요하므로 조력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후천적인 장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예술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성평등 ·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환경조성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3 강원장애인 문화예술아카데미
(2023. 11. 21.(화)~11. 24.(금), 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

TIP

1. "장애예술인"이 아닌 "예술인"으로 보는 시각 필요
2.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3. 장애예술인 지원은 예술지원과 복지지원의 관점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 필요
4. 지원금 정산절차 등은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미디어오늘, 장애예술, https://www.mediatoday.co.kr/한국문화예술위원회 SQUARE, 장애예술, ww.arko.or.kr/asquare/2020 강원도 예술인 실태조사(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고성은 | 정책협력실 차장 전아름 | 경영기획팀 대리 심현주

2. 다양한 접근법

(1) 예술가 활동지원

(2) 제휴를 통한 확산

(3) 정책연구

(4) 영향 및 변화평가

(5) 기관 경영기조 전환

"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
(출처 : 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1) 예술가 활동 지원

“로컬한 창의력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하기” 박하나 (전남문화재단)

예술가들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

예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열려 있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와준다. 이는 예술이 가지는 중요한 공공적 가치이다.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활용하여 예술가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예술적 접근법으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공공미술의 개념을 확장하여 공공의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기획할 수 있도록 어젠다를 제시한다.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 프로젝트는 폐쇄된 기차 선로를 예술가들이 참여해 도시 공원으로 재생시킨 사례이다. 예술가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예술작품 설치를 통해 침체되었던 도시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사례이다.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종차별, 기후위기 등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예술창작 작업을 통해 대중들이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는 예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감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이나 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 사회구조적 치유가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 형성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
예술가들은 공연, 전시, 집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 양극화 등 사회 이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예술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겪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술가는 개인적인 예술적 표현과 프로젝트의 사회적 목적 및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다루게 될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다양한 분야와의 주체들과 원활히 협력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_ 지역 예술가들을 사회적 문제 해결 주체로 만들기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전남문화재단의 “사회적가치 지향 청년 프로젝트” 처럼, 지역문화재단들은 예술가들이 직접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 활동을 지원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할 예술가들 발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문화 : 소셜플래너> 양성사업을 진행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tool-kit)”을 발간하여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 사회적 예술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사회문제해결형 예술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예술과 사회의 접점 확대,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영역 확대와 함께, 현지 지역성에 기반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역량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 _ 사회적 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적극적 지지’이다. 예술가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예술창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술창작 사업의 경우 대부분 개인 활동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결과물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해결형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그 연구과정, 도전과 실험, 실패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의 창작과 공공성에 대한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jsp/artdata/arcoList.jsp
부산문화재단-전자아카이브(2022 예술치유 사업 성과보고서)
https://e-archive.bscf.or.kr/27_policy/01_policy.php?idx=2142&pmode=view

[사례 : 예술가 활동지원-1] 사회적 가치지향 청년프로젝트 (전남문화재단)

'사회적가치 지향 청년 프로젝트'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생태위기, 지역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슬로건 "전남 청년들의 문화적 실험을 지지합니다"처럼 다양한 문화기획을 발굴했다. 2022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으로 출발해, 2023년에는 전남 문화예술진흥기금 400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명의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를 지원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다양한 사회적 예술활동 확대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지역 청년문화정책 개발이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서 기획된 사업이다. 단순히 문화예술이라는 한 가지 분야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문제, 청년문제, 지역(인구)소멸, 동물권 보호 등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뤘다. 참여자 모집 시 문제의 단위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295개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까지 고려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문제와 생태위기 등 국제적 이슈, ESG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주제까지 다루었다. 지역소멸, 이웃 간 소통단절 해결, 학교폭력 예방, 야생동물 보호, 다문화가정 자녀 차별 예방방안 마련, 귀촌인의 지역 적응 도모 등 다양한 주제를 활동가가 직접 고민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의 경우, 18명의 활동가들이 환경(6), 사회갈등 해결(4), 지역 활력(7), 동물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접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가.지 사례들

사.가.지 프로젝트 중 한진희 활동가의 "출세한 쓰레기들"

지원된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로 전남 순천시 외서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한진희 활동가의 "농촌 쓰레기, 예술이 되다! <출세한 쓰레기들> Vol.2"를 소개한다. 농촌에서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는 일을 종종 보며 재활용이나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변에 알렸지만, 여전히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고는 인식변화를 위한 자극적 예술행위를 기획했다. 농촌 쓰레기를 옷으로 만들어 입거나 쓰레기 가운데에 누워있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인식 전환을 유도했다. 비단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들도 농촌 마을 쓰레기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다.

2022년도 사업 모델링을 위해 참여해 2023년도에 프로젝트 2.0버전을 보여준 박찬국 작가의 사례도 소개할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해안가 빈 집을 지역의 공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활동이다. '삶의 특별함을 위한 보편적 해결책'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특히 바닷가 마을에서 호기심과 놀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을 탐색했다. 작가는 전남 고흥군 신평마을의 방치된 김양식 조합 건물에 공유 거점을 만들었다. 빈집이나 빈 땅에 장기임대주거를 허가하는 공공임대 조례 만들기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자치단체-마을(이장)-이주 기회자가 협력하여 따로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장소의 매력과 공간에 대한 감각,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하며 지역과 사람의 문제를 문화와 예술, 사람을 연결해 풀어보고자 시도했다.

사.가.지 프로젝트 중 박찬국 작가의 "삶의 특별함을 위한 보편적 해결책"

사업의 성과

▶ 2022년
총 9명 활동가 지원 (기획활동비 월 160만 원 x 8개월, 프로젝트 지원 10백만 원)
· 프로젝트 총괄 PM을 선임하여 개별 활동 지원
· 월별 공유 및 점검, 네트워킹 워크숍 개최(4월~11월)

▶ 2023년
총 20명 활동가 지원 (기획활동비 월 180만 원 x 5개월, 프로젝트 지원 10백만 원)
· 프로젝트 기획·운영하는 전남 청년(만 18세 ~ 45세 이하) 활동가(16명)
· 사업 운영과정 기록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깍두기 전남 청년(2명)
· 프로젝트 2.0 버전을 운영하는 모델링 기획자(2명)
* 최근 5년 이내 귀촌·귀농 청년 총 9명
· 프로젝트 총괄 PM 선임을 선임하여 사업 전반 디렉팅 및 참여자 컨설팅
· 월별 공유 및 점검, 네트워킹,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8월~11월)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가 지원에 적합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기존 창작지원사업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가와 재단 담당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였다. 특히 주제설정, 진행 과정에서의 실패와 사업 변경, 보조금 사용 제한 항목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2022년도 첫 사업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2023년 사업 공모 설명회를 특별하게 진행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문화예술이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참여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생각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참여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참여자 선정 심의도 참여자들과 심의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본인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참여자 모두가 양방향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며 프로젝트를 구체화를 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심의를 통해 프로젝트 운영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최대한 유연한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도 보조사업이라는 틀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활동가들의 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TIP
1. "장애예술인"이 아닌 "예술인"으로 보는 시각 필요
2.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3. 장애예술인 지원은 예술지원과 복지지원의 관점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 필요
4. 지원금 정산절차 등은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 차장 박하나 | 기획경영팀 차장 정선재 | 기획경영팀 주임 이명희

[사례 : 예술가 활동지원-2] 지역의 사회적 문제해결 위한 전문인력 <문화: 소셜플래너> 양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문화예술 전문인력 <문화:소셜플래너> 양성사업은 커뮤니티 문화와 공동체 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활동할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들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과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개년에 걸친 과정으로(1년 차 진입 과정 '리서치 지원' → 2년 차 성장 과정 '실행비 지원'), 기획에서 실행단계에 이르는 총체적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경력자 혹은 입직 희망자, 관련 전공 대학원생 등이 교육대상이며, 2021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총 48명을 양성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문화기획자 양성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는 PBL(Project Based Learning) 기반 전문가 강의와 현장방문 필드트립을 먼저 진행했다. 이어 <문화:소셜 플래너> 참여자가 직접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현안)를 발굴해 리서치를 추진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아트 플래닝을 기획했다. 사회적 현안 이슈와 문화예술 간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소셜 아트 플래닝 기획안을 완성해 나갔다. 그동안 <문화:소셜플래너>들이 발굴한 다양한 제주 지역의 사회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가족형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족 치유
√ [지역이주·노동] 1인 프리랜서, 디지털노마드 등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외로움과 번아웃 치유·회복
√ [포용적 사회] 발달장애 자립지원 서비스 사례
√ [생태·환경 감수성] 생태감수성 회복, 기후위기
√ [성인지 감수성] 제주 문화예술 포스터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결과
√ [로컬 기반 문화예술] 유휴공간의 로컬 문화 공간화 사례, 제주형 야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기획, 제주지역 전통 불미공예 활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문화:소셜플래너> 1년차(진입과정) 리서치 결과발표
(출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교육팀)

<문화:소셜플래너> 1년차(진입과정) 리서치 결과발표
(출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교육팀)

사업의 성과

제주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곳곳의 각종 문제, 갈등, 과제를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문화 예술적 발상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 특화된 인력을 양성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지역 현장으로 직접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행정 기관 주도의 정책 기획이 아닌, 민간의 <문화:소셜플래너>들에 의한 상향식(Bottom-up) 정책 제안 구조의 단초가 되었다.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 지역의 사회적 이슈 발굴 리서치 28건, 프로젝트 실행 4건
▶ 참여 전문가(디렉터, 멘토, 퍼실리테이터, 강사 등) 총 32명 참여
▶ <문화:소셜플래너> 이수자 48명, 이수자 만족도 88%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긴 호흡의 지원 필요

3년간의 사업추진 결과, <문화:소셜플래너> 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들이 실제 현장에서 소셜 아트 플래닝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3년 차 플래닝 과정 '현장실습 지원'을 신설해, 총 3개년 과정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2년 차 성장 과정까지 수료한 수강생의 프로젝트가 실제 실현되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수강생을 파견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단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제주 지역 사회문제를 '예술'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소셜 아트 플래너'들이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소셜 아트 플래너'들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지역특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소셜플래너> 1년차(진입과정) 리서치 결과 발표 현장 (출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교육팀)

<문화:소셜플래너> 3개년 추진 로드맵 (출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교육팀)

제주문화예술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세진 | 예술교육팀장 국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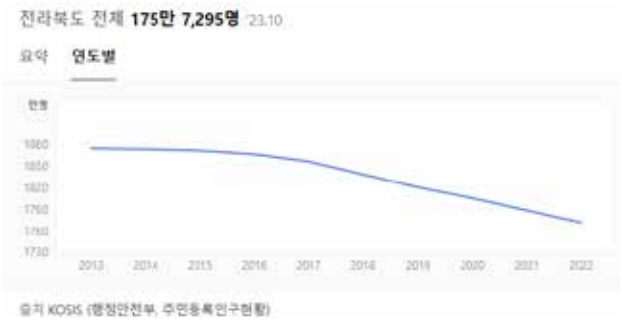
[사례 : 예술가 활동지원-3] 지역문제를 해결할 지역예술가...메세나로 지원하기 (전북문화관광재단)

존립이 위협받는 예술가들, 소멸되는 지역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예술관련 지원예산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창작활동공간 부족'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예술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유통'의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가 개인 역량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위축, 축소, 악화된 예술활동 환경은 결국 예술가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지역 내 시군 간의 불균형과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예술활동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생활지원금 지원보다 활동기회 확대 원해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사결과로 예술가들은 단순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는 활동공간(일자리)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단은 `청년'과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로 "전북 청년예술인 배달서비스"와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하반기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추진하였다.



출처 KOS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청년예술인들이 직업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기업, 기관, 병원 등 현장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예술가-재단-지역 기관이 연계되어 청년예술인의 활동공간 확대,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앞서 소개한 "2023 고창 돌우물의 바람"은 한국메세나협회-재단-예술가-지역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작가의 작품 활동 공간 확대와 함께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예술작품의 유통 지원 효과도 가져온 사례이다.

정책적 시사점 _ 지역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할 지역기업 메세나 활동 촉진 필요

전북일보 기사 (https://www.jjan.kr/article/20231016580177)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예술가-재단-지역의 매개자로서 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 확대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을 그 대응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진행하는 창작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4기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지역의 다양한 기관, 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이행과 협력한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실태조사 보고서(https://www.jbct.or.kr/post/11337)

전북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홍승광

(2) 제휴를 통한 확산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창의적 파트너십" 우사랑 (서울문화재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사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식하며 이들이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요구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기업과 협력의 매개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계도 시민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술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이 기업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확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그리고 기업의 기부와 협력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 등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영역과의 제휴협력 방식은 사회적 책임을 구현, 문화의 가치 확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_ 기업 제휴를 통한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지자체의 문화정책 전문기관을 설립할 때 문화재단이라는 법인격을 선택한 것은 기부 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창립 원년부터 기부사업 전담부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부모델 설계 연구 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기부 유치를 추진하였다. 이후 12년간 총 237개 기업이 약 140억원의 기부를 통해 재단과 제휴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로 재단은 언론사 주최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였고, 참여한 기업은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후원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도	기업명	수상내역
2023	WTC Seoul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수상
	효성화학	서울특별시 문화상 문화예술후원분야
2022	조아제약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수상
2021	신세계 L&B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수상
	포르쉐코리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후원인 대상 중견·중소기업 부분 수상
2020	효성화학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수상
	GS홈쇼핑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수상
	신한카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후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분 수상
2018	조아제약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 서울시장상 수상
2017	㈜한성자동차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 서울시장상 수상
2016	올림푸스 한국	서울특별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서울시장 표창 수상

지역문화재단들은 주로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메세나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취약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축제개최, 공공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기업제휴 범위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문화취약계층 지원, 지원 사각지대 예술가 지원 등 문화재단의 정책적 이슈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동의 비전으로 엮어내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1년에 지속가능 경영과 ESG 제휴 협력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의 6대 전환적 가치"를 정립하고, 사회/경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제휴 방향을 설정했다. 기업 비즈니스의 벨류체인 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형 문화프로젝트 기획, 문화예술 참여 및 향유 기회 확대, 지역문제 해결 혁신가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는데 문화예술이 기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2007년부터 운영해온 국내 최초 장애예술인 전문 레지던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장애예술 활동 지원의 거점역할을 해왔다. 장애예술인들이 창작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전한 창작인프라를 제공하여 장애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있다. 아울러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향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해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예술-환경을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연결한 서울문화재단의 사례, 예술로 지역을 바꾸는 3대 문화동행을 추구한 광주문화재단의 사례, 기업 기부금 사업으로 지역 청년예술가들과 시민들을 엮어준 인천문화재단의 사례를 소개한다.

정책적 시사점 _ 장애예술활동 지원을 매개로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가능성

공공정책 주체와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함께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문화예술 가치는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적절한 매개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재단-기업 제휴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다 두드러지게 내 보일 수 있는 사업형태이다. 따라서 향후 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다. 예술은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게 한다. 2022년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로 장애인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응답은 71.2%였고,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답변은 35.5%였다. 예술의 더 넓은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시책과 함께 중요한 문화정책 과제이다.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주체와 제휴협력 파트너쉽의 중요성과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효능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화재단은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융통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력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함께 해결할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창의적 해결책 찾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에 기반한 파트너십 지향의 태도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콘텐츠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2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트렌드 분석 연구 (2021, 서울문화재단)
ESG:어떻게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까? (2023, BBC News 코리아)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6, 2018, 사회적가치연구소)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효과조사 (2016, 산업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사례 : 기업제휴-1] 장애예술인 지원 <로레알코리아-친환경 창작활동지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장애예술인 발굴·지원 및 기업 메세나 활동촉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로레알코리아와 함께 2022년에 "크리에이트 유어 뷰티(Create Your Beauty)"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장애예술인 대상 친환경 예술작품 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공모로 선정된 작품은 로레알 코리아의 친환경 제품 포장 디자인으로 활용되었다. 선정된 6명의 장애예술가들의 작품은 롯데백화점 본점에 전시되어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신진 장애예술인을 발굴,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작품판로 개척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과, 사회적 가치 구현, 기업의 이미지 제고 성과를 함께 이룬 사례이다. 작품 공모 주제는 기업이 추구하는 "친환경" 가치를 담아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으로 설정하였으나, 작가들이 각자의 고유한 감각으로 자연과 환경의 의미를 펼쳐냈다. 이 작품들의 전시회 "플래닛 인 더 박스(Planet in the Box)"는 자연과 환경, 장애와 같이 주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대상화하는 시각에 질문을 던져 그 고정관념(Box)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전시관람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기획을 적용하여, 장애와 문화예술 사이의 시민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활용했다.

로레알코리아와 협력한 친환경 아트 공모전
<크리에이트 유어 뷰티> 수상자

서울문화재단 6대 전환적 가치
<문화예술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트렌드> 연구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장애예술가 지원 확대 및 인식개선

√ 문화예술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제한된 인식 개선
√ 일반화와 대상화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 장애인 예술 전시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제약성
√ 친환경 이미지로 ESG 경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

사업의 성과

▶ ㈜로레알코리아와 제휴로 6인의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 선정된 작품은 친환경 박스 패키징 디자인으로 활용

▶ 롯데백화점 본점 '플래닛 인 더 박스(Planet in the Box)' 전시회 개최
- 롯데백화점의 전시공간 후원하여 대관료 절감
- 후원사 및 고객의 작품 구매

▶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전시 진행
- 이해하기 쉬운 언어(accessible language)로 전시 설명자료 작성
- TTS(text to speech) 기능을 탑재한 전시 웹페이지 제작
- 장애인 관람자 지원 기기 대여

▶ ESG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 친환경 주제에 맞게 작품 전시 시 지류 홍보물 제작 최소화
- 친환경 소재로 전시장 구성
- 언론보도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등 총 85회), 참여기관들의 온라인 홍보를 통해 친환경, 장애 관련 인식 개선에 기여

선정된 장애예술가 작품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포장 디자인

롯데백화점 <상자 속 세상> 전시 관람 중인 시민
* <상자 속 세상>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는 작품들로 구성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로레알코리아의 사회공헌 홈페이지 내 사업 소개
(www.loreal.com/ko-kr/korea/pages/commitment/create-your-beauty/)

[사례 : 기업제휴-2] 장애예술인 지원 <(주)효성화학-굿모닝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

2023년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
예술의전당,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의 작업 세계
배리어프리 전시

㈜효성화학은 2018년부터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 강화와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장기간에 걸쳐 협력해오고 있다. 2018년 최초 기부금 50,000천원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1억원을 지원했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운영한 창작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굿모닝스튜디오>은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장애예술가들의 예술적 확장을 지원했다. 비평집 제작, 공동창작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장애예술가와 전시기획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공동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예술 현장의 최신 동향을 체득하고 기획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다. 매년 대규모 기획 전시회를 열어 장애예술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도 노력 해왔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장애예술 창작 문턱 낮추기 및 장애예술가의 역량 강화

√ 문화예술분야 기업제휴 활동의 다변화 추구
√ 장애인의 예술창작 활동 참여 문턱 낮추기
√ 장애예술계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과 인식 개선

2023년 효성과 함께하는
<내가 사는 너의 세계>
['나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타인이 사는 '너의 세계'. 그렇게 나와 너가 만나 우리의 세계를 완성해 간다.]

[사례 : 기업제휴-3] 시민대상 장애인식 개선 <(주)한성자동차-소원반디>(서울문화재단)

<소원반디>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이다. 문화예술 향유활동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문턱을 낮추자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며 진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소형 태양광등으로 '소원반디' 5,000개를 만들어 덕수궁 돌담길에 전시하는 행사로 시작됐다. ㈜한성자동차는 참여한 시민 1명당 1만원씩, 총 5천만원의 후원금을 매칭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이 후원금으로 국내 최초 공연예술분야 수어통역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총 15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이어 2021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주관으로, 이들 전문가들의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진행하도록 지원했다. 더불어 배리어프리 공연 확산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위左) 시민참여 소원반디 (위右) 덕수궁돌담길,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일대 시민작품 소원반디(약 5,000개) 전시
(아래) 공연예술분야 수어통역 양성과정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 대상 배리어프리 공연 '끼리'지원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배리어프리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 장애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 배리어프리 공연 수요는 늘고있는데 반해, 수어통역전문가 수가 제한적이며 전문교육 과정이 없음

사업의 성과

▶ 시민참여형 공공예술프로젝트 소원반디 제작에 5,000여명 시민 참여, 전시 개최 : 덕수궁돌담길 및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일대, 2019.11~12월 (언론보도 127건)
▶ 한성자동차 후원금 5천만원 유치
▶ 찾아가는 어린이 대상 배리어프리 공연 '끼리' 공연 : 회당 총 30명, 총 2회 공연
▶ 베리어프리 어린이공연 관심 예술가 대상 제작워크숍<음성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공연한다는 것의 의미> 진행
▶ 공연예술 관련 베리어프리 확산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영상 제작 및 배포
▶ 본 사업의 파트너로 ㈜한성자동차, 중구청,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립미술관 등 제휴협력 파트너 확장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과장 우사랑 | 미래전략팀 주임 동다예솔

[사례 : 기업제휴-4] 광주형 문화메세나 운동 (광주문화재단)

광주형 문화메세나 운동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과 기업을 발굴하여 후원 매개를 통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 가지 방식의 3대 문화동행으로 기부금 모금,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매칭그랜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사회문제해결 문화동행을 위한 문화기부 활성화

√ 예술로 지역을 바꾸는 3대 문화동행
√ 광주 예술인에 대한 공공지원금은 활동 예술인 수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보조금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신청 대비 24% 내외의 저조한 선정률을 보인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광주광역시로부터 출연금 7억 원을 지원받아 지속가능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광주형문화메세나운동_문화동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문화동행은 '시민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 '함께문화동행' 등 3대 문화동행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과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성과

'시민문화동행'은 기업과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는 사업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 유형에 따라 1:1 또는 1:2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사업이다. 2023년에는 총 49건을 선정하여 981,400천원(지정기부금 491,400 천원, 매칭금 490,000천원)을 지원하였다.

기업문화동행"IR-DAY"

찾아가는 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의 수익 감소와 공공지원금 축소 등 불안전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절실한 상황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메세나를 홍보하였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기업 기부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기업과 예술의 만남 'IR-DAY'" 행사를 개최하였다. 광주지역의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기업인과 잠재적 기부 가능 기업인 70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18백만 원의 지정기부금 약정과 매월 정기 후원금 연 4백만 원의 결과가 있었다. '함께문화동행'은 광주 시민 만 명이 매월 1만 원씩 정기 후원을 통하여 재단 기금 목표인 500억 원 달성을 위해 2015년에 광역재단 최초로 시작한 시민문화기금 모금 운동인 '문화보둠 1만운동'이다. 2022년까지 총 4억 2,539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1만운동 회원은 약 1,304명이다. 후원자 예우 및 리워드 제공 등은 타 기관과 유사하며 후원자 현황판을 제작하여 후원 기간에 따라 새싹(3년 미만), 나무(3년 이상 7년 미만), 열매(7년 이상)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문화동행(콰르텟노이)

문화보둠1만운동 회원 현황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기다리는 기부가 아니라 기획하는 기부

광주문화재단의 3대 문화동행은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지역 대표 기업과 시민들에게 예술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동이 지속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토대가 다져지도록 하였다. 기부금 모금을 통한 창작활동지원 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재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단순히 기업 기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기획과 홍보의 다각화 등,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계기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https://www.newsway.co.kr/news/
https://www.gjcf.or.kr/cf/culture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장 정혜영 | 창작지원팀장 박경동 | 기획전략팀 대리 김연경

[사례 : 기업제휴-5] 인천문화재단 기부금 및 메세나 기획사업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부금 사업은 순수기부와 조건부기부로 나뉜다. 순수기부는 기부자가 재단 및 인천 지역예술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기부하는 기부금이고, 조건부 기부는 ①기부자가 인천 지역예술발전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액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와 ②한국메세나협회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신청을 통한 운영(국비+기업 기부금)으로 나뉜다. 이 중 적립된 순수기부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

- 지역예술인·예술단체·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현안 해소
-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추진
-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

2023년 순수기부금 활용 기획사업

2023년 순수기부금 기획사업은 55,00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기부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현안 해소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했다. 하나는 다문화 인구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연 콘텐츠 제공이었다. 본 기획사업을 통해 인천문화재단은 다문화학교, 복지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했고 문화예술 향유 활동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접근 기회를 확장했다.

지역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놀이터 '어울림 아트스쿨'

'어울림 아트스쿨'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청년예술가들과 다문화 학생들이 만나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향유적 관점에서 다소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학기 상시로 시각예술(민화교실, 판화교실, 사진교실), 공연예술(몸짓놀이교실, 댄스교실, 타악퍼포먼스교실, 인형극교실, 밴드교실), 생활공예(도예교실, 천연염색교실, 생활소품제작교실) 등 다양한 분양의 '어울림 아트스쿨'을 운영하고 12월 초 아트데이를 개최했다. 또한 다문화 배경 시각작가들의 전시 <다양한 색과 사람들>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 시각작가들이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작품 활동을 위한 협업, 공간의 제약이 많은 현실에 주목해서 기획되었다.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를 마련하여 다문화 작가와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메세나사업 '원데이 아트투어'

메세나사업의 일환인 '원데이 아트투어'는 한국메세나협회의 기금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의 기부금을 통해 기획된 사업이다. 특히 2022년 진행한 원데이 아트투어의 경우 배리어프리를 적용했다. 시각장애인 30인을 초대하고 장애예술인을 도슨트로 섭외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과 활동범위을 확장에 일조했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지역 문화예술 가치를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기획

기부금 사업은 특히 문화예술의 가치와 사회공헌활동, 환원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우리 사회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우리 재단은 인천지역 문화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접근 기회를 확장시키고 거버넌스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기부금 사업 및 메세나 기획사업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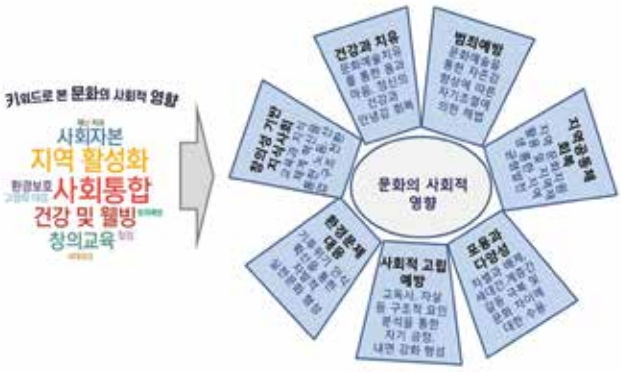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락기 | 정책협력실 차장 노수연

(2) 제휴를 통한 확산

"사회참여형 문화기획으로서 문화정책연구"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의 실질적 기능화

'문화의 사회적 영향'은 문화가치가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작동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효과를 갖는 개념으로 간주 되고 있으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실증적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국내외 문화정책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즉, 기후위기,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혁신 의제의 문제 해결에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기능은 현재 전세계 문화정책 연구의 주요 기조가 되고 있어,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지역 문화분권의 핵심 기조로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의 실질적 역할'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문화의 사회적 영향 (출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조사 연구(2021.03),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을 통한 UN의 SDGs 실천과 UNESCO의 정책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며,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지점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문화예술 지원의 당위성과 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볼수 있다. 또한 UN은 2015년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국제사회 전체의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분야는 SDGs의 17개 목표에는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국외 특히 UNESCO를 중심으로 문화 분야도 '문화의 사회적 영향' 강화를 위해 SDGs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는 2017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 보고서 'UN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후속연구와 문화예술기관의 실천전략이 부족한 가운데 제시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유네스코를 비롯한 해외 문화예술기관들의 다양한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8년 'Culture for the 2030 Agenda'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람(PEOPLE), 세상(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5가지 분야(5Ps)에서 문화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설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최근 'Reshaping Cultural Policies (global report 2018)'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정책 재구성의 목표 추구를 SDGs에 연계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SDGs 17개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쉽(17)'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_ 문화정책전문 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정책연구기능 강화

한광연에서는 2022년 공동연구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연구"에서 당면한 미래 이슈에 대응하면서 광역문화재단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천할 5대 변화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미래 이슈에 대응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계 활력 제고"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경험, 데이터, 현장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였다. 지역의 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에 요구되는 정책연구 기능이란 단순히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형 문화기획으로서 문화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도 광역문화재단의 협의체인 한광연 차원에서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회원기관 직원들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공동연구이다. 부산문화재단은 "사회문제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조사 연구"(2021.03)에 기반하여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툴킷"(2021)을 발간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전 세계 문화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함을 확인 하였으나, 여전히 예술가(단체) 및 수혜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개념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못했다. 특히 지역 내 담론 형성이 부족해 소외계층 문화 불균형 해소나 사회참여 예술로 국한해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한 국내외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부산지역 예술활동 관련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구조를 제안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한 부산지역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공유해 문화예술의 실용성과 지원효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문화예술 활동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적 시사점 _ 경험공유의 장, 정보 공유의 플랫폼 필요

국내에도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가 있으나, 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과 예술가(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창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 등으로 예술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 문화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인식 제고와 함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정립 및 확산 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SNS를 활용한 비대면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사회적 예술 활동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다각적인 매체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광역문화재단은 사회문제 해결에 문화예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대를 위한 애드보커시의 중심의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2021.03,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2022.09)

국가	연구	예술의 사회적 영향 분류
미국	the Arts + Social Impact Explorer	• 사회 기반시설 (Infrastructure) • 혁신 (Innovation) • 교육 (Education) •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 외교 (Diplomacy) • 문화유산 (Culture & Heritage) • 건강과 복지 (Health & Wellness) • 종교 (Faith) • 환경 (Environment) • 경제 (Economy)
프랑스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 culture, arts and development	• 지역사회레벨 수입 (Community level) • 범죄 감소 (Crime reduction) • 시민 교육을 위한 여가시간 (Leisure time for citizenship education)
영국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 예술과 건강(Arts and Health) • 예술과 웰빙(Arts and Wellbeing) • 예술과 범죄(Arts and Crime) • 예술과 사회자본 (The Arts and Social Capital) • 예술과 교육(The Arts and Education) • 예술과 복합적 영향(Arts and Multiple Impacts) • 사회변화의 촉매로서의 역할(The Arts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 도시재생(Regeneration)
캐나다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 문화,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개발(Culture, sustainabil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 문화, 웰빙과 사회적 결합(Culture, wellbeing and social cohesion) • 문화, 소통과 참여(Culture, connectedness and participation) • 문화와 시민의식(Culture and citizenship) • 문화와 건강, 교육(Culture and health/education)
호주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ARTS, WA	• 3가지 소셜 아웃컴(Social Outcomes)분류 • 건강(Health)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교육(Education)
일본	社会課題の解決に資する文化芸術活動の事例に関する研究調査	• 도시 지역 브랜딩, 관광산업 진흥, 산업 진흥 • 유휴 건물 활용, 청년들 전입 증가, 낙후된 지역 이미지 업 지만 회복 유지 • 마음의 케어, 건강 증진 • 개인 존재의식, 정체성 확인 • 사회적 포용력 •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육성

해외의 예술의 사회적 영향 관련 연구 및 주요 내용 (출처: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사례 : 정책연구-1] 부산문화재단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은 사회문제해결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문제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조사 연구"(2021.03),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툴킷"(2021)을 시리즈로 발간했다.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국내외 동향과 의미 공유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회적 문제해결 문화정책으로의 기조전환과 관련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 주체들이 우선 사회문제해결형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예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7가지 영역으로서 "1.건강과 치유, 2. 범죄예방, 3. 고령화대응, 4. 사회적 고립예방, 5.환경문제 대응, 6.포용과 갈등해결, 7.지역공동체 회복"을 제시했다.

(출처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연구』(조정윤 외, 부산문화재단, 2021)

지역문화예술 활동주체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 제공

부산문화재단은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에 보다 친숙하게 사회문제해결형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향과 방법론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tool-kit)』(2021)을 발간하였다. 이 툴킷은 딱딱한 연구보고서 형식에서 탈피해서 "1. 국가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2.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알고 싶어요"와 같이 예술가 입장에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담았다. 특히 "5. 부산에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사례가 있나요?", "부산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와 같이,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들이 자기 삶의 터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도록,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부산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지역의 활동주체들을 넛지(nudge)하는 정책연구 필요

공공정책 주체가 주도하는 사회문제해결은 그 파급력과 영역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들이 사회적 문제해결형 문화사업에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주체들의 행동을 공공정책 주체가 보이지 않게 넌지시 유도하는 접근법(nudge)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형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는 활동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조사연구와 툴킷 발간과 같은 정책연구가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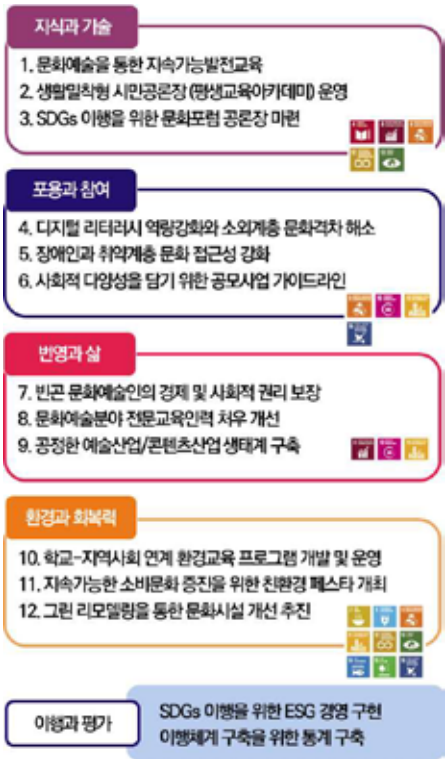
[사례 : 정책연구-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인천 문화정책 연계 방안 연구 (인천문화재단)

연구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천 문화정책 연계방안 연구 :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의 당초 제목에는 부제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가 없었다. 경영평가를 위한 ESG 전략의 본격 추진 이전, 2021년에 본 연구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2022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그간 추진해 온 각종 문화정책 수립과 예술지원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로부터의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습관적인 화두로 '발전', '성장', '활성화'를 말하면서 그게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관성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인천문화재단뿐 아니라 기초문화재단에, 인천 문화예술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연 이대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문화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체계 수립

2022년 1월에 정비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과 UN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추진을 위한 「인천 78개 지표」 내 사회 분야에 포함된 문화영역 지표는 도서관 수, 공연·전시개최 건수 및 관객 비율, 문화단체 수 등 정량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미래 문화환경을 대비하는 지표로는 미비한 수준이라 판단했다.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위기사회에 대응하고 자연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의 환경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표와 관련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원동력이라는 전환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와 이에 적합한 정책적 실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천 문화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시작이다. 당초 설계한 구조는 인천의 SDGs 이행환경 분석 및 현황조사, 국내외 SDGs 관련 문화정책 이행현황 분석, SDGs 항목별 인천 문화발전 계획 수립, 인천 문화정책 로드맵 및 실천 방안, 실행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이해관계자 대상 지침, 실현 방안이었다. 문제는 각종 사례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개발, 평가지표 및 실행력 제고 방안까지 수립하기에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인천은 매우 방대한 곳이라는 점이었다. 위 주제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에게도 기간과 예산과 연구의 양을 생각하면 아무리 심화 수준의 연구가 아니라고 해도 무리였다. 중간보고회와 회의를 거쳐 과업을 일부 수행하고 1단계로서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먼저 설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4개 영역별 지표로 지속가능한 문화발전 패러다임 구축



인천문화재단의 전략목표와 사업들을 SDGs 지표들과 연계성을 분석한 후, 유네스코 문화2030 지표에 따라 4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실천 계획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다. 이는 비단 인천뿐 아니라 다른 문화재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틀거리라고 본다. 각 항목 별로 현 사업과의 연계성을 파악한 후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데 전제로 반영한다면 지속가능한 문화발전 패러다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WCCF 2023 서밋에서 채택된 "상파울루 선언문"(A Goal for Cultuyre : São Paulo Manifesto)
(출처 : http://www.worldcitiesscultureforum.com/assets/others/WCCF_SAO_PAULO_MANIFESTO_TRANSLATIONS_DIGITAL.pdf)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락기 I 정책협력실 차장 노수연

(4) 영향 및 변화 연구

"긴 호흡으로 관찰하고 계측하기"

손지영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의 역할 요구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의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확산됐고, 1990년대 후 국내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지역문화재단 출범이 확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 가치와 그 가치 발현이 어떤 영향을 줄까?

영국 바비칸센터 '문화적 창의력 교육' (출처: bg772 blog)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예술이 창의성·인성·감성 개발 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예술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여전히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사회학자 William Hoynes(2003)는 "문화예술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왜' 그리고 '어떻게' 문화예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문화예술 가치와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프로젝트마다 영향과 효과의 지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효과성 연구들이 단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문화예술 가치 발현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연구한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2022)」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가치 발현의 증거

문화예술 가치 발현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효과" 내지는 "영향"으로 확인될 것이다. 그럼, 문화예술 효과측정은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영역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문화예술 향유와 지원의 당위성 때문일 것이다. 조금 더 의견을 보탠다면 수요자 필요와 욕구에 맞는 사업개발과 사업개선을 위함일 것이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있을까? 매해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와 필자가 소개하려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요 사례인데,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 '개인심리적', '대인관계적' 차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지표를 개발했다. 그 지표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예술교육 효과정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너나할 것 없이 예술교육 수요자의 삶에 영향이 있고 효과도 컸다.

구분	효과 정도
유아	문화수용력, 공감능력, 소통능력 증가
아동	자기조절, 자기표현, 문제해결력, 창의성 증가
청소년	자기조절,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증가
성인	문제해결력, 자기표현, 자기조절 증가
노인	자기조절, 자기표현, 문화수용력, 행복감 증가

대부분 예술교육 참여자는 자기조절, 자기표현,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명확하게 자리 잡았지만, 조절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예술교육을 통해 자기감정조절 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그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문화예술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에서도 문화예술 활동경험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처럼 애당초 사회적이지 않은 문화예술은 없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은 문화정책도 없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누구나 인식하고 접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정책적 시사점

문화예술 '가치'와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 효과를 측정하는 일회성 연구가 아닌 추적조사 또는 종단연구 등을 통한 장기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문화예술 가치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효과성 연구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Davis,J.H. 백경미 역(2013),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서울:열린책들
설연경(2013), 문화예술활동기반 교육의 의미와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과의 관련성 탐구
고경화(2003),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서울:학지사
손지영(2022), 공연예술 관람경험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2023.9월호),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사례 : 영향 및 변화평가-1]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술교육 (충남문화관광재단)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학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함에도 불구,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현저히 낮으며, 자신의 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외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남은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했다.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충남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됐다.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예산 : 4천만원
- 사업대상 : 학교 밖(위기) 청소년 및 그 가족
- 사업방식 : 대전가정법원 협력(수혜자 연계) 운영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

학교 밖 청소년 자신과 그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행복감이 결핍되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심각한 청소년 일탈 문제를 '예술'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해 2백여 명씩 서서히 증가하면서 2019년도 4,626명으로 발표됐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재단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도 우리 모두의 아이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기의 연령적 특성에 적합하게 기본적 권리와 생활여건을 보장하고자 했다. 그 도구로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을 지원했다. 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표현한 피드백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어제 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저와 아이의 관계설정에 도움을 주었고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 ○○아빠입니다. ○○이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이가 매우 긍정적으로, 밝은 아이로 다시 태어나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은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했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생각과 힘을 회복하도록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예술'을 통해 되찾았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힘' 아닐까?

사업의 성과

▶ 수요자 연계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대전가정법원 ↔ 충남문화관광재단)
▶ 가족단위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로 관계회복
▶ 청소년 자존감 회복, 정서적 치유, 사회적 역할인지
▶ 학교 밖 청소년 참여율 및 만족도 상승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자	46명	70명	360명
만족도	88.3점	91.78점	미완료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찾고자 했으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9)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전부였다.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집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 사업설계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진로지원, 학력인정제도 등의 다종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선 정책수요자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여성가족부(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대전일보(2022), 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 연1천만 원, 학교 밖 청소년은 54만 원?

2023년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운영 (출처: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미래정책팀장 손지영

(5) 기관 경영기조 전환 "사회적 가치실현을 향한 기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노수연 (인천문화재단)

기관 경영전략 차원에서의 사회적 가치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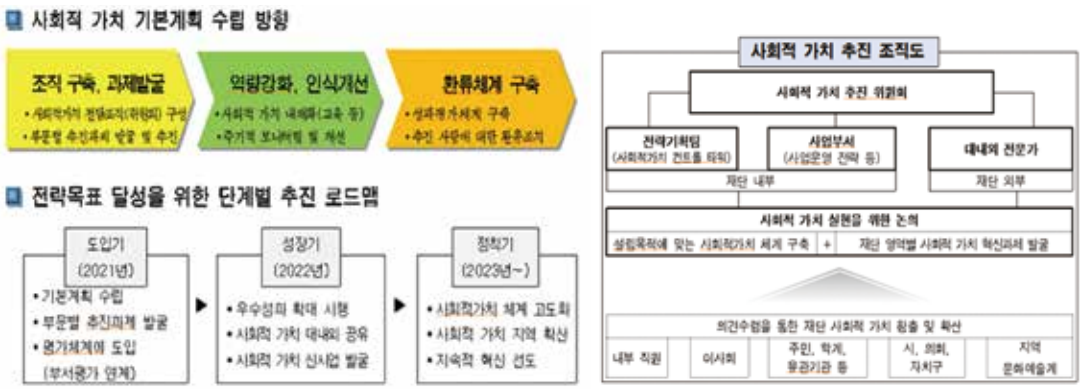
ESG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공공가치 구현을 담당하는 문화재단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체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문화재단이 앞서 소개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의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구현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재단이 수행하는 개별 사업들이 모두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기본 철학에 기반하여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기조로서 이를 천명하고 전사적 경영관리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
2004년 12월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은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의 문화예술활동과 도서를 지원하고,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AALA) 문학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기획사업,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미얀마 난민의 활동을 선정, 지원하는 등의 계기적이고 산발적인 사회적 가치 연관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계기적이고 산발적인 사업은 성과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시행과 폐지가 반복됨으로써 재단 차원의 목적의식적인 기획과는 거리가 멀었다.
창립 10년을 거치면서 재단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여러 환경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노사간 갈등에서는 지역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듣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2006년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이후 끊겼던 인천광역시 내의 기초문화재단 움직임이 2015년 이후 이어져 2017년 서구문화재단, 2019년 연수문화재단, 2021년 중구문화재단, 2023년 남동문화재단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이런 배경 아래서 2020년을 전후해 재단의 면모를 일신하고, 주변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경영체계와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2021년에는 대표이사 직속의 임시기구로 "미래전략TF"를 설치하여 ① 재단 혁신안(2019.08.25.), 혁신안 실행협의체 결과보고(2019.11.29.), 재단 중장기발전용역 최종보고서(2021.02.22.)의 실천방안 마련, ② 기초문화재단의 증가, 문화다양성,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새롭게 대두되거나 강조되는 현상에 대한 재단의 대응 및 사업 내재화에 대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역문화재단의 대응 _ 인천문화재단 사례

인천문화재단의 사례는 사실상 재단의 경영전략 차원에 "사회적 가치"에 주목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미래전략TF에서는 ○ 노동시간 과잉과 경제 양극화의 심화, ○ 재난과 위험사회의 전면화, ○ 혐오와 집단 갈등의 확대, ○ 문화다양성 인식 및 분권의 확대, ○ 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 ○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확산,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요구 증대 등의 일곱가지를 재단을 둘러싼 넓은 의미의 환경변화로 설정하고 각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단의 미션, 비전, 전략체계 마련을 시도했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요구 증대"는 사회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확대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전략목표 중 하나로 "미래대응 경영 실현"을 제시하고 해당 전략과제 중 하나로 "협력 · 상생 가치 실현"을 설정했다.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업무로는 ① 능동적 사회적가치 실현, ② 인권 기반 투명경영 추진, ③ 체계적 제도개선 진행을 제안하여 "사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재단의 경영전략에 포함하도록 했다.
"능동적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핵심업무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재단 사업 전반에 실질적으로 작용토록 하기 위한 노력도 즉시 이루어졌다. 경영본부 전략기획팀에서는 2021년 8월에 "2021년 인천문화재단 사회적 가치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① 전담조직으로서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② 재단 경영목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 과제 발굴,
③ 재단 설립목표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 시범사업 운영을 주요업무로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른 경영전략 실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을 도입기로, 2022년을 성장기로, 2023년 이후를 정착기로 상정한 위 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형태로 재단 직원 3인, 재단 노조 추천 1인, 외부 전문가 3인, 업무담당자 1명 등 총 8인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 위원회를 전담조직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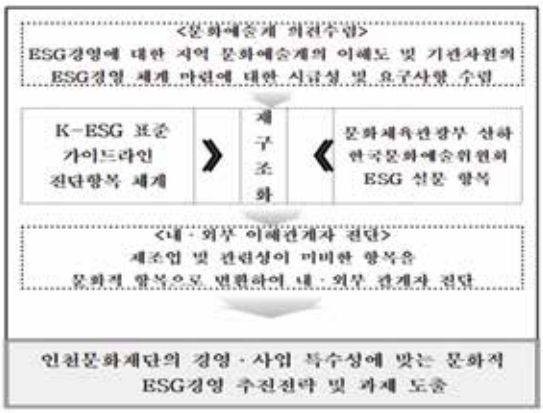
<표 2> 인천문화재단 사회적 가치 추진 조직도

인천문화재단 문화적 ESG경영 선언문

2021년 11월에는 "2021년~2022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인천문화재단 혁신체계 및 과제"를 성안하여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 재단이 추진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명확화 필요, ○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내부 체계 설정(실행 조직 및 업무), ○ 부서별 사회적 가치 추진과제 도출 및 종합계획 수립, ○ 사회적 가치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프로세스 명확화(평가 및 환류), ○ 임직원 사회적 가치 내재화 및 사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등의 5개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적 ESG 경영

이어서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전략체계를 <표 3>과 같이 목표, 전략, 핵심가치, 중점 과제로 구성하고, 총 42개의 추진 과제 목록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2021년 11월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조사 및 리서치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성장기로 설정한 2022년 8월에는 "2022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한 ESG경영 체계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와 ESG경영의 지표중복 방지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두 분야를 통합운영하기로 기획했다. 아울러 기존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ESG경영을 선포할 경우 재단의 경영목표와 연계성이 부족해 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문화적 ESG경영을 선포해 차별화된 ESG경영체계를 실현할 계획을 세웠다. 2022년 10월에는 '2022 사회적 가치 내부추진위원회'와 "인천 광역·기초문화재단 ESG경영 연합간담회"를 구성해 3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여 K-ESG경영 항목에 대한 진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과제리스트 중 재단에서 실행가능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또 ESG경영 체계의 내재화 방안으로 "평가체계 장치 도입"과 "사전준비 및 사업관리 우선실행"을 제안했다. 11월에는 <표 4>에서 보는 의견 수렴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진단 등을 거쳐 재단의 및 ESG경영 과제를 발굴했다.



<표 4> 인천문화재단 사회적 가치 추진과제 도출과정

다른 한편으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에 의뢰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천 문화정책 연계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영전략체계로서 ESG가 갖는 의미에 착목해 재단의 실천과제와 계획을 도출했다. 이상과 같은 모색과 준비는 2022년 12월 7일 Cultural-ESG경영 체계 및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12월 8일 재단 창립기념식에서 "문화적 ESG경영 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개되었다. 2023년에는 2월과 10월 상 · 하반기 각 1회씩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Cultural-ESG경영 내부 중대성평가"를 진행했고, 2022년에 이어 인천 관내 광역 · 기초문화재단 6개 기관이 참여하는 ESG경영 연합간담회를 계속하여 모두 4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다. 그 성과로서 문화다양성의 날(5/21)주간에 인천 내 4개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재단별 문화다양성 연계 문화예술교육 캠페인 "우리 사이는 제로 사이다"를 진행했다. 또 3월부터 10월까지 재단 내부 행사에 다회용기를 지참한 행사 참여자에 한해 음료를 제공하는 찻찾차(찻잔을들고 찾아오면 차를 주는)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인천지역문화재단 공동의 ESG 가치실현을 위해 자원순환, 협력, 가족친화 의의를 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건들 " 바자회행사를 10월에 개최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구조적 실천을 위해서는 매월 각 부서별 ESG추진현황 파악해 차년도 과제 개편에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_ 기관 구성원들의 참여가 관건

직원의 이해와 참여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ESG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2022년에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계를 위한 ESG경영의 이해"라는 주제로 10월에 1회, 2023년에는 10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2023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ESG의 이해"라는 직원 교육도 실시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을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각종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사업 재편을 통해 실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재단을 둘러싼 내 ·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중장기적 전망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계획의 수립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여에 걸친 인천문화재단의 활동은 시작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내부의 수용성을 높이고 외부의 공감을 얻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마음으로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5년, 10년 후에는 작은 성과라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재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 : 기관 경영기조 전환-1] 문화적(Cultural)-ESG 경영계획 수립 (인천문화재단)

Cultural-ESG

재단의 비전과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과제가 반영된 인천문화재단만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실현하고자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뜻하는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Cultural을 덧붙여, Cultural-ESG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대내외 환경

2023 경영평가 개편 사항에 공공기관 ESG 공시강화 등 국가 단위에서 ESG 경영제도화와 공공영역의 ESG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역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의 시책 협력을 위한 연구모임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에서도 매해 공공분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관 맞춤형 ESG 경영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Cultural-ESG경영 선포

인천문화재단은 Cultural-ESG경영 선포를 위해 ①사회적 가치 연계사업 모니터링, ②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내외부 ESG 경영 교육, ④1차 중대성 평가 등 준비단계를 거쳐 ESG 과제 항목을 도출했다. 먼저 환경(E)에서는 환경경영 추진체계, 예술생태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전을 위한 기반 제공, 예술생태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전을 위한 체계 마련, 친환경적 문화공간 시설물 관리, 사회(S)에서는 사회분야 목표수립 및 공시, 문화예술계 공정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시 다양성 제고, 지배구조(G)에서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다양성, 유관기관 소통, 공시 및 경영 투명성, 문화예술계 소통의 과제 항목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2022년 12월 8일 사회적 책임 환류 Cultural-ESG 경영을 최초로 선포했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직원들이 경영기조를 내재화하는 노력이 중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도 이를 내재화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중대성 평가를 통해 차년도 ESG 방향성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함은 물론이다. 이외에도 부서의 월별 사업추진현황에 ESG 연계성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종 캠페인을 시행하며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환류를 지속하고자 한다.

<도출과제 항목별 매칭사업 및 부서>

영역	도출 항목	매칭 부서	매칭 사업 내용
E	환경경영 추진체계	전략기획팀	추진체계 구축 및 캠페인 활동
	예술생태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전을 위한 기반 제공	트라이보울, 아트플랫폼, 청년문화팀	예술활동 과정의 기후위기 관련 기획
	예술생태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전을위한 체계 마련	창작지원팀, 지역문화팀, 인천예술인 지원센터	지원사업 평가체계 내 환경가치 적용 기후예술 현장 역량강화
	친환경적 문화공간 시설물 관리	트라이보울, 아트플랫폼	친환경 홍보물 제작 친환경 자재 활용 문화공간운영
S	사회분야 목표 수립 및 공시	전략기획팀	사회분야 목표 수립 및 공시
	문화예술계 공정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인천예술인 지원센터	문화예술계 권익보호 체계 운영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정책협력실	지역문화예술계 사회공헌 사업 운영
	지원사업 운영 시 다양성 제고	창작지원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다문화·장애인·취약계층·로컬리티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
G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다양성	전략기획팀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유관기관 소통	정책협력실	지역문화재단 협의체 및 연합회 운영
	공시 및 경영 투명성	전략기획팀	연차보고서 발행 경영공시
	문화예술계 소통	인천예술인 지원센터, 창작지원팀	사업결정과정의 예술인 의견 반영 간담회 등 문화예술계 소통 및 상시적 협치 구조 확보 문화예술계 고충·민원 처리 등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락기 | 정책협력실 차장 노수연

[사례 : 기관 경영기조 전환-2] ESG 내재화 (광주문화재단)

최근 시대적 흐름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E)·사회적 책임(S) 문제의 해결 노력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거버넌스(G, 지배구조) 모델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정 및 시정 방향 역시 지역문화다양성 및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정책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관의 역할 수행도 요구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ESG경영 실천과 ESG가치 확산 노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법 모색이 절실한 시점임을 공감하고, 재단 내부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해결하고자 한 문제 _ 형식적이지 않은 ESG 경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광주문화재단 ESG내재화 프로젝트는 기관의 ESG경영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ESG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단순히 경영 트렌드 차원이 아닌, 재단 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ESG내재화 프로젝트는 ESG경영 과정 중 'ESG에 대한 이해 증진'과 '조직 전반에 걸친 통합을 위한 관행 구축(ISO26000_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1)ESG경영 이해를 돕는 교육 및 워크숍을 바탕으로 환경(E) 영역에서 시도할 수 있는 (2)캠페인, (3)핵심 이슈 확산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ESG내재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사업의 성과

- ESG 경영 이해 교육: 1회

  ESG경영 등장 배경과 공공기관의 ESG 대응전략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시행했다.
- ESG 자가 수준진단을 통한 팀별 워크숍 : 총12회

  ISO26000, GRI지표, K-ESG가이드라인 바탕으로 지표를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 직원이 ESG관련 지표를 고찰하고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특히, '의사결정구조'와 '조직관행 혁신'차원에서 유의미한 발견을 도출하였다. 본 워크숍을 통해 직원 90%는 ESG 이해도가 상승하였고 '동기 유발 촉진'에 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ESG전략 수립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 ESG실천과제 캠페인 <에코마일리지이벤트> : 10회

  전 직원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과제를 실행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 <에코마일리지이벤트>는 직원이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걷기, 텀블러 쓰기, 채식하기 등부터 시작하여 각 사업에서 주제프로그램 운영, 친환경제품 구입 및 제작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마일리지 적립, 매달 각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 문화예술계 기후위기 대응문화 확산 노력 : 2건

  임직원의 자발적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노력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계의 움직임을 읽고 기후위기 대응문화를 확산하고자 유관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e순환거버넌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약을 통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미디어, 전자제품·전자기기를 회수하여 친환경폐기 및 재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여 또 다른 사회공헌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주시민방송과 함께 <어몽컬쳐쓰>를 기획·제작하여 총 40회의 지역문화예술계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아카이브하고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공유하고 싶은 교훈 _ 중장기적 관점으로 변화 관리 필요

ESG내재화 프로젝트를 1년간 진행하였다고 해서 ESG경영을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표면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 스스로 시대적 흐름에 대해 '그린워싱주의'를 경계하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ESG가 경영전략으로서 기관의 비전-목표-전략-추진사업과의 연계하여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재단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현장(사회/예술계)과 교감(이중 중대성)하고자 한다.

더 참고할 만한 자료들 <어몽컬쳐쓰>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Q2be3BFaD7xyDNRYhWsbd3MdUM52tlxS&si=7-93x0lVY6P07og1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장 정혜영 | 창작지원팀장 박경동 | 기획전략팀 대리 김연경

문화
예술
정책
사회적
이슈
가치
전환
Social-Turn

.

.

IV.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지역문화재단들이 지금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1) 세 가지 유형으로 종합되는 문화정책의 사회적 문제들

- **문화정책이 다루는 사회적 문제들은 <사회 전반에 관한>,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대 문화정책의 중점기조를 표방하는> 요소임**
  - 이렇게 선택된 사회적 문제들은, 앞서 살펴본 사회문제해결의 개념과 정책적 동향, 지역문화재단들의 대응 실태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이라는 말로 주로 <❷문화예술로 해결 실마리를 찾거나 완화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몇몇 사례에 관심과 환호를 보내지만, <❶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와 <❸기술과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주목해야 함.

-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화서비스의 디지털전환(DX)>,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도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파악되어야 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소외와 예술가의 생존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심화되는 문화예술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대응하고, 첨단기술이 바꾸어 놓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패턴과 눈높이에 맞게 공공문화서비스를 혁신하는 것도 사회문제해결형 접근법임.

(2)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성

-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과 활동영역 확대 기회로 활용**
  - 다른 정책영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으로 기업 및 타 정책주체들과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 뿐만 아니라,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오래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은 문화정책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함.
  -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 문제 등 ❶번 영역은 문화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
  - ❸번 영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공공문화서비스를 혁신해야 할 과제임.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소개된 지역문화재단 사업 사례들 (사업영역 및 해결방법별 사례 포함)
세 가지 유형	세부 과제	
❶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	-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복지 향상 - 문화서비스의 역진성 해소 - 예술과 예술가의 생존 - 문화다양성 사회 대응, 등 <문제해결 접근법> - 영향 및 변화 평가 연구로 사회적 문제 관찰하기	**<문화다양성>** - 의정부 기지촌 '빼뻘마을' 재생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 평택 기지촌 여성 평화 박물관 '일곱집매' 경기문화재단) **<문화접근성>** - 청년예술 쿼 서비스 (전북문화관광재단) - 배리어프리 예술강사 양성 (광주문화재단) -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강원문화재단) **<영향 및 변화 평가>** -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술교육 (충남문화관광재단)
❷ 문화예술로 해결 실마리를 찾거나 완화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문제	-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 치유 - 육체건강 및 치료효과 증진 - 청소년 및 가족 문제 치유 - 사회적-문화적 갈등 해소 - 소수자 인식개선 및 혐오 해소 - 지역재생 및 활력 제고 - 지방소멸 대응 - 창의력 증진 - 국제평화 및 교류증진 - 범죄예방 - 공동체 회복, 등	**<청소년 문제>** -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문화예술교육, 가사재판가정 치유캠프 (충북문화재단) - 꿈의 오케스트라 (대전문화재단) **<환경문제>** - 비치코밍(Beach Combing) (부산문화재단) - 고창 돌우물의 바람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활력>** -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❸ 기술과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혁신	- 문화서비스의 디지털전환(DX)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문화서비스 개선(1인가구, 고령화) 등 <문제해결 접근법> -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지원, 기업제휴 등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서비스 혁신 및 확산 - 기관 경영기조 전환을 통한 혁신 - 정책연구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문화기획 지원	**<예술가 활동지원>** - 사회적 가치 지향 청년프로젝트 (전남문화재단) - 지역의 사회적 문화해결 위한 전문인력 <문화:소셜플래너> 양성 (제주문화예술재단) - 지역문제를 해결할 지역예술가...메세나로 지원하기 (전북문화관광재단) **<제휴를 통한 확산>** - 장애예술인 지원 <로레알코리아-친환경 창작활동지원> (서울문화재단) - 장애예술인 지원 <(주)효성화학-굿모닝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 - 시민대상 장애인식개선 <한성자동차-소원반디> (서울문화재단) - 광주형 문화메세나 운동 (광주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기부금 및 메세나 기획사업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 (부산문화재단)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인천 문화정책 연계 방안 연구 (인천문화재단)

2. 확대에 필요한 조건들 _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 (Social-Turn)[16]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 (Social-Turn)	
❶ 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	① 칸막이 없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칸막이를 넘어서는" 문화행정
	② 성과를 자랑하는 "만능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개입의 적절성을 고려하며 "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공감자"의 태도 견지
	③ 문화예술의 가치를 주창하는 리더십 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용하는 파트너십" 지향
❷ 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	④ 정책성과가 아닌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긴 호흡으로 측정하고 관찰하기"
	⑤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실현되는 "문화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⑥ 다양성이 커지는 사회구조와 첨단기술 변화에 편승하여 "사회변화 맞춤형 문화서비스로 혁신하기"

(1) 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

① 칸막이 없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칸막이를 넘어서는" 문화행정

- 행정의 칸막이로 구분된 접근방식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사회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
- 특히 코로나 이후 사회적 회복을 위한 문화정책의 노력에서 기존의 관행과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력 필요성이 강조됨.
- WCCF가 코로나를 겪고 발간한 『World Cities Culture Report 2022』 (『세계도시문화리포트』) (WCCF, 2022)에서는 세계도시들에서 코로나 회복을 위해 문화를 중심에 둔 "미션기반 접근법(Mission-led Approach)"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정책 스펙트럼의 관점에서의 전문 지식, 리소스 및 아이디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21세기에 해결된 난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학제 간 접근법에 따른 것일 것이다.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단일 정부 부처는 없다."***
> - Bruce Katz (New Localism Associates 공동 창업자 및 Nowak Metro Finance Lab 대표)
>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코로나-19 시기의 문화 _ 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 (유네스코, 2022) 중 발췌

② 성과를 자랑하는 "만능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개입의 적절성을 고려하며 "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공감자"의 태도 견지

- 최근 정책 기관들이 나서서 강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은 언론에 회자되는 사회문제에 편승한 성과경쟁의 측면이 보이고, 오히려 문화접근성 확대, 예술가의 생존 등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본질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음
- 사회문제해결을 통해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공적 개입의 부작용을 외면하며 "만능 문제해결자"의 태도를 취하기 쉬움.
- 하지만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문화예술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해당 영역에서 문화의 역할 설정 시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인구를 위한 문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지, 반대로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매력 높이기를 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에 봉착함.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해결의 방향성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임.

16. 사회학 연구에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경향에 대비하여, 문화정책의 기조 변화로서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라는 개념을 제안함. 1970~80년대 사회학 연구에서 예전에는 주로 사회구조적, 경제적 측면을 분석했던 접근법에 대비해서 의미와 다양성 등 문화적 요소에 관심을 가졌던 흐름을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고 불렀음.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은 사회계층과 구조적 관점에서 기존의 문화정책 이슈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동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조응하는 문화기획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임. 예전에는 불가결한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다소 시혜적이며 부가적인 공공서비스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접근법으로 특화된 문화사업을 펼치는 정책 접근법을 지칭하고자 함. 이런 문화사업에 따른 사회적 변화 파악에 의미와 가치 해석 중심의 접근법 보다는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문화정책 연구도 아울러 "사회적 전환"이라고 칭할 수 있음.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은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 - 과학에서 미학으로 되살아난 고전 사회학』(최종렬, 살림, 2009) 참조

- 오히려 문화예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당사자>인지, <완화에 기여할 조력자>인지, <대중적 관심을 유도할 촉매자>인지 적절히 입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③ 문화예술의 가치를 주창하는 리더십 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용하는 파트너십" 지향

- 사회복지, 공중보건, 평생교육 등 타 공공정책영역 주체들과의 협력, 기업 등 영리 영역과의 제휴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규모의 확대(scale-up)와 함께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spill-over)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때 문화예술의 가치와 정책적 리더십만 주장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타 영역과의 협업을 오히려 어렵게 함.
- 제휴 전략을 통해 기존 문화사업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문화예술의 융통성과 창의성이 여러 공공정책 영역 간 협업을 촉진하는 콘텐츠와 매개자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이를 위해서 해결할 사회문제를 함께 선정하는 공감대 형성과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적 태도, 자원을 공유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

(2) 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

④ 정책성과가 아닌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긴 호흡으로 측정하고 관찰하기"

-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의 평가지표 설정 시, 사회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책 개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의 변화는 정책의 영향 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더 크게 영향받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성과관리에서 자유로운 문화지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문화통계를 관리해야 함.
- 문화통계 이외 다양한 사회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정책으로 전환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여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 문화인프라의 성격 반화를 반영하도록 문화향유실태조사와 문화지표조사 등 문화통계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함.
- 엄격한 통제로 빠른 사회문화 변화양상 파악에 부적절한 승인통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생활 패턴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 : Hand Book』(문화의 사회적 차원 측정 핸드북) (Transit Projectes, EU, 2023)**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사회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2020"의 펀딩으로 유럽 7개국 10개 파트너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음

· 사회적 맥락과 기술변화와 연관 지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 설명이 인상적

√ 문화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Cultural activities do not occur in a vacuum)

√ 문화활동의 영향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그것이 경제적, 영토적, 사회적, 상징적 영향으로 나타남을 인식함

√ 기술 혁명(디지털화 및 인터넷)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 제작, 배포 및 접근 비용을 크게 감소시켰고, 그 결과 문화활동의 가치는 점점 더 사회적 상호 작용과 그것이 유발하는 의미와 경험의 변화 따라 결정됨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기반하여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

√ 영향(impact)은 모호한 개념으로서, 다소 주관적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개인 또는 그룹)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영향 평가는 항상 개입(intervention)의 정도와 관련 있지만, 개입 없이도 변화는 항상 일어나므로 개입이 변화를 유발했다고 주장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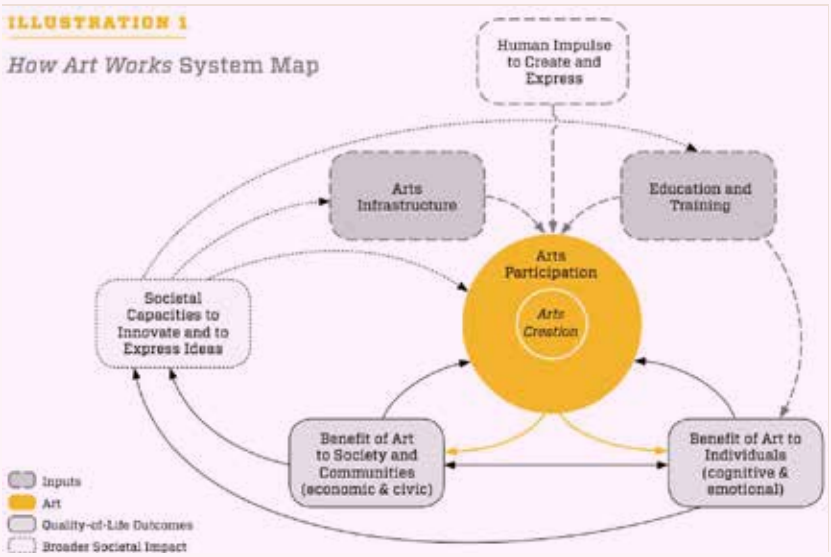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측정 인공지능 도구 모음인 "MESOC Serapeum"

⑤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실현되는 "문화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정책이 주도하는 공공영역 보다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만들어져 공공정책의 기획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음.
- 문화생태계에서 가치가 생성되고 순환되고 소비되는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적절한 정책개입의 위치와 깊이를 정할 수 있음
- 그리고 정책주도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조 기조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사실 예술가들은 언제나 정치적 억압, 사회불평등, 국제평화, 소수자 권리보호 등 사회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사회 참여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변화를 주도해왔음[17]
- 반면, 소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을 위해 공공정책에 의해 동원되고 순치된 예술에서는 주체적으로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기대하기가 힘듦.
- 스스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 고유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접근도 중요함.

▷ 『How Art Works?』 (NEA, 2012)

- 미국의 NEA가 2012년에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을 적용하여 예술생태계 안에서의 가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고자 진행한 연구
- 예술이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시스템 맵(system map) 방식으로 표현하였음
- 이런 접근은 단기적인 효과 "측정"에만 목을 매는 연구보다 장기적 변화를 통해 발현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됨.



예술생태계 시스템 지도(system map) 출처 : NEA(2012)

17.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8월호 참조),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_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서울문화재단, 2021.3.29. 포럼 자료집) 등 참조

⑥ 다양성이 커지는 사회구조와 첨단기술 변화에 편승하여 "사회변화 맞춤형 문화서비스로 혁신하기"

- 인공지능과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개인 취향에 맞춰 추천되고 개인화된 미디어로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에 길들여지는 시민들이 개별화되기 힘든 공공문화서비스를 지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짐
-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 지향성이 갈수록 다양하지는 시대에 국가가 제시하는 보편가치 지향의 문화서비스는 외면받고,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함.
- 사회 취약계층 대상 선별적 문화복지에서 탈피해서 일반시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를 지향하더라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문화복지>서비스로 혁신이 필요함.
-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인공지능, 가상현실, 디지털플렛폼, 빅데이터, NF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화정책의 포괄적인 디지털전환을 통한 공공문화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함.
- 공공에서 아무리 세밀하게 설계되어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와 시장영역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문화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은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접근 장애요소를 줄여주는 것이 더 적절함.
-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심화되는 고령화, 고독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창의적이며 공감능력을 갖춘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화해야 함.

▷ **"문화도시와 디지털 전환" (DX of Cultural City)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2023-5호, 2023.5.3.)**

- 문화도시 DX = D (data) × N (network) × A (ai) × C (culture) × C (citizens)
- 문화기관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통한 문화서비스 혁신 의지 제고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에 디지털문화도시 계획 얹혀야 함.
- 스마트-문화도시 서울플랜 = 서울플랜 ×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 서울문화플랜.

3.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 제언

(1) 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	❶ 전국 문화재단들의 사례 아카이빙	- 한광연 문화정책 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❷ 사회적 가치 읽어주기	- 회원기관 사업들의 정책적 의미를 읽어주는 <지역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발간
	❸ 공진화 및 사례 확산	- 포럼, 박람회, 아카데미 등 사례 공유 행사 개최 - 탄소저감 ESG 실천 등 공통지표 만들어서 함께 실천
(2) 협력과 지원의 매개자	❹ 적극적으로 정책개발 및 제안	- 문화부 및 지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 회원기관 협력형 전국단위 신규사업 개발하여 제안
	❺ 자원 유치의 가교 역할	- 기업 제휴 및 메세나 프로젝트 공동 제안 - 지역활력 등 타 정책영역 사업의 유치
	❻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 사회적 실천 인식전환 및 노하우 툴킷 공동 개발 - 회원기관 직원 및 지역예술가 대상 교육 공동운영

부록

가. 참고문헌 및 자료들

김성아 외, 2022, 서울시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김세훈, 2015,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문화산업연구 제15권 3호

김인희 외, 2022, 뉴노멀시대 미래도시 전망과 서울의 도시공간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김해보, 2008, 가치 중심의 혁신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의 가치와 거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 제안 - 지역문화재단의 공공혁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제19집

김해보, 2023, Understanding of "Emotional Economics" in the "DMZ"(De-Monetization Zone) of Culture to go forward the "Cultural 經世濟民" (jīng shì jì mín) beyond the Cultural Economy ("문화의 탈화폐화 지대(DMZ : De-Monetization Zone)" 안에서의 "감정경제학 ; "문화경제(cultural economy)"를 넘어 문화경세제민(Cultural 經世濟民)"으로 나아가기, 중국 청두시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Cities

김해보, 2023, 예술의 사회적 가치, 검색하기 또는 대화하기,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호

김해보.장원호, 2020,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제34집 제2호

김해보.조정윤, 2022,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반옥수 외, 2022, 디지털콘텐츠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배성회, 2022,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배지윤 외, 2018, 문화소외지역의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영국 청소년 센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3권5호

백선혜 외, 2022, 뉴노멀시대 서울시민 여가행태 변화와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변영건, 2022, 영국 DCMS의 정신건강과 외로움에 관한 보고서 발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CKIS 정책새소식 35호

부산문화재단, 202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 툴킷(tool-kit)

서울문화재단, 2023, 문화도시와 디지털 전환(DX of Cultural City),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2023-5호

서울문화재단, 2023,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3-12호

송원근, 2008, 정책분석 및 평가와 실증주의 : 절반의 실패?,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양현미, 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외, 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사원 외, 2020,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윤소영, 2009,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2017,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호영·서우석, 2010, 디지털 시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제23집

장훈, 2021, 문화예술의 심리·사회적 가치 추정-행복가치 추정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외, 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외, 2023, 사회문제와 문화예술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홍익 외, 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정윤 외, 202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사연구, 부산문화재단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3, 한국사회의 위험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홍영한, 2005, 동양의 의리와 서양의 정의의 비교, 중등교육연구 53(2)

황선재, 2022, 인구 고령화와 세대갈등 :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국회입법조사처

Alan Brown 외, 2019, Qualitative Impact Framework, Canada Council for the Arts

Americans for the Arts, 2023, 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ARC, 2023,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

Arts Council England, 2022, Culture-Climate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nual Report 2020–21

Bop Consulting, 2021, Culture Counts : new approaches to evidence-based cultural policymaking in World Cities, WCCF

BOP Consulting, 2023, Life and Soul: World Cities Vitality Report, WCCF

Creative Australi, 2023, Widening The Lens – Social inequality and arts participation

부록

Creative Australia, 2023, Connected Lives: Creative solutions to the mental health crisis

Creative Australia, 2023, COVID-19 Audience Outlook Monitor

John D. Carnwath & Alan S. Brown, 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 A Literature Review, Arts Council England

John Holden, 2006,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DEMOS

Mark H Moore & Gaylen Williams Moore, 2005, Creating Public Value Through State Arts Agencies, Arts Midwest

NEA, 2012, How Art Works?

OECD, 2022, The Culture Fix: Creative People, Places and Industries

Peter Taylor 외, 2015,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DCMS

Tom Fleming 외, 2015, Cultural and creative spillovers in Europe: Report on a preliminary evidence review, Arts Council England

Transit Projectes 외, 2023, Measuring the Social Dimension of Culture : Hand Book, EU

UNESCO, 2022, Culture in Times of COVID-19 _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

UNESCO, 2022,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WCCF, 2018, Culture & Climate Change

WCCF, 2022, World Ciries Culture Report 2022

World Economic Forum, 6 ways AI could disrupt the entertainment industry, 2023.8.2.

이 외에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nafac.or.kr) 각 사례들 서술에서 소개된 추가 참고자료들을 포함하여 이번 연구과정에서 참고한 문헌들 목록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회원기관 개요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12년10월26일에 전국 광역문화재단들의 협의체로 발족한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가
2016년5월20일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로 전환하였고
2017년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음.
산하 정책연구소에서 회원기관들이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외 문화정책현장 탐방, 워케이션, 직원 교육 등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연합회 창립선언문 (2016.5.20.)>

바야흐로 우리는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화 유무가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찍이 문화복지 국가를 표방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의 지속 가능한 생명력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 실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
지역문화 발전이야말로 문화복지 국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선언한,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방향인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결국 국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 창출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nafac.or.kr

부록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원기관 일반현황 (2023.12월 기준, 대표자는 2024.3월 기준)

설립일	대표자	조직개요	2023년 예산총액 (백만원)	2023년 기본재산 (백만원)	정관상 목적사업	홈페이지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5, 4층						
1999.12.28	신현상 (대표이사)	2본부, 4실, 1위원회, 6팀	36,146	21,751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 협력 · 연계 · 교류 및 연구사업 -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수사업 -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www.gwcf.or.kr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1997.7.3	유인택 (대표이사)	1관 1실 3본부 8소속 기관 1지원단	134,860	120,009	- 문화예술 창작 ·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 문화예술의 창작·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 국제문화예술 교류 - 지방향토사 연구 -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www.ggcf.or.kr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2010.2.18 기관통합 2013.7.1	김종부 (원장)	3본부, 9팀	50,218	14,660	- 문화예술 창작 ·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정책 개발 연구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분야 국내 · 외 교류 -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 보존 및 활용 -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 교류 및 협력 - 영상물의 창작 · 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 도사(道史) 편찬위원회 업무 지원 -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www.gcaf.or.kr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 시민문화관						
2010.12.27.	공석	3실 1단 9팀	39,334	11,103	-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www.gjcf.or.kr

부록

설립일	대표자	조직개요	2023년 예산총액 (백만원)	2023년 기본재산 (백만원)	정관상 목적사업	홈페이지
경북문화재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서진타워						
2019.7.11	구윤철 (대표이사)	1처, 1본부 3원, 1국, 2실, 15팀, 2센터	46,113	150	**문화예술진흥사업**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 -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후원 관련 사업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육성사업** -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 보존 관리 -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용역 및 자료발간 -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 **한복진흥사업** - 한복을 주제로 한 문화산업 콘텐츠 발굴 및 확산사업 - 한복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 - 전통한복 기술 컨설팅 및 연구개발사업 - 한류콘텐츠로서의 한복문화상품 개발 **융복합 콘텐츠산업** - 지역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 연구 -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 · 외 기업유치 및 교류 · 협력 - 영화 · 드라마 등 영상산업 전반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www.gacf.kr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2009.4.16. / 기관통합 2022.10.7	김정길 (원장)	1실 8본부 13부 37팀	110,454	22,216	- 문화예술의 창작 · 보급 · 활동의 지원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 전통문화의 계승 및 역사 · 문화유산의 발굴 · 보존 · 활용 등 - 오페라축제 및 오페라 관련 예술진흥 사업 -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 - 관광여건 개선 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 -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 전문인력 양성 - 지역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 · 교류 -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www.dgfca.or.kr

부록

설립일	대표자	조직개요	2023년 예산총액 (백만원)	2023년 기본재산 (백만원)	정관상 목적사업	홈페이지
대전문화재단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2009.9.24	백춘희 (대표이사)	2본부 1관 9팀	31,797	19,284	- 문화예술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www.dcaf.or.kr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 구 우암로 84-1						
2009.1.21	이미연 (대표이사)	1센터, 1실, 2본부, 9팀	50,635	35,091	- 문화예술 창작 ·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문화예술교육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 학예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 - 문화예술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www.bscf.or.kr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4.3.15	이창기 (대표이사)	3본부, 9실, 25팀, 8단위 조직	158,846	93,754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www.sfac.or.kr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						
2016.11.29	박영국 (대표이사)	1본부 3실 13팀	23,517	15,000	-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관광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 국내·외 문화예술·관광 관련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육·조사·연구 -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후원 관련 사업 - 축제 및 문화예술·관광행사의 육성 및 지원 -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락(음악창작소) 및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종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www.sjcf.or.kr

부록

설립일	대표자	조직개요	2023년 예산총액 (백만원)	2023년 기본재산 (백만원)	정관상 목적사업	홈페이지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2023. 4. 20.	최병권 (대표이사)	3본부, 9팀,	25,187	164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 관광 및 마이스 자원개발·상품화·마케팅·콘텐츠 확충 -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문화·관광·마이스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반 활성화	www.uctf.or.kr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항동5가 13)						
2004.12.10	김영덕 (대표이사)	1실 2본부 9팀	48,214	74,137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 보존 및 활용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예술인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 -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전개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문화예술분야 국내 · 외 교류사업 추진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 역사 · 문화 자원의 조사 · 연구 - 소외계층 등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 인천아트플랫폼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 - 남북 문화 · 예술 등 교류 사업 -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www.ifac.or.kr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3층						
2009.5.29. 명칭변경 2020.7.6. (문화관광-> 문화)	김은영 (대표이사)	1사무처 (4팀 1소) 1사무국 (2팀)	40,372	13,557	-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의 창작 · 보급 및 활동의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 · 협력사업 마. 지역문화예술 · 유산의 발굴 · 보존 및 재현 · 전승 활동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시책 운영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자.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 차. 메세나 활동 권장 및 사업위탁 카. 기부금 관리 및 운영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www.jncf.or.kr

설립일	대표자	조직개요	2023년 예산총액 (백만원)	2023년 기본재산 (백만원)	정관상 목적사업	홈페이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4층						
2015.12.7. 명칭변경 2016.10.3. (전북->전라북도)	이경윤 (대표이사)	1사무처 3본부 7팀	43,117	32,704	-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 - 지역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 · 교류에 관한 업무 -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 - 지역문화·관광 관련 교육·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사업 -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후원 관련 사 업 - 재단의 기금 조성 및 운영 사업 - 지역문화·관광의 국내 · 외 교류사업 -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www.jbct.or.kr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2000.12.30.	김수열 (이사장)	1본부 6팀 (1TF팀)	21,774	18,531	- 문화예술 정책 개발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문화예술정보 교류 -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 문화예술산업의 육성 지원 - 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www.jfac.kr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2013.12.18.	서흥식 (대표이사)	3본부 10팀	24,941	77.5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 관광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 관광진흥 목적외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 백제문화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www.cacf.or.kr

부록

설립일	대표자	조직개요	2023년 예산총액 (백만원)	2023년 기본재산 (백만원)	정관상 목적사업	홈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94번길 7					
2011.11.30	김갑수 (대표이사)	3본부 9팀	27,484	27,808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문화예술 축제 및 기타 자체·위탁 문화사업 - 관광 사업 발굴 콘텐츠 확충 -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 국내·외 관광 교류 협력 사업 -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사업 - 관광 사업 지원 및 관광 시장 육성 사업 - 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 그 밖의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www.cbfc.or.kr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연구 2023-1)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_
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발 행 처 :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 이창기)
발 행 일 : 2024년 2월 1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그 회원기관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http://nafac.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